

2013학년도 고3 국어 독서 문제지

1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3월 A형

근대 철학의 포문을 연 데카르트와 그 후예들의 문제 설정의 중심에는 '주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근대 철학은 헤겔 이후 도전에 직면하였으며, 특히 인간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는 근대 철학의 지배적 이념이 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근대 철학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으로 환경론자들의 주장을 들 수 있다. 환경론자들에 의하면 근대 철학은 이분법적 사고 방식에 근거하여 인간을 주체로, 자연을 인간에 의해 인식되고 지배되는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라는 부당한 이념을 유포시켰다고 주장한다.

환경론자들은 근대를 주도하고 지배하던,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위세를 떨치고 있는 과학기술주의에 주목하였다. 과학기술주의는 근대 철학의 영향으로 자연을 수량화와 계산을 통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창고로 바라보았다. 그 결과 자연 파괴는 물론 그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삶에 전반적인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것이 환경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환경론자의 비판에 철학적 기초를 제공한 현대 철학자로 하이데거를 들 수 있다. 그에 의하면 근대 철학의 근본적 특징은 인간 중심주의이자 이성 중심주의이다. 이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인간에 의해 인식되고 파악되고 지배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는 계산적 사유에 근거한다. 즉 ㉠ 계산적 사유로서의 이성은 모든 ㉡ '존재하는 것(존재자)'을 '주체'인 인간의 지배 대상으로 전락시켰으며, 이로 인해 존재자의 본원적인 존재 의미는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존재자 본연의 존재 의미를 성찰하면서 새로운 사유의 지평을 열었다. 그는 존재자들이 전체 속에서 의미 있게 결합되어 있는 관계로 존재한다고 하면서, 존재자는 그러한 관계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또한 그 전체 연관성 속에서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성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근대 철학의 지배적 이념은 헤겔 이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 ② 환경론자들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근대 철학의 이분법적 사고를 비판하였다.
- ③ 과학기술주의자들은 자연을 수량화와 계산을 통해 지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았다.
- ④ 환경론자들은 자연 파괴로 인한 폐해보다는 인간 삶에 닥친 위기에 더 관심이 많았다.
- ⑤ 하이데거는 환경론자들의 주장에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2. ㉠과 ㉡을 중심으로 하이데거의 주장을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근대 철학의 이성 중심주의는 ㉠에 근거하고 있다.
- ② 근대 철학에서 ㉠은 인간을 대상화하면서 생성되었다.
- ③ ㉠으로 인해 ㉡의 본원적 존재 의미가 상실되었다.
- ④ ㉡의 본원적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을 극복해야 한다.
- ⑤ ㉡은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연관성과 유일성을 갖는다.

3. 글쓴이가 윗글에서 <보기>를 활용한다고 할 때, 그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근대 철학에서 '주체'는 사유하고 지각하는 존재로서 의식의 단일성과 통일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충동과 욕망 같은 '무의식'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지배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 ① 하이데거의 '존재자' 개념의 타당성을 확보한다.
- ② 근대 철학의 '주체' 개념을 비판하는 논거로 삼는다.
- ③ 근대 철학에서 '주체' 개념이 변화해 온 과정과 배경을 밝힌다.
- ④ 근대 철학의 관점에서 하이데거의 비판을 재반박하는 논거로 삼는다.
- ⑤ 하이데거의 '새로운 사유'가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에 근거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3월 A형

정보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개인 정보 침해 사례가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다수의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침해 사례에 맞추어 특별법이 제정되다 보니 법률 간의 중첩이나 법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인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1년 ‘개인 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법에 의해 개인 정보가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먼저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 정보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 흔히, 개인 정보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정도로 생각하여, 개인을 정확히 알아볼 수 없으면 개인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예를 들어 인사와 1팀에 김영수 씨와 박영수 씨가 있는 경우, ‘인사와 1팀 영수 씨’라는 정보는 김영수 씨와 박영수 씨 중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개인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운 정보 역시 개인 정보에 포함된다.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 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부연하고 있다. 즉, ‘특정성’을 지닌 정보는 물론 ‘특정 가능성’을 지닌 정보 역시 개인 정보로 보고 있는 것이다. 지문, 총재, 서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은 특정성을 지닌 개인 정보이고, 나이, 직업, 거주지 주소 등은 특정 가능성을 지닌 개인 정보이다. 따라서 ‘인사와 1팀 영수 씨’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이를 개인 정보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는 특정성을 지닌 정보는 물론 특정 가능성을 지닌 정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특정 가능성을 지닌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게 되면 언제라도 특정성을 지니게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 정보의 유출이나 악용에 의해 한 개인이 엄청난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해서까지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 정보를 유출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 정보 처리 담당자가 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안전 조치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 처리 담당자가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입수한 후, 컴퓨터에 아무런 암호 장치 없이 저장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실제로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니지만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러한 법률적 규제는 개인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4.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다.
- ② 하나의 현상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③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 ④ 기존의 관점을 반박하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5.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설명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ㄱ. A 상점에서는 적립 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암호화하여 관리하였다.
 - ㄴ. B 여론 조사 기관에서는 여론 조사 과정에서 응답자의 나이와 거주지 주소를 받아 여론 조사 기관의 컴퓨터에 그대로 저장해 두었다.
 - ㄷ. C 회사에서는 개인 정보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다가 고객들의 아이디를 외부로 유출하여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 ※ 위 사례는 모두 ‘개인 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

- ① ㄱ의 주민등록번호, ㄴ의 나이와 거주지 주소, ㄷ의 아이디는 모두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
- ② ㄱ의 손님, ㄴ의 응답자, ㄷ의 고객들은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자신의 개인 정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③ ㄱ의 정보 처리 담당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는 행위는 ‘개인 정보 보호법’의 안전 조치 의무 규정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 ④ ㄷ의 C 회사가 만약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정보 처리 담당자의 과실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
- ⑤ ㄴ과 ㄷ의 정보 처리 담당자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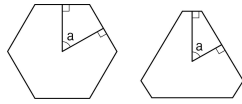
6. 뒷글로 보아,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성을 지닌 정보이기 때문이다.
- ② 특정 가능성을 지닌 정보이기 때문이다.
- ③ 특정성과 특정 가능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 ④ ‘개인 정보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 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3월 A형 B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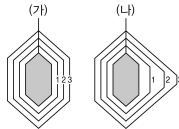
광물은 지각을 이루는 암석의 단위 물질로서 특징적인 결정 구조를 갖는다. 광물의 결정 구조는 그 광물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일정하게 배열된 양상이다. 같은 광물일 경우 그 결정 구조가 동일하며, 이러한 결정 구조에 의해 나타나는 규칙적인 겹모양인 결정형(crystal form)도 동일하다. 그런데 실제로 광물들의 결정은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덴마크의 물리학자 니콜라우스 스테노는 등산길에서 채집한 수정의 단면들이 서로 조금씩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에 궁금증이 생겼다.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그는 수집한 수정의 단면도를 그려서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수정 결정의 모양은 모두 조금씩 다르지만 맞닿은 결정면들이 이루고 있는 각은 <그림1>의 a와 같이 항상 일정하다는 '면각 일정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림1> 면각 일정의 법칙

스테노는 같은 광물의 결정일 경우 면각이 일정해지는 이유가 ㉠ 결정 내부의 규칙성 때문일 것이라 짐작했다. 당시만 해도 그 규칙성의 이유가 되는 결정 내부의 원자 배열 상태를 직접 관찰할 수 없었다. 그가 죽은 뒤 X선이 발견되고 나서야, 결정 모양이 그 결정을 이루고 있는 내부 원자들의 규칙적인 배열 상태를 반영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림2> 결정의 성장 과정(결정의 수직 단면)

그렇다면 같은 종류의 결정이 서로 다른 모양으로 형성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결정에 주입되는 물질의 공급 정도에 따라 결정면의 성장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광물의 작은 결정 두 개를, 같은 성분을 가진 용액 속에 대달아 놓았다고 하자. 이때 (가) 결정이 담긴 용액은 물질이 사방에서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나) 결정이 담긴 용액은 물질이 오른쪽에서 더 많이 공급되도록 해 놓으면 (가) 결정은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이상적인 모양을 가진 결정(이상결정)으로 성장하는 반면, (나) 결정은 기형적인 모양을 가진 결정(기형결정)으로 성장하게 된다. (나) 결정의 오른쪽 결정면은 다른 결정면들보다 성장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결정이 성장해 나갈수록 결정면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2>를 통해 설명한 바와 같이 물질의 공급 환경이 다른 곳에서 성장한 결정들은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가)와 (나)는 같은 광물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면각은 서로 같다. 이처럼 같은 광물의 결정은 그 면각이 같다는 사실을 통해 다양한 모양의 결정들의 종류를 판별할 수 있다. 면각 일정의 법칙은 광물의 결정을 판별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준으로, 현대 광물학의 ㉡ 초석이 되었다.

7. 뒷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① 면각 일정의 법칙은 무엇인가?
- ② 면각 일정의 법칙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③ 광물별 결정형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④ 결정면의 성장 속도는 결정면의 크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 ⑤ 같은 광물의 결정이 다른 모양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8. ㉠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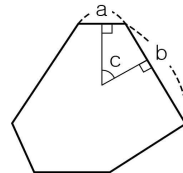
- ① 스테노는 ㉠을 추측하기는 했지만 확인하지는 못했다.
- ② 스테노는 ㉠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물리 법칙을 입증했다.
- ③ ㉠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X선이 개발되었다.
- ④ 스테노는 ㉠의 다양한 양상들을 비교하여 분류 체계를 만들어 냈다.
- ⑤ ㉠을 분석한 내용이 면각 일정의 법칙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9. 뒷글을 통해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어떤 광물이 성장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수평 단면을 보이는 결정이 되었다. (단, 물질 공급 이전의 결정의 초기 모양은 정육각기둥으로 가정하고, 결정의 성장 과정에서 물질 공급을 제외한 다른 요인은 배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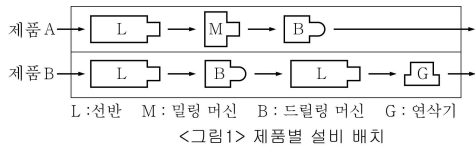
- ① 지금까지와 같이 물질 공급이 지속된다면, a면은 점점 좁아질 것이다.
- ② 현재의 결정 모양은 a면보다는 b면으로 물질이 더 많이 공급된 결과일 것이다.
- ③ 모든 방향에서 물질이 고르게 공급되었다면, a면과 b면의 면적은 같았을 것이다.
- ④ 현재의 결정이 더 성장하게 되더라도 a면과 b면이 이루는 각 c는 항상 같을 것이다.
- ⑤ 결정의 모양이 달라졌지만, 결정 내부의 원자 배열이 가진 규칙성은 훼손되지 않았을 것이다.

10. ㉡와 바뀌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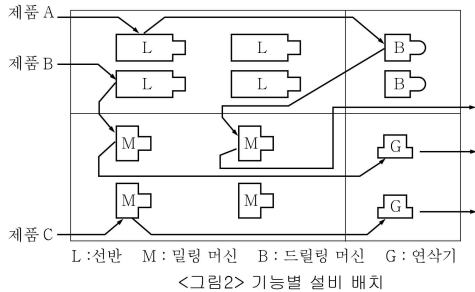
- ① 지붕돌 ② 고임돌 ③ 버팀돌
- ④ 굽은돌 ⑤ 주춧돌

[11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3월 A형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 설비의 효율적인 배치가 중요하다. 효율적인 설비 배치란 자재의 흐름이 정체됨이 없이 원활하도록 하여 자재의 불필요한 운반을 최소화하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적은 노력으로 빠른 시간에 목적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비를 배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설비 배치의 방식은 주로 제품의 종류나 그 수량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크게 나뉜다.



㉠ 제품별 배치(Product Layout) 방식은 생산하려는 제품의 종류는 적지만 생산량이 많은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각 제품별로 완성품이 될 때까지의 공정 순서에 따라 설비를 배열해 부품 및 자재의 흐름을 단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공정의 흐름에 따라 제품이 생산되므로 자재의 운반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어 전체 공정 관리가 쉽다. 그러나 기계 고장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공정이 지연될 수 있고, 규격화된 제품 생산에 최적화된 설비 및 배치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의 규격이나 디자인이 변경되면 설비 배치 방식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 기능별 배치(Process Layout) 방식은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경우에 적합한 방식이다. 고객의 요구가 다양하고 제품의 디자인이 수시로 변하는 패션 의류나 규격화가 어려운 특수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볼 수 있다. 이 방식의 핵심은 같은 기능의 설비들을 한데 모아 배치한다는 것이다. 기능별 배치를 하게 되면 동일한 설비들을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어 설비 관리가 쉽고, 기계 고장과 같은 문제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설비에 따라 자재가 이동하므로 자재의 이동 및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제품별 공정이 서로 달라서 전체 공정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그룹 배치(Group Layout) 방식은 기능별 배치 방식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설비 배치 방식으로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방식의 핵심은 형태나 공정이 유사한 제품들을 하나의 제품군으로 묶고, 그러한 제품군들이 공통적으로 거치는 설비들을 하나의 설비군으로 묶어 소그룹화된 작업장인 셀(Cell)에 배치하는 것이다. 하나의 설비군 안에서 특정 제품군에 속한 모든 제품들이 필요한 공정을 거치도록 하기 때문에 공정 흐름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고, 자재의 이동 및 대기 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셀별로 공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공정의 관리가 훨씬 수월해진다.

11.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비 배치 방식을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② 가상 상황을 예로 들어 설비 배치 방식의 변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③ 기존의 설비 배치 방식을 소개한 뒤 새로운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④ 특정한 이론에 바탕을 두고 설비 배치 방식이 변화해 온 이유를 상술하고 있다.
- ⑤ 각각의 설비 배치 방식이 출현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12.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전체 공정의 관리가 쉬운 반면, ㉡은 전체 공정 관리가 쉽지 않다.
- ② ㉠은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한 반면, ㉡은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다.
- ③ ㉠은 문제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반면, ㉡은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 ④ ㉠은 규격화된 제품의 생산에 적합한 반면, ㉡은 규격화하기 어려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 ⑤ ㉠은 자재의 흐름이 단순한 반면, ㉡은 자재의 흐름이 길고 복잡하다.

1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A 공장'의 상황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공장은 다양한 패션 의류를 유행의 변화에 맞춰 디자인을 빠르게 바꿔가며 생산해 왔다. 그런데 유행이 달라져도 꾸준히 많이 팔리는 품목이 있어 재고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A공장은 이러한 품목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설비 배치를 전환하려고 한다.

① 기존의 설비 배치 방식	유행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능별 배치 방식을 사용했을 것이다.
② 부분적으로 설비 배치 전환이 필요한 이유	현재의 배치 방식으로는 꾸준히 많이 팔리는 품목의 생산성을 높이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③ 최적의 설비 배치 방식 모색	다품종 생산을 유지하면서도 몇몇 제품을 효과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룹 배치 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④ 설비 배치 전환을 위한 사전 준비	거치는 공정이 유사한 제품들을 조사해 하나의 제품군으로 묶고, 그에 따라 설비군을 묶어 본다.
⑤ 설비 배치 전환의 기대 효과	동일한 설비를 하나의 셀 안에 모아 둘 수 있어 설비 관리가 더 쉬워질 것이다.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3월 B형

우리는 노동을 제공하면 으레 그에 합당한 크기의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 만족을 경험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불만족을 경험한다. 그런데 자신이 받은 보상의 크기가 합당한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이 바로 '공정성'이다. 공정성은 크게 '배분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기업의 이윤에서 임금으로 얼마를 배분받느냐가 '배분 공정성'에 관한 문제라면, 얼마의 임금을 배분받을지 결정되기까지의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는 '절차 공정성'의 문제이다.

배분 공정성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 업적 등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보상이 합당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타인이 받은 보상과 비교를 한다. 이에 대해 공정성 이론을 주장했던 아담 스는 다음의 산술식을 활용해 설명했다.

$$\frac{\text{산출}(P)}{\text{투입}(P)} = \frac{\text{산출}(O)}{\text{투입}(O)} \quad (P=\text{자신}, O=\text{타인})$$

이 산술식에서 '투입'은 개인의 노력, 업적, 기술, 연령, 교육, 경험 등을 가리키며, '산출'은 조직이 개인에게 주는 보상으로 임금, 후생 복지, 승진, 지위, 권력 등을 포함한다. 아담 스는 개인이 이러한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타인과 비교해 그 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정성을 지각해 자신이 배분받은 것에 만족하는 반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불공정성을 지각해 불만이나 죄책감을 느낀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공정성과 불공정성의 지각은 개인의 동기 부여에 영향을 미친다.

배분 공정성은 '내부 공정성'과 '외부 공정성'으로 구분된다. 내부 공정성은 조직 내부의 공정성으로 조직의 직무·직능·근속 및 성과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는 제도를 잘 갖추으로써 공정성을 유지·확보하는 것이다. 내부 공정성의 확보는 개인의 만족과 그로 인한 업무 효율성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부 공정성은 해당 조직의 구성원이 받는 보상 수준이 다른 조직의 구성원이 받는 보상 수준에 비해 공정한가에 관한 것이다. 외부 공정성의 확보는 조직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절차가 공정했는지에 관한 ㉠ 절차 공정성은 배분 공정성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면 그 결정에 대한 사람들의 수용성이 높아진다. 절차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상 수준의 결정에 활용되는 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고충 처리 절차나 이의 제기 절차가 있어 오류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배분이 이루어지는 절차가 배분을 통해 보상을 받는 개인들의 윤리·도덕 기준에 부합되게 이루어지면 절차 공정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배분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지각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성원들의 행동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정성을 높이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14. 윗글로부터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투입에 비해 산출이 클수록 '배분 공정성'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 ②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타인과 비교해 '배분 공정성'을 지각할 수 있다.
- ③ 자신의 보상이 합당한지를 판단할 때 '공정성'이 기준이 될 수 있다.
- ④ 구성원의 '공정성'에 대한 지각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관련이 있다.
- ⑤ '외부 공정성'은 조직의 인력 수급과 대외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5. 윗글로 보아, <보기>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 >

ㄱ은행과 ㄴ은행에 동시에 합격한 Y씨는 동일한 일을 해도 ㄴ은행이 ㄱ은행보다 평균 임금이 높고 후생 복지도 좋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ㄱ은행에 입사했다. ㄱ은행이 ㄴ은행보다 선진화된 인사 고과 시스템을 갖추어 직원들의 업무 성과를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성과에 대한 보상제도가 ㄴ은행보다 잘 갖추어져 있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근속 연수와 상관없이 승진을 시켜주기 때문이었다.

- ① 직원들의 평균 임금과 후생 복지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ㄴ은행보다 ㄱ은행의 '외부 공정성'이 더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할 것 같다.
- ② 성과에 대한 보상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ㄱ은행보다 ㄴ은행의 '내부 공정성'이 더 많이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 ③ Y씨가 ㄱ은행을 선택한 것은 평균 임금보다 후생 복지를 더 중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어.
- ④ ㄱ은행은 선진화된 시스템을 통해 업무 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ㄴ은행보다 '절차 공정성'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⑤ Y씨가 근속 연수와 상관없는 승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해 ㄱ은행을 선택한 것은 '배분 공정성'보다 '절차 공정성'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야.

16.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때 개인의 주관이 많이 개입된다는 말이로군.
- ② '배분 공정성' 없이 '절차 공정성'만 확보되면, '공정성' 확보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말이로군.
- ③ 개인들의 윤리·도덕 기준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배분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이로군.
- ④ '배분 공정성'이 '절차 공정성'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된다는 말이로군.
- ⑤ 배분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결정되면, 그 결정에 대해 '공정성'을 지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말이로군.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3월 B형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윤리적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의 실천은 동기에서 비롯한다. 이 점에서 윤리학의 핵심 과제 두 가지가 도출된다. 하나는 도덕 원칙이나 규칙 혹은 윤리적 행위의 가치를 입증하는 정당화 과제이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도록 행위를 유인하는 동기화 과제이다. 정당화 과제는 무엇이 정당하며, 왜 정당한가를 따지는 일이며, 동기화 과제는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떻게 인도하고 유인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일이다. 이 둘은 윤리학의 쌍두마차인데, 시대에 따라 윤리학이 주력한 과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였다.

근대 이전의 윤리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정당화의 기반을 특정한 형이상학에 두고 있다. 또한 이 시대의 윤리학은 특정한 공동체를 현실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까닭에 그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한 정치적, 법적인 관행에 의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학은 이 같은 전통과 관행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의거한 규범과 윤리를 전제로 한 동기화에 주력하였다.

윤리학이 정당화 과제보다 동기화 과제에 전념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윤리 체계는 관행이나 관습에 안주하면서 교조적인 모습을 띠게 되고, 현상 유지를 위한 보수화, 권위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일반적으로 질서정연한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정당화에 대한 요구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 하지만 안정된 공동체가 해체되어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에는 그 질서를 유지할 새로운 규범 체계에 대한 정당화 과제가 전면으로 부상하게 된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개인들을 서로 묶어 주고 그들 간의 갈등을 완화해 주던 유대가 점차 약화되고, 상업적인 인간관계가 점차 늘어났다. 그에 따라 ㉠ 개인주의가 우세해짐으로써 정당화 요구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근대 이후의 윤리학이 의무, 옳음, 책무 등에 대한 정당화 과제에 골몰해 온 결과, 윤리적 삶에서 행위의 동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되었다.

어떠한 도덕적 행위도 정당화 측면과 동기화 측면을 갖는 만큼 윤리학은 모든 도덕적 영역에서 정당화와 동기화 과제를 균형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때 모든 덕행은 언제나 정당화의 관점에서 반성되고 성찰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의무는 현실성 있는 동기화의 관점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17.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덕적 편향성이 나타나는 원인 분석
- 각 시대별 윤리학적 논쟁을 중심으로
- ② 가치와 동기의 관계에 대한 비판과 성찰
- 보편적 윤리학의 한계를 중심으로
- ③ 교조적인 윤리학이 등장한 배경 설명
- 윤리에 대한 동서양의 관점을 중심으로
- ④ 윤리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
- 기존 윤리학이 지닌 편향성의 분석을 중심으로
- ⑤ 윤리학과 인간의 삶 사이의 상관관계 고찰
- 도덕적 가치의 변천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1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임진왜란 이후 조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고, 유교적 윤리의식은 땅에 떨어졌다. 이에 조선의 임금인 광해군은 □동국신속상강행실도 □를 편찬하여 각 지방에 배부하였다. □동국신속상강행실도 □는 임진왜란 중에 목숨을 바친 사람을 비롯하여 신라, 고려, 조선 시대의 충신, 효자, 열녀의 행적을 수록하고, 그 덕행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광해군은 □동국신속상강행실도 □를 통해 충, 효, 예라는 유교적 이념으로 백성들을 교화하고 혼란스러운 민심을 수습하여 피폐해진 국민 도의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 ① 조선 사회의 윤리 체계는 정당화의 기반을 유교적 이념에 두고 있었군.
- ② 광해군 때는 전통적 권위에 의거한 규범을 전제로 한 백성들의 동기화가 시도되었군.
- ③ □동국신속상강행실도 □를 간행한 것은 동기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군.
- ④ 충, 효, 예는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배경으로 한 조선 시대 윤리 체계의 핵심 개념이었겠군.
- ⑤ 충신, 효자, 열녀의 덕행을 찬양한 것은 새로운 윤리 체계에 대한 정당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군.

19. ㉠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윤리학에서 개인의 실천을 중시하게 되었기 때문에
- ② 기존 윤리학에서 동기화 과제보다 정당화 과제를 더 중시했기 때문에
- ③ 사람들이 윤리적 행위에서 의무보다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 ④ 특정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윤리학과 그에 관련된 윤리 체계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 ⑤ 중세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기존의 윤리학과 그에 관련된 윤리 체계 유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20~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3월 B형

13세기 유럽 미술은 비잔틴 미술의 영향 아래 있었다. 비잔틴 미술은 종교화의 본보기를 제시하였다. 당대의 화가는 성서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관습화된 종교적 이미지들을 배치했다. 인물은 좌우대칭이 분명해 고정된 듯한 느낌을 주었고, 아무 감정도 찾아볼 수 없는 표정과 작위적인 시선을 가진 모습이었다.

그러나 13세기 말 이탈리아에서는 이와 구별되는 회화가 나타났다. 새로운 회화의 선구자는 조토 디 본도네였다. 조토는 평면적 작품 위주였던 당시에 입체감을 표현하여, 고대 로마 미술을 마지막으로 천여 년 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회화에서의 공간을 회복시켰다. 또한 인물의 표현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표정 묘사와 시선 처리에서 생생한 인간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한 것이다. 심지어 신격화되어 왔던 대상까지도 사실적이고 인간적으로 그려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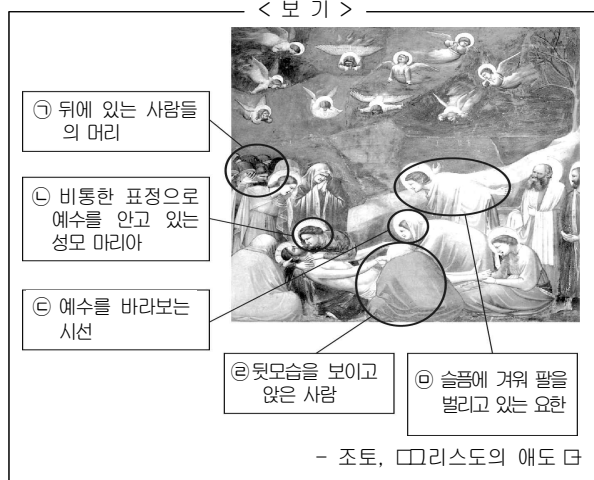
그렇다면 조토는 어떻게 당대 다른 그림보다 입체적이고 사실감 있는 회화를 이루어냈을까? 그 기반에는 사실적인 관찰이 있었다. 일례로 이탈리아의 아레나 성당에 그려진 「동방박사의 경배」에 나타난 별을 들 수 있다. 그는 할리 혜성의 모습을 관찰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 그림을 그린 것이다. 이렇듯 그는 사물과 인간에 대해 관찰한 것을 그림에 반영해 내었다. 또한 조토는 구도를 면밀하게 고려함으로써 사실적 경향을 강조하였다. 당시의 화가들은 평면의 세부적 묘사에 치중하였다.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여도 서로 겹치지 않도록 모두 정면을 바라보고 있도록 하였으며, 앞뒤 인물의 크기를 비슷하게 그렸다. 그러나 조토는 뒤로 갈수록 인물과 사물의 크기를 줄여나가는 원근법을 사용하였고, 앞과 뒤의 인물이나 사물이 겹쳐지도록 표현하는 중첩법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의 간격이 느껴지도록 하였으며 거리와 깊이를 표현할 수 있었다.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그의 그림은 여전히 중세의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미묘하고 강렬한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한 화가였고, 이러한 그의 업적은 이후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20. 뒷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고대 로마 미술은 회화에서 공간감을 나타냈다.
- ② 르네상스 미술은 비잔틴 미술의 원근법을 계승하였다.
- ③ 비잔틴 미술은 관습화된 종교적 이미지들을 사용했다.
- ④ 13세기 말 이탈리아에서는 평면적인 회화가 대부분이었다.
- ⑤ 13세기 유럽 회화에 묘사된 인물은 좌우대칭이 분명해 고정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

21. 뒷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그림을 감상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중첩법으로 표현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에서 성모 마리아와 같이 신격화되어 온 대상에도 인간적인 감정을 불어넣은 것을 찾을 수 있군.
- ③ ㉢에서 볼 수 있는 분명하고 생생한 시선 처리는 중세 종교화에서 이어온 인물 표현의 방식이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군.
- ④ ㉣에서 인물들이 모두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당시의 그림들과 대비되는 새로운 구도를 읽어낼 수 있군.
- ⑤ ㉤에서 슬퍼하는 사람의 자세를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화가가 사람의 움직임에 대해 관찰해 온 결과라 할 수 있군.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4월 A형 B형

특정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네트워크효과(network effect)라고 말한다. 이러한 네트워크효과에는 유행효과와 속물효과가 있다.

어느 한 상품이 유행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상품을 구입하려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소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것에 영향을 받아 그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것을 유행효과라고 한다. 예를 들어 유행효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A 게임기의 가격이 20만 원일 때 5천 대, 15만 원일 때 6천 대로 수요량이 변한다고 한다. 그런데 유행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20만 원이었던 A 게임기의 가격이 15만 원으로 하락했을 때 게임기의 수요량이 6천 대가 아닌 8천 대로 늘어난다고 하자. 이는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게임기를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이들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소비가 창출된 결과, 수요량의 증가폭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유행효과는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들이나 연예인을 동경하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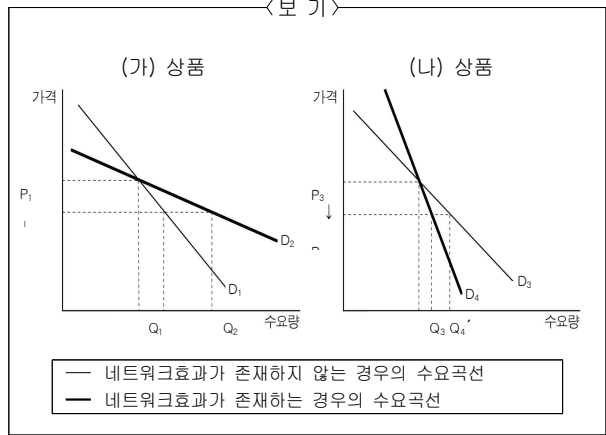
이와는 달리, 어떤 상품을 소비할 때 소수만이 소유하기를 바라는 심리가 ㉠ 깔려 있는 경우, 그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생기게 된다. 이렇게 소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것에 영향을 받아 그 물건을 구입하지 않게 되는 것을 속물효과라 한다. 예를 들어 속물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B 손목시계 가격이 3백만 원에서 1백만 원으로 하락했을 때 수요량이 1천 개 더 늘어난다고 한다. 그런데 속물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B 손목시계의 가격이 1백만 원으로 하락했을 때 수요량의 증가폭이 5백 개에 그쳤다고 하자. 이는 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어 남들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심리가 충족되지 못해 그 상품을 사지 않겠다는 사람이 생겨나므로, 결과적으로 수요량의 증가폭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속물효과는 상품의 희소성이 약화될 때 나타나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높은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 할인이나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자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끼리 다른 소비자들과 독립적으로 소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위의 두 경우와 같이 여러 사람의 수요가 상호의존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한다.

1. 뒷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네트워크효과의 개념은 무엇인가?
- ② 유행효과가 유발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 ③ 유행효과는 어떤 소비자에게서 잘 나타나는가?
- ④ 속물효과에 따라 수요량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 ⑤ 속물효과를 발생시키는 심리적 배경은 무엇인가?

※ <보기>는 네트워크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존재하는 경우의 수요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2번과 3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2. 뒷글과 관련지어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상품의 가격이 P_1 에서 P_2 로 하락할 때 수요량이 Q_1 에서 Q_2 로 증가했다면, 유행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겠군.
- ② (가) 상품의 가격이 P_1 에서 P_2 로 하락할 때 유행효과가 존재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Q_1 에서 Q_2 만큼 수요량이 더 증가하겠군.
- ③ (나) 상품의 가격이 P_3 에서 P_4 로 하락할 때 속물효과가 존재한다면, 수요량은 Q_3 에서 Q_4' 로 변화하겠군.
- ④ (나) 상품의 가격이 P_3 에서 P_4 로 하락할 때 수요량이 Q_4 가 아니라 Q_4' 로 된다면, 타인과 차별화되고 싶은 심리가 작용한 것이겠군.
- ⑤ D_1 과 D_2 , D_3 과 D_4 를 각각 비교해 볼 때, 다른 사람들의 수요가 개인의 수요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군.

3. 다음은 <보기>의 (가), (나) 상품에 대한 판매 전략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품	판매 전략
(가)	상품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그 상품에 대한 무료 체험 행사를 실시하여 사람들의 구매를 촉진한다. …………… ①
	유명인들이 해당 상품을 방송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줌으로써 상품의 소비를 대중적으로 확대시킨다. …………… ②
(나)	가격 경쟁보다는 해당 상품의 특성과 이미지를 차별화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 ③
	해당 상품의 수량을 조절하여 상품의 시장 판매량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 ④
	해당 상품과 어울리는 상품을 묶음으로 구성하여 제공함으로써 상품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줄인다. …………… ⑤

4. 밑줄 친 단어 중, ㉠과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것은?

- ① 내 가방에 깔려 납작해진 빵을 발견했다.
- ② 할머니 집 마루에는 돗자리가 깔려 있었다.
- ③ 그 사람의 말에는 좋은 의도가 깔려 있었다.
- ④ 동네에는 그에 대한 소문이 꼭 깔려 있었다.
- ⑤ 여기저기에 깔려 있는 돈만 해도 상당한 액수였다.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4월 A형

우리는 TV나 신문 등을 통해 인간의 공격행동과 관련된 사건들을 흔히 접한다. 공격행동이란 타인에게 손상이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진 모든 행동을 의미하는데, 인간의 공격행동에 대해 심리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제시하였다.

프로이드(Freud)는 인간은 생존 본능을 지니고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 받으면 본능적으로 공격행동을 드러낸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달라드(Dollard)는 인간은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획득하는 데에 간섭이나 방해 받을 때, 욕구좌절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공격행동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욕구좌절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공격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욕구좌절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공격행동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공격행동이 일어나는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해 ㉠ 반두라(Bandura)는 인간의 공격행동이 관찰을 통해 학습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주의집중 과정에서는 타인의 공격행동을 관찰하면서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공격행동을 관찰하게 되는 빈도가 높을수록, 관찰 대상과 연령이 비슷할수록 그와 같은 행동이 학습되기 쉽다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파지*과정에서는 관찰한 공격행동을 머릿속에 기억하게 되는데, 이는 자신이 관찰한 것을 언어적 기호 또는 영상의 형태로 기억하는 인간의 인지 능력과 관련이 있다. 이 과정에서는 인지적 시연*이 공격행동에 대한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 즉 관찰한 공격행동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이를 머릿속으로 그려 보는 것만으로도 기억이 오래 남게 된다. 세 번째 행동재생 과정에서는 머릿속에 저장된 공격행동을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한번 실행해 보게 된다. 즉 관찰된 공격행동을 단순히 따라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과 관찰 대상의 행동을 일치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파지 단계와 마찬가지로 인지적 시연이 반복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동기부여 과정에서는 공격행동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면서 다음에도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동기가 부여된다. 즉 자신의 공격행동으로 무엇인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공격행동을 다시 표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자신의 공격행동에 대해 직접 보상을 받는 경우에도 동기가 부여되지만 다른 사람이 공격행동을 한 후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한 관찰에 의해서도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반두라의 견해는 인간의 공격행동이 드러나는 데에는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인간 내부의 인지적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파지: 경험에서 얻은 정보를 유지하고 있는 작용.
* 인지적 시연: 어떤 행동을 관찰한 후 이를 머릿속으로 그려 보는 것.

5. 밑글의 서술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비유적 표현을 구사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 ② 통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③ 상반된 이론을 비교하여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특정 행위가 나타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다양한 이론이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6. <보기>는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초등학교 A 군은 학교 폭력 가해 학생으로, 자신이 폭력 행동을 한 후 자신을 대하는 주변 친구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에 우쭐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자주 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한편 A 군은 평소 폭력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는 영상물과 게임을 즐겼다고 한다. 실제 △△ 청소년재단이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폭력적인 장면이 담긴 영상물을 접한 후 폭력적인 행위를 자주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흉내 내는 학생이 많았다고 한다.

- ①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이 폭력적인 영상물을 보고 그것을 흉내 내는 것은 공격행동을 재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A 군의 공격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난 것은 파지 과정에서 인지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공격행동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의집중 과정을 거치는데, A 군은 평소 공격행동이 학습되기 쉬운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④ 공격행동이 다시 나타나기 위해서는 보상이 필요한데, 주변 친구들의 태도가 A 군의 공격행동에 동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 ⑤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이 폭력적인 영상물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은 공격행동의 인지적 시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7. 다음은 밑글을 읽은 학생이 작성한 독서록의 일부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글을 읽고서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 공격행동의 개념을 알 수 있었다. 요즘 공격행동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 공격행동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생각은 여러 가지였다. 그중 달라드의 견해로 설명할 수 있는 공격행동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 놀이기구를 타려고 오랫동안 줄을 서 있던 어떤 사람이 새치기하는 사람을 때려서 싸움이 일어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달라드의 견해에 한계가 있다는 글쓴이의 생각이 타당한 것 같다. ㉣ 달라드의 견해로는 자신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은 사람에게 재미 삼아 공격행동을 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은 대체로 반두라의 견해를 다루고 있는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 관찰된 공격행동이 파지 과정에서 언어적 기호보다는 영상의 형태로 더 잘 기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찾아보아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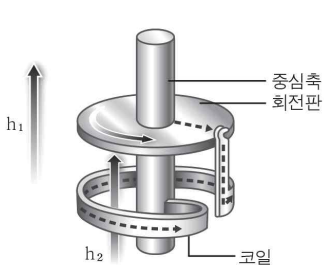
- ① ㉠ ② ㉡ ③ ㉢ ④ ㉣ ⑤ ㉤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4월 A형

우리는 지구가 만들어 낸 커다란 자기장 속에서 살고 있다. 만약 금성처럼 지구에 자기장이 생성되지 않았다면 태양으로부터 쏟아지는 전기성을 띤 입자들을 막지 못했을 것이며, 그 결과 전기 입자들이 지닌 높은 에너지로 인해 대기층이 손상되어 생명체의 생존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구의 자기장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과거의 과학자들은 지구 내부에 고체로 된 영구자석이 들어 있어서 지구 자기장을 형성한다고 추측했다. 이를 영구자화설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구 내부의 온도는 물질이 자성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 즉 '큐리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이 가설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그 이후에 과학자들은 지구의 외핵을 이루는 물질이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물질들의 대부분은 전기 전도도가 높은 철과 니켈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들은, 외핵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유동적인 액체 상태이므로 지구의 자전 운동에 의해 외핵 내부를 순환할 것이고, 이러한 전기 전도도가 높은 물질의 유동적인 순환은 전류 생성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가정과, 전류가 생성되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지구 내부에 지구 자기장을 형성하는 시스템이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다만 전기 전도도가 높은 물질의 순환만으로는 전류가 생성될 수 없으므로 전자기유도현상*을 근거로 지구 외부로부터의 자기장이 지구 자기장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그림>

이와 같은 지구 자기장 형성 원리를 증명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를 다이나모라고 한다. ㉠ 다이나모는 <그림>과 같이 **중심축**과 전기 전도도가 높은 물질로 구성된 **회전판**, 전류를 계속 순환시키기 위해 중심축과 회전판을 연결한 **코일**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중심축을 돌리면 회전판이 함께 움직이게 된다. 이후 <그림>의 h1과 같이 중심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1차적인 자기장**을 형성시켜 주면 전자기유도현상에 의해 회전판에서 전류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전류는 코일을 따라 흐르면서 코일 주변에 <그림>과 같이 **2차적인 자기장**(h2)을 형성하게 된다. 이후 중심축이 계속 돈다면 1차적인 자기장이 없다 하더라도 2차적인 자기장에 의해 전류가 사라지지 않게 되고, 또한 전류가 코일을 따라 계속 순환되기 때문에 2차적인 자기장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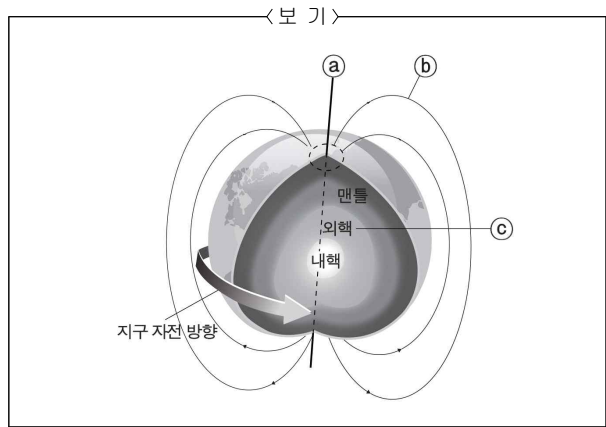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하여 지구 자기장의 형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이나모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지구 자기장은 전기 전도도가 높은 물질의 순환과 외부로부터 주어진 1차적인 자기장의 영향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자성: 자석이 갖는 작용이나 성질.
* 전자기유도현상: 자기장 속에서 도체를 움직이거나, 도체의 주변에서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전류가 생성되는 현상.

8. 뒷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지구 외핵을 이루는 주요 물질은 철과 니켈이다.
- ② 큐리온도보다 높아지면 물질의 자성이 유지될 수 없다.
- ③ 전자기유도현상은 지구 자기장의 존재에 의해 증명되었다.
- ④ 과거의 과학자들은 지구 내부에 자석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 ⑤ 지구 자기장은 지구로 들어오는 전기성을 띤 입자를 막아준다.

※ <보기>는 지구의 단면과 지구 내부로부터 형성된 자기장을 나타낸 것이다. 9번과 10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9. ㉠의 구성 요소를 <보기>의 ㉠~㉢와 대응시켜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
①	중심축	2차적인 자기장	회전판
②	회전판	1차적인 자기장	코일
③	중심축	1차적인 자기장	회전판
④	회전판	2차적인 자기장	코일
⑤	코일	2차적인 자기장	중심축

10. <보기>와 관련지어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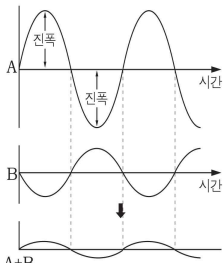
- ① ㉠을 중심으로 한 지구의 자전은 ㉡가 유지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않다.
- ② ㉠을 중심으로 한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순환하는 것이겠군.
- ③ ㉡가 형성되었다더라도 지구 외부로부터의 자기장에 계속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에서 발생한 전류는 유지될 수 없겠군.
- ④ ㉢를 구성하는 물질들의 전기 전도도가 높은 것은 ㉡를 형성하는 조건이 되었겠군.
- ⑤ ㉢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순환하고 있더라도 지구 외부로부터의 자기장이 없었다면 ㉢에는 전류가 발생할 수 없었겠군.

[11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4월 A형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리는 장애물의 가장자리를 지날 때 회절*되기 때문에 기존의 방음벽만으로는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 따라서 방음벽 상단의 끝 부분에서 회절되는 소음까지 흡수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방음벽 상단에 별도의 소음저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대표적인 소음저감장치로 흡음형과 간섭형이 있다. 흡음형은 방음벽 상단에 흡음재를 설치하여 소음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보통 흡음재에 사용되는 섬유질 재료에는 스펀지의 내부와 같이 섬유소 사이에 미세한 공간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소음과 섬유소의 접촉면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흡음재 내부로 유입된 소음은 미세한 공간을 지나가면서 주변의 섬유소와 접촉하게 되는데, 이때 소음이 지닌 진동에너지로 인해 섬유소가 진동하게 된다. 즉 소음의 진동에너지가 섬유소의 진동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소음이 흡음재로 흡수되는 것이다.

한편 간섭형은 소리가 지닌 파동의 간섭 현상을 이용하여 회절음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모든 소리는 각각 고유한 파동을 지니고 있는데 두 개의 소리가 중첩되는 것을 파동의 간섭 현상이라고 한다. 간섭 현상이 일어나 진폭이 커질 경우 소리의 세기도 커지고, 진폭이 작아질 경우 소리의 세기도 작아진다. <그림>에서 A를 어떤 소리의 파동이라고 할 때 B



<그림>

는 A보다 진폭은 작고 위상이 반대인 소리의 파동이다. 만약 어느 지점에서 파동의 위상이 반대인 두 소리가 중첩되면 <그림>의 A+B와 같이 진폭이 작아지면서 소리의 세기가 작아지는데 이를 상쇄 간섭이라고 한다. 반면 파동의 위상이 서로 같은 두 소리가 중첩되어 소리의 세기가 커지는 것을 보강 간섭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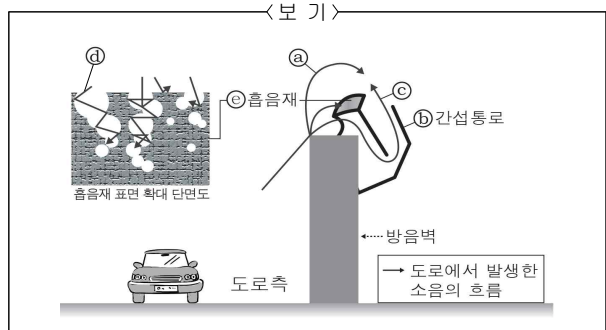
간섭형 소음저감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방음벽 상단에서 발생하는 회절음의 파동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이후 방음벽 상단에 간섭 통로를 설치하는데 이는 회절음의 일부분이 간섭 통로를 거친 후, 이를 거치지 않은 또 다른 회절음과 시간차를 두고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간섭 통로의 길이는, 미리 파악한 회절음의 파동과 간섭 통로를 거친 회절음의 파동이 간섭 통로가 끝나는 특정 지점에서 정반대되는 위상으로 중첩되게 조절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음저감장치는 회절음과 간섭 통로를 거친 소리의 상쇄 간섭 현상을 활용하여 소음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방음벽에 설치하는 소음저감장치 중에는 회절음의 감소 효과를 높이기 위해 흡음형과 간섭형을 혼합한 소음저감장치도 있다.

* 회절: 소리가 장애물의 가장자리를 지날 때 휘어져 나아가려는 성질. 이로 인해 발생한 소리를 회절음이라고 함.

11. 뒷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음저감의 원리
- 소리의 상쇄 간섭 현상을 중심으로
- ② 방음벽의 내부 구조
- 흡음재의 재료를 중심으로
- ③ 소음저감장치의 발전 과정
- 소리에 대한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 ④ 소리의 특성을 이용한 소음저감장치
- 방음벽의 종류를 중심으로
- ⑤ 방음벽의 효과를 높이는 소음저감장치
- 흡음형과 간섭형을 중심으로

12. <보기>는 흡음·간섭 혼합형 소음저감장치를 도식화한 것이다. 뒷글을 바탕으로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가 중첩될 때 ㉠과 ㉢의 파동의 위상이 반대이면 소음이 감소한다.
- ② ㉡는 소리의 간섭 현상을 활용하여, 중첩된 소음의 세기를 작아지게 하는 장치이다.
- ③ ㉡의 길이에 의해 ㉠과 ㉢는 시간차를 두고 특정 지점에서 중첩된다.
- ④ ㉡와 ㉢를 동시에 설치하면 방음벽 뒤쪽으로 전달되는 소음의 감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⑤ ㉡ 내부에서 ㉠과 섬유소의 접촉면이 줄어들수록 소음 저감 효과는 더 커진다.

13. 뒷글을 읽은 후 <보기>와 같은 실험 자료를 접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텅 빈 운동장에서 두 개의 스피커를 마주 보게 설치한 후 동일한 파동을 지닌 소리를 발생시켰다. 이때 스피커 소리 이외에는 소리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없다고 가정하자. 이후 두 스피커의 가운데 지점(㉠)에서 한쪽 스피커 방향으로 서서히 움직이면서 소리의 세기를 측정해 보니, ㉡ 지점에서 ㉢ 지점으로 갈수록 측정된 소리의 세기가 점점 작아지다가 ㉣ 지점을 지난 후부터 다시 커지기 시작했다.

- ① ㉣ 지점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두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다양한 지점에서 중첩되었군.
- ③ 다른 스피커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움직이면서 측정한다면 소리의 세기는 일정해지겠군.
- ④ 한 개의 스피커를 끈다면 <보기>와 같은 소리 세기의 변화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겠군.
- ⑤ ㉡ 지점에서 측정되는 소리보다 ㉣ 지점에서 측정되는 소리의 진폭이 더 작다고 할 수 있겠군.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4월 B형

주자학과 양명학은 사물의 궁극적인 이치인 ‘이(理)’를 탐구한다. 하지만 주자학의 ‘이’는 ‘만물의 본성이 곧 이치’라는 ‘성즉리(性卽理)’이며, 양명학의 ‘이’는 ‘내 마음이 곧 이치’라는 ‘심즉리(心卽理)’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주자학의 ‘이’는 인간 주체와 분리되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하늘의 이치’이다. 만물이 존재하는 근원적인 원리로서의 ‘이’는 하나이지만 각각의 사물에는 저마다의 ‘이’가 개별적으로 담겨 있다. 즉 만물에 있는 개별적인 ‘이’는 모두 다르지만, 근원적인 ‘이’는 하나인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하늘의 이치’인 ‘이’를 깨닫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물에 들어 있는 ‘이’를 탐구한 다음, 지극한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므로 주자학적 전통은 개별적인 ‘이’ 보다 하늘의 이치인 ‘이’에 대한 예의법도를 중시한다.

지방마다 절도사를 두어 행정과 군 통치권을 맡겼던 당나라는 왕실의 힘이 약화되면서 절도사들의 반란이 잦아졌고 그 결과 멸망했다. 이에 송나라에서는 군주에게 의리(義理)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송나라 지식인들은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를 ‘현실에서의 의리’로 보았고, 주자학적 전통을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통치 원리로 삼았다.

양명학을 창시한 ‘왕수인’은 ‘이’가 주체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본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마음의 본체는 ‘양지(良知)’이며, 양지는 곧 하늘의 이치라고 하였다. 그의 철학은 인간 주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에 사람은 하늘의 이치인 양지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양지는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 있는 타고난 도덕적 자각 능력이다. 그래서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에서 벗어나서 양지를 회복하는 과정을 강조했다. 자신의 양지를 보존하려는 마음, 자신에게 충실하고 진실하여 그 스스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과 이치가 합일된 경지이자 인간 자신이 타고난 도덕적 자각이 완성된 상태인 ‘치양지(致良知)’에 이르게 된다.

명나라 중기 이후 지배 세력이 농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자 농민 봉기가 확산되었다. 당시 농민의 구호는 ‘훈돈의 하늘을 열자’였다. 이는 주자학에서 말하는 정해진 하늘의 이치에 대한 부정이었으며, 주자학 대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라는 시대적 요구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수인은 하늘이 정한 이치가 인간 주체와 분리되는 철학으로는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양명학은 개인과 자아라는 근대적 의식이 싹트고 전통 도덕으로 개인 의지를 억압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대두되면서 나타난 것이다.

결국 주자학과 양명학은 새로운 질서의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 궁극적인 앎인 ‘이’에 관한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이다.

14. 뒷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 ① 주자학에서 설정하는 ‘이’와 ‘기’의 관계
- ② 명나라 중기 이후 농민 봉기가 확산된 이유
- ③ 주자학에서 제시하는 만물의 궁극적인 이치
- ④ 양명학에서 주장하는 ‘양지’가 회복된 상태
- ⑤ 송나라에서 ‘현실에서의 의리’를 강조하게 된 배경

15. <보기>에 대해 ‘왕수인’의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인간의 마음은 본래 백지(白紙)와 같은 것으로 어떠한 생득적 관념도 갖고 있지 않다. 인간은 사물에 대한 감각적 지각과 경험을 통해 지식과 사물의 이치를 획득한다.

- ① 치양지를 위해서는 경험이 아니라 각각의 사물에 들어 있는 이치를 탐구한 다음 만물의 근원적인 원리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아닌가?
- ②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감각적 지각을 우선시하는 것보다 먼저 주체와 분리된 ‘이’를 자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③ 경험을 통한 지식의 획득보다 감각적 지각을 통해 사물의 이치를 획득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④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경험을 우선시하기보다 만물의 본성이 곧 이치라는 깨달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 ⑤ 인간의 마음은 본래부터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양지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16.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이유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양명학은 왕수인 이후에 개인의 수양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주자학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지배 이념인 관학(官學)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고 이어졌다.

- ① 양명학은 타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리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 ② 주자학이 군주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여 사회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 ③ 양명학은 양지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사물의 본성을 탐구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 ④ 주자학은 예의법도를 중시하여 도덕적 자각 능력의 수양 측면에서 양명학보다 우월했기 때문에
- ⑤ 근대적 의식에 부합하는 주자학의 이념이 양명학에 비해 궁극적인 이치를 탐구하는데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4월 B형

수면은 피로가 누적된 심신을 회복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잠을 자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수면은 심신의 회복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세익스피어는 수면을 ‘자연의 부드러운 간호사’라고 했다. 수면은 ‘비-REM수면’과 급속한 안구 운동을 동반하는 ‘REM(Rapid Eye Movement)수면’이 교대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비-REM수면 이후 REM수면이 진행된다. 비-REM수면은 4단계로 진행되면서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는 수면이다. 이러한 수면의 양상은 수면 단계에 따라 달리 측정되는 뇌파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막 잠이 들기 시작하는 1단계 수면 상태에서 뇌는 ‘세타파’를 내보낸다. 세타파란 열린 잠을 자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뇌파로, 이때는 언제든 깰 수 있을 정도의 수면 상태이다. 이 단계는 각성 상태에서 수면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태로 뇌파가 각성 상태보다 서서히 느려진다.

2단계 수면에서는 세타파 사이사이에 ‘수면 방추’와 ‘K-복합체’라는 독특한 뇌파의 모습이 보인다. 수면방추는 세타파 중간마다 마치 실이 감겨 있는 것처럼 촘촘한 파동의 모습인데, 분당 2~5번 정도 나타나며 수면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K-복합체는 2단계 수면에서 나타나는데, 세타파 사이사이에 아래위로 갑자기 빠르게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인다. 실험에 의하면 K-복합체는 수면 중 갑작스러운 소음이 날 때 활성화된다. 이를 통해 이것은 잠자는 사람이 깨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여 깊은 수면을 유도함을 알 수 있다.

깊은 수면의 단계로 진행되면 뇌파 가운데 가장 느리고 진폭이 큰 ‘델타파’가 나타난다. 3단계와 4단계는 ‘델타파’의 비중을 따라 구별된다. 보통 델타파의 비중이 20~50%일 때는 3단계로, 50%를 넘어서 더 깊은 수면에 빠지는 상태가 되면 4단계로 본다. 때문에 4단계 수면은 ‘서파수면(slow-wave-sleep)’으로도 알려져 있다.

서파수면은 대뇌의 대사율과 혈류량이 각성 수준의 75%까지 감소되는 깊은 잠의 상태이고, ㉠ REM수면은 잠에 빠져 있음에도 정신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태이다. 때문에 서파수면 상태에 있는 사람을 깨우면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거리며 혼란스러워 하고, REM수면 상태의 사람을 깨우면 금세 각성 상태로 돌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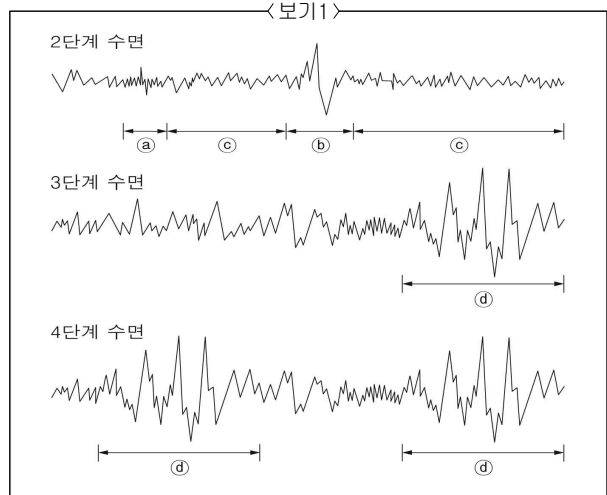
자극에 반응을 하지 않을 정도의 비-REM수면은 온전한 휴식을 통해 진정한 심신의 회복을 가져다 준다. 자면서도 정신 활동이 이루어지는 REM수면은 인간의 뇌의 활동이나 학습에도 도움을 준다. 비-REM수면이든 REM수면이든 문제가 생기면 인간의 활동은 영향을 받게 된다.

* 각성 상태: 눈을 뜨고 깨어 있는 상태

17.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체적 수치를 통해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 ② 대상의 개념을 정의하고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③ 현상이 진행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고 있다.
- ④ 비유적 진술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질문과 대답하는 형식을 통해 의문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18. <보기1>은 수면의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뇌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보기2>의 사례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2>

- . 선우는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수면을 취했다.
- . 재형이는 열린 잠에서 깊은 잠으로 가지 못하고, 자다 깨다를 반복했다.
- . 수민이는 밖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깨어 깊이 잠들지 못했다.

- ① 선우는 수면 상태에서 수민이보다 ㉠가 빈번히 나타났겠군.
- ② 선우는 수면 상태에서 수민이보다 ㉠와 ㉢가 여러 번 나타나겠군.
- ③ 재형이는 수면 상태에서 선우에 비해 ㉠가 자주 나타나지 않았겠군.
- ④ 재형이는 수면 상태에서 ㉢가 나타나는 단계와 ㉠가 나타나는 단계가 규칙적으로 교체되었겠군.
- ⑤ 수민이는 수면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소음이 날 때 ㉢가 활성화되지 못했겠군.

19. 뒷글을 읽고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각성에서 수면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태이다.
- ② 대뇌의 대사율과 혈류량이 최소화되는 단계이다.
- ③ 각성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억제해 주는 역할을 한다.
- ④ 정신적 피로보다는 신체적 피로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
- ⑤ 수면의 상태이나 정신 활동이 일어나고 뇌 기능에 도움을 준다.

[20~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4월 8형

제2차 대전 이후 전쟁으로 인한 불안, 인간 소외 등 예술적 정서나 의미를 과도하게 표현하려는 예술적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비해 미니멀리즘(minimalism)은 간결하고 절제된 표현 기법으로 대상의 본질을 표현하려는 예술적 경향을 지닌다.

이 사조는 예술 표현이 단순할수록 오히려 현실 세계를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단순성의 원리’와 인간의 지각은 총체적으로 이해된다는 ‘확장성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예술 양상은 음악에서는 변함없는 강세 및 빠르기로, 건축에서는 단순한 색채 및 재료의 사용과 기하학적 구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단순성과 확장성의 원리는 특히 조형물에서 잘 나타난다. 미니멀리즘에 의한 조형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개의 최소화를 통한 ‘단순성의 원리’를 지향한다. 매개의 최소화는 작품의 재료, 소재, 형태 등 작품 표현에 사용되는 매개 요소를 변형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원재료에 가깝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원재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구상, 일상의 사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오브제 트루베에 의한 구상,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에 의한 구상 등으로 표현된다. 작품에서 매개 요소가 최소화되면 감상자가 떠올릴 수 있는 대상은 오히려 더 많아지고, 감상자의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는 이미지를 보편적인 형상으로 떠올리기가 더 쉬워진다. 작품에 사용되는 매개가 적고 단순할수록 감상자는 그것을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고, 감상자의 인식 속의 보편적 형상과 일치시키기가 더 쉽다는 것이다.

둘째, 미니멀리즘에 의한 조형은 기하 추상에 의한 ‘확장성의 원리’를 추구한다. 미니멀리즘 조형물이 놓인 공간은 작품의 배경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작품이 놓인 공간은 감상자로 하여금 작품을 그 작품이 놓인 공간의 관련성 속에서 감상하게 한다. 예를 들어 기하 추상에 의한 미니멀리즘 조형물을 감상할 때, 감상자는 그것을 인지함과 동시에 작품 주위의 배경으로까지 시선이 이동되어 감상이 확대된다. 미니멀리즘 조형물은 기존의 조형물이 설치된 방식과 달리 주로 바닥에 배치된다. 이로써 작품 자체가 놓인 공간과 감상자가 서 있는 장소는 관람만을 위한 전망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감상을 위한 총체적 공간이 되는 것이다. 즉 ‘확장성의 원리’는 조형물이 놓인 배경에까지 공간 체험을 확대하여 예술적 환경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0.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미니멀리즘 음악은 일정한 강세 및 빠르기를 사용한다.
- ② 미니멀리즘 조형은 매개 요소를 원재료에 가깝게 사용한다.
- ③ 오브제 트루베는 미니멀리즘 조형의 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 ④ 매개 요소가 다양할수록 미니멀리즘에 의한 감상의 폭은 넓어진다.
- ⑤ 미니멀리즘은 절제된 표현에 의해 본질을 표현하려는 예술적 경향이다.

21. 윗글과 관련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무제-L빔들>은 로버트 모리스의 미니멀리즘 경향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회색 빛깔의 두꺼운 나무로 된 산업재료 L빔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배치하여 작품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① L빔들을 바닥에 배치한 것은 일정한 위치에서 작품을 감상하도록 공간을 한정시킨 것이군.
- ② L빔들과 공간을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감상자는 예술적 환경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겠군.
- ③ 감상자는 배치되어 있는 L빔들을 감상할 때, 그것을 인지함과 동시에 주위의 배경으로 시선이 확대되겠군.
- ④ 실제 산업재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매개를 최소화함으로써 감상자로 하여금 더 많은 대상을 떠올리게 하는군.
- ⑤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를 매개요소로 사용하여 감상자의 마음속에 잠재된 이미지를 더 보편적인 형상으로 떠올리게 하는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6월 A형

태양빛은 흰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파장의 가시광선이 혼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흰색의 가시광선은 파장에 따라 붉은빛부터 보라빛까지의 무지갯빛으로 분해된다. 가시광선의 파장의 범위는 390~780 nm* 정도인데 보라빛이 가장 짧고 붉은빛이 가장 길다. 빛의 진동수는 파장과 반비례하므로 진동수는 보라빛이 가장 크고 붉은빛이 가장 작다. 태양빛이 대기층에 입사하여 산소나 질소 분자와 같은 공기 입자(직경 0.1~1 nm 정도), 먼지 미립자, 에어로졸*(직경 1~100,000 nm 정도) 등과 부딪치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산란이라 한다. 산란은 입자의 직경과 빛의 파장에 따라 '레이리(Rayleigh) 산란'과 '미(Mie) 산란'으로 구분된다.

레이리 산란은 입자의 직경이 파장의 1/10보다 작을 경우에 일어나는 산란을 말하는데 그 세기는 파장의 네제곱에 반비례한다. 대기의 공기 입자는 직경이 매우 작아 가시광선 중 파장이 짧은 빛을 주로 산란시키며, 파장이 짧을수록 산란의 세기가 강하다. 따라서 맑은 날에는 주로 공기 입자에 의한 레일리 산란이 일어나서 보라빛이나 파란빛이 강하게 산란되는 반면 붉은빛이나 노란빛은 약하게 산란된다. 산란되는 세기로는 보라빛이 가장 강하겠지만 우리 눈은 보라빛보다 파란빛을 더 잘 감지하기 때문에 하늘은 파랗게 보이는 것이다. 만약 태양 빛이 공기 입자보다 큰 입자에 의해 레일리 산란이 일어나면 공기 입자만으로는 산란이 잘 되지 않던 긴 파장의 빛까지 산란되어 하늘의 파란빛은 상대적으로 옅어진다.

미 산란은 입자의 직경이 파장의 1/10보다 큰 경우에 일어나는 산란을 말하는데 주로 에어로졸이나 구름 입자 등에 의해 일어난다. 이때 산란의 세기는 파장이나 입자 크기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 구름이 흰색으로 보이는 것은 미 산란으로 설명된다. 구름 입자(직경 20,000 nm 정도)처럼 입자의 직경이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매우 큰 경우에는 모든 파장의 빛이 고루 산란된다. 이 산란된 빛이 동시에 우리 눈에 들어오면 모든 무지갯빛이 혼합되어 구름이 하얗게 보인다. 이처럼 대기가 없는 달과 달리 지구는 산란 효과에 의해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을 볼 수 있는 것이다.

* 나노미터 : 물리학적 계량 단위. 1 nm = 10⁻⁹ m.
* 에어로졸 : 대기에 분산되어 있는 고체 또는 액체 입자.

1. 윗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산란의 원리와 유형
- ② 무지갯빛의 형성 원리
- ③ 빛의 파장과 진동수의 관계
- ④ 미 산란의 원리와 구름의 색
- ⑤ 가시광선의 종류와 산란의 세기

2.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시광선의 파란빛은 보라빛보다 진동수가 작다.
- ② 프리즘으로 분해한 태양빛을 다시 모으면 흰색이 된다.
- ③ 파란빛은 가시광선 중에서 레일리 산란의 세기가 가장 크다.
- ④ 빛의 진동수가 2배가 되면 레일리 산란의 세기는 16배가 된다.
- ⑤ 달의 하늘에서는 공기 입자에 의한 태양빛의 산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 (나)의 산란 현상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가) A 도시에서 많은 비가 내린 후 하늘이 더 파랗게 보였다. 비가 오기 전 대기에서는 직경 10~20 nm의 먼지 미립자들이 균질하게 분포하였는데, 비가 온 후에는 그것이 관측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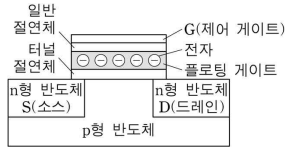
(나) B 도시 지표 근처의 낮은 하늘은 뿌연 안개처럼 흰색으로 보이고 흰 구름이 낮게 떠 있었다. 그곳에 있는 초고층 건물에 올라 높은 하늘을 보니 하늘이 파랗게 보였다. 지표 근처의 대기에서는 직경이 10,000 nm 정도의 에어로졸이 균질하게 분포하는 것이 관측되었다.

- ① A 도시에서 하늘이 더 파랗게 보인 것은 미 산란이 더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겠군.
- ② A 도시에서 비가 오기 전에는 미 산란이, 비가 온 후에는 레일리 산란이 일어났겠군.
- ③ B 도시에서 낮은 하늘이 뿌연 안개처럼 흰색으로 보인 것은 미 산란 때문이겠군.
- ④ B 도시의 높은 하늘이 파랗게 보이고 구름이 희게 보인 것은 레일리 산란 때문이겠군.
- ⑤ A 도시의 비가 온 후의 하늘과 B 도시의 낮은 하늘에서는 모두 미 산란이 일어났겠군.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6월 A형

플래시 메모리는 수많은 스위치들로 이루어지는데, 각 스위치에 0 또는 1을 저장한다. 디지털 카메라에서 사진 한 장은 수백만 개 이상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방식으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다. 메모리에서는 1비트의 정보를 기억하는 이 스위치를 셀이라고 한다. 플래시 메모리에서 셀은 그림과 같은 구조의 트랜지스터 1개로 이루어져 있다.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들어있는 상태를 1, 들어 있지 않은 상태를 0이라고 정의한다.

플래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는 그림의 반도체 D에 3V의 양(+)의 전압을 가한다. 그러면 다른 한 쪽의 반도체인 S로부터 전자들이 D 쪽으로



이끌리게 된다.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들어 있을 때는 S로부터 오는 전자와 플로팅 게이트에 있는 전자가 마치 자석의 같은 극처럼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전자가 흐르기 힘들다. 한편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S와 D 사이에 전자가 흐르기 쉽다. 이렇게 전자의 흐름 여부, 즉 S와 D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가로 셀의 값이 1인지 0인지를 판단한다.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쳐 데이터가 저장된다. 일단 데이터를 지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데이터 지우기는 여러 개의 셀이 연결된 블록 단위로 이루어진다. 블록에 포함된 모든 셀마다 G에 0V, p형 반도체에 약 20V의 양의 전압을 가하면,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있는 경우, 그 전자가 터널 절연체를 넘어 p형 반도체로 이동한다. 반면 전자가 없는 경우는 플로팅 게이트에 변화가 없다. 따라서 해당 블록의 모든 셀은 0의 상태가 된다. 터널 절연체는 전류 흐름을 항상 차단하는 일반 절연체와는 다르게 일정 이상의 전압이 가해졌을 때는 전자를 통과시킨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야 데이터 쓰기가 가능하다.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1을 쓰려는 셀의 G에 약 20V, p형 반도체에는 0V의 전압을 가한다. 그러면 p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들이 터널 절연체를 넘어 플로팅 게이트로 들어가 저장된다. 이것이 1의 상태이다.

플래시 메모리는 EPROM과 EEPROM의 장점을 취하여 만든 메모리이다. EPROM은 한 개의 트랜지스터로 셀을 구성하여 셀 면적이 작은 반면, 데이터를 지울 때 칩을 떼어 내어 자외선으로 소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EEPROM은 전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데이터를 지울 수 있지만, 셀 하나당 두 개의 트랜지스터가 필요하다. 플래시 메모리는 한 개의 트랜지스터로 셀을 구성하며, 전기적으로 데이터를 쓰고 지울 수 있다. 한편 메모리는 전원 차단 시에 데이터의 보존 유무에 따라 휘발성과 비휘발성 메모리로 구분되는데, 플래시 메모리는 플로팅 게이트가 절연체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전원을 꺼도 1이나 0의 상태가 유지되므로 비휘발성 메모리이다. 이런 장점 때문에 휴대용 디지털 장치는 주로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한다.

4.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구조를 바탕으로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② 대상의 장점을 설명한 뒤 사용 방법을 알려 주고 있다.
- ③ 대상의 크기를 기준으로 자세한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대상의 구성 요소를 설명한 뒤 제작 원리를 알려 주고 있다.
- ⑤ 대상의 단점을 나열하고 새로운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5. 뒷글의 '플래시 메모리'에 대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D에 3V의 양의 전압을 가하면 플로팅 게이트의 전자가 사라진다.
- ② 터널 절연체 대신에 일반 절연체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반복해서 지우고 쓸 수 없다.
- ③ 데이터 지우기 과정에서 자외선에 노출해야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다.
- ④ EEPROM과 비교되는 EPROM의 단점을 개선하여 셀 면적을 더 작게 만들었다.
- ⑤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계속 공급해 주어야 한다.

6. 뒷글과 <보기>에 따라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 1 0 > 을 < 0 1 >로 수정하려고 할 때, 단계별로 전압이 가해질 위치가 옳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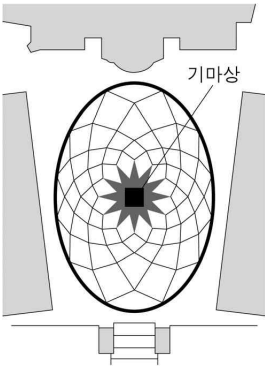
< 보기 >

* 두 개의 셀이 하나의 블록을 이룬다.
* 그림은 데이터 < 1 0 >을 저장하고 있는 현재 상태이고, ①~⑤은 20V의 양의 전압이 가해지는 위치이다.

	1단계	2단계
①	Ⓜ	Ⓝ
②	Ⓝ	Ⓛ
③	Ⓜ과 Ⓛ	Ⓝ
④	Ⓛ과 Ⓝ	Ⓝ
⑤	Ⓝ과 Ⓝ	Ⓛ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6월 A형 B형

미켈란젤로는 타원형의 ㉠ 캄피돌리오 광장을 설계하여 로마의 중심부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다. 광장 중앙에는 옛 로마 황제의 기마상이 놓여 있고 기마상 밑의 바닥에는 12개의 꼭짓점을 지닌 별 모양의 장식이 있다. 광장의 바닥은 기마상에서 뻗어 나온 선들이 교차하여 ㉡ 만들어진 문양으로 잘게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광장의 구성은 기하학적 도형들이 대칭적으로 조합되어 정제된 조형미를 표현하고 있다.



광장의 타원형은 고대 그리스 신전에 놓여 있었던 신성한 돌인 옴팔로스의 형태를 본뜬 것이라 한다. 옴팔로스는 형태가 달걀형이고 그 표면은 여러 선들이 교차하여 만들어진 독특한 다각형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옴팔로스는 ‘배꼽’을 ㉢ 가리키는 말로 인체의 중심, 나아가 ‘세계의 중심’을 뜻한다. 광장의 전체적인 형태가 옴팔로스과 같은 타원형이고 광장 바닥의 다각형이 옴팔로스 표면의 다각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캄피돌리오 광장은 그 자체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캄피돌리오 광장은 원이 갖는 고유의 특성이 구현된 공간이기도 하다. 원은 중심과 둘레로 이루어져 있어 중심을 향하는 집중성과 둘레를 향하는 확산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런데 이 광장은 확산성이 아닌 집중성을 강조한 공간이다. 광장의 실제 경계는 타원이지만, 사람들이 광장의 어느 곳에서 서 있든 시선은 가운데에 있는 기마상으로 집중하게 되므로 기마상을 광장의 중심으로 인식하게 된다. 광장의 가운데에 배치된 기마상은 타원이 지닌 두 개의 초점을 ㉣ 사라지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어 광장을 하나의 중심을 가진 원형 공간처럼 변모시킨 것이다. 타원형의 광장이 집중성을 가진 공간으로 전환되면서 광장에는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가 생기게 된다. 위계의 정점은 기마상이다. 주변을 압도하는 세계 지배자의 기마상을 올려다보는 순간 그 위계감은 한층 더 고조된다.

이렇게 광장을 원형으로 새롭게 인식하면서, 광장의 기마상 아래 놓여 있는 별 장식에 주목하게 되면 광장의 확장된 의미를 읽어 낼 수 있다. 고대인들은 우주로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이 회전하며 12개의 구역으로 ㉤ 나누어진 원형의 공간으로 인식했다. 이런 인식은 캄피돌리오 광장에 계승되어 북극성은 기마상이 서 있는 별 장식으로, 하늘의 12개 구역은 별 장식의 꼭짓점 개수로 표현된 것이다. 이로써 로마 황제의 기마상은 우주의 중심에 ㉥ 서게 된다.

7.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타원과 원의 조합은 광장 주변의 위상을 높인다.
- ② 미켈란젤로는 신성한 돌인 옴팔로스를 광장에 배치했다.
- ③ 두 개의 초점을 가진 타원은 옴팔로스의 확산성을 드러낸다.
- ④ 기마상은 잘게 나뉜 기하학적 문양의 비대칭성을 강조해 준다.
- ⑤ 광장 중심에 놓인 별 장식은 그곳이 우주의 중심임을 의미한다.

8. 캄피돌리오 광장에 구현된 상징적 의미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옴팔로스가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
- ② 타원형의 두 초점이 갖는 상징적 의미
- ③ 원의 중심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 ④ 고대인이 생각한 북극성의 상징적 의미
- ⑤ 광장의 기마상이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

9. 뒷글의 ㉠과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뉴욕의 ㉡ 구겐하임 미술관의 외부는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원통형 모양을 하고 있으며, 건물의 내부는 가운데가 텅 비어 있고 둘레에 나선형 경사로가 있다. 관람객은 입구에서 엘리베이터로 최상층까지 올라간 뒤 경사로를 따라 내려오면서 작품을 감상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원통형 공간의 벽면에 전시된 작품으로 향하게 된다. 이것은 둘레를 향하는 원의 확산적 속성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사로에서 바라보이는 원의 중심에 해당하는 원통형 공간은 비어 있으므로 중심을 향하는 위계감은 없다.

- ① ㉠은 ㉡와 달리, 보는 사람의 시선 방향이 중심을 향한다.
- ② ㉠은 ㉡와 달리, 원의 중심에서 형성되는 위계감이 강조된다.
- ③ ㉡는 ㉠과 달리, 원의 주변이 중앙 공간의 집중성을 강화한다.
- ④ ㉡는 ㉠과 달리, 원의 중심보다 둘레를 강조한 공간 구성을 보인다.
- ⑤ ㉠과 ㉡는 모두 원의 속성을 바탕으로 한 형상을 채택하였다.

10. 문맥상 ㉠~㉥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제조(製造)된 ② ㉡ : 지적(指摘)하는
- ③ ㉢ : 소진(消盡)되게 ④ ㉣ : 분할(分割)된
- ⑤ ㉤ : 기립(起立)하게

[11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6월 A형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과 소련 및 그 동맹국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전개된 제한적 대결 상태를 냉전이라고 한다. 냉전의 기원에 관한 논의는 냉전이 시작된 직후부터 최근까지 계속 진행되었다. 이는 단순히 냉전의 발발 시기와 이유에 대한 논의만이 아니라, 그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이기도 하다. 그 연구의 결과를 편의상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나타난 ㉠ 전통주의는 냉전을 유발한 근본적 책임이 소련의 팽창주의에 있다고 보았다. 소련은 세계를 공산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고,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특히 동유럽 지역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팽창 정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미국이 자유 민주주의 세계를 지켜야 한다는 도덕적 책임감에 기초하여 그에 대한 봉쇄 정책을 추구하는 와중에 냉전이 발생했다고 본다. 그리고 미국의 봉쇄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결과 냉전이 종식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여기에 비판을 가한 ㉡ 수정주의는 기본적으로 냉전의 책임이 미국 쪽에 있고, 미국의 정책은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했다고 주장했다. 즉, 미국은 전후 세계를 자신들이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전쟁 중에 급증한 생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장을 얻기 위해 세계를 개방 경제 체제로 만들고자 했다. 그러므로 미국 정책 수립의 기저에 깔린 것은 이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소련은 미국에 비해 국력이 미약했으므로 적극적 팽창 정책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수정주의의 기본적 입장이었다. 오히려 미국이 유럽에서 공격적인 정책을 수행했고, 소련은 이에 대응했다는 것이다.

냉전의 기원에 관한 또 다른 주장인 ㉢ 탈수정주의는 위의 두 가지 주장에 대한 절충적 시도로서 냉전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에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즉, 냉전은 양국이 추진한 정책의 '상호 작용'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경제를 중심으로만 냉전을 보아서는 안 되며 안보 문제 등도 같이 고려하여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 소련의 목적은 주로 안보 면에서 제한적으로 추구되었는데, 미국은 소련의 행동에 과잉 반응했고, 이것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냉전 책임론은 크게 후퇴하고 구체적인 정책 형성에 대한 연구가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절충적 시각의 연구 성과는 일견 무난해 보이지만, 잠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역사적 현상은 복합적인 요인들로 구성되지만, 중심적 경향성은 존재하고 이를 파악하여 설명하는 것이 역사 연구의 본령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11. 뒷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통주의에 따르면 소련의 팽창 정책은 공산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수행된 것이었다.
- ② 수정주의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적 동기가 냉전을 만들어 낸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 ③ 수정주의에 따르면 미국의 봉쇄 정책은 소련의 공격적 팽창 정책에 대한 대응이었다.
- ④ 탈수정주의 출현 이후 냉전의 책임 소재에 대한 연구보다 구체적인 정책 연구가 강조되었다.
- ⑤ 탈수정주의는 절충적 성향을 가져 역사적 현상의 중심적 경향성을 포착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12. <보기>의 (가)~(다)와 부합하는 것을 ㉠~㉢ 중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가) 이 시기 미국과 소련은 각기 자국의 방어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양국은 상대방의 조치를 위협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 대응 조치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자국의 안보가 더 위태롭게 되는 이른바 안보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미국의 대응이 미약하거나 부재한 곳에서는 소련이 분쟁을 일으켰다. 따라서 미국이 좀 더 일찍 그리고 적극적으로 봉쇄 정책을 추구했다면, 동유럽이 소련의 영향 아래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미국은 세계 철강 총생산량의 54%, 소련은 12%를 차지했으며, 에너지 소비량의 경우는 미국이 49%, 소련이 12%였다. 이런 예들은 국력 면에서 미국이 소련보다 압도적 힘의 우위를 지녔다는 것을 알려 준다.

- | | (가) | (나) | (다) |
|---|-----|-----|-----|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⑤ | ㉢ | ㉡ | ㉠ |

[13~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6월 A형

일반적으로 법률에서는 일정한 법률 효과와 함께 그것을 일으키는 요건을 규율한다. 이를테면, 민법 제750조에서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규정하는데, 그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고의나 과실’로 말미암은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하고,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바로 그 위법 행위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이른바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법률 효과로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기는 것이다.

소송에서는 이런 요건들을 입증해야 한다. 소송에서 입증은 주장하는 사실을 법관이 의심 없이 확신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어떤 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해 법관이 확신을 갖지 못하면, 다시 말해 입증되지 않으면 원고와 피고 가운데 누군가는 패소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는 입증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고, 이를 입증 책임이라 부른다.

대체로 어떤 사실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쉽다. 이 둘 가운데 어느 한 쪽에 부담을 지워야 한다면, 쉬운 쪽에 지우는 것이 공평할 것이다. 이런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실의 발생을 주장하는 이에게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상대방에게 불법 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소송에서 원고가 되어, 앞의 민법 조문에서 규정하는 요건들이 이루어졌다고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 요건 가운데 인과 관계는 그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공해 사건 등에서 문제가 된다. 공해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도 해명되지 않는 일이 많다.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공해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를 하나하나의 연결 고리까지 자연 과학적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한다면, 사실상 사법적 구제를 거부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더구나 관련 기업은 월등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훨씬 더 쉽게 원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피해자인 상대방에게만 엄격한 부담을 지우는 데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공해 소송에서도 인과 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여전히 피해자인 원고에 있다. 판례도 이 원칙을 바꾸지는 않는다. 다만 입증되었다고 보는 정도를 낮추어 인과 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 주려 한다. 곧 공해 소송에서는 예외적으로 인과 관계의 입증에 관하여 의심 없는 확신의 단계까지 요구하지 않고, 다소 낮은 정도의 규명으로도 입증되었다고 인정하는 판례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과 관계가 인정되면 가해자인 피고는 인과 관계의 성립을 방해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책임을 면해야 한다.

13.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송에서 양 당사자에게 부담을 공평하게 하려는 고려가 입증 책임을 분배하는 원리에 작용한다.
- ② 원칙적으로 어떤 사실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개연성이 인정되면 입증이 성공하였다고 본다.
- ③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요건들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소송에서 피고에게 있다.
- ④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고의와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
- ⑤ 문제되는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밝혀지지 않으면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이 없는 쪽이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14.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다음은 어느 공해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관한 내용이다.

공장의 폐수 방류 때문에 양식 중이던 김이 폐사하였다고 주장하는 어민들은, 해당 회사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폐수의 방류 때문에 김이 폐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가 모두 자연 과학적으로 뚜렷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1) 방류된 폐수가 해류를 타고 양식장에 도달하였다. 2) 그 폐수 안에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염 물질이 들어 있었다. 3) 오염 물질의 농도가 안전 범위를 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폐수가 해류를 따라 양식장에 이르렀다는 것만 증명하면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하였다.

- ① 피해자인 어민들이 원고로서 겪게 되는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려 한 것이다.
- ②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연 과학적 연결 고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 ③ 공장 폐수가 김 양식장으로 흘러들었다는 사실을 어민들 쪽에서 입증하라고 한 것이다.
- ④ 위법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데 대한 입증 책임이 회사 쪽에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 ⑤ 공장 폐수 속에 김의 폐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회사 쪽에서 입증하라고 한 것이다

[15~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6월 B형

흔히 어떤 대상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고 그것을 다른 대상과 구분해 주는 속성을 ㉔ **본질**이라고 한다. X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X에 대한 필요 충분한 속성을 찾으면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X에 대해 그리고 오직 X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을 찾으면 된다. ㉕ **예컨대** 모든 까투리가 그리고 오직 까투리만이 **꿩**이면서 동시에 **암컷**이므로, '암컷인 꿩'은 까투리의 본질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암컷인 꿩은 애초부터 까투리의 정의라고 우리가 규정한 것이므로 그것을 본질이라고 말하기에는 허망하다. 다시 말해서 본질은 따로 존재하여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까투리라는 낱말을 만들면서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서로 다른 개체를 동일한 종류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사소통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본질주의는 ㉖ **그것이**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 내에 본질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㉗ **반면에** 반(反)본질주의는 그런 본질이란 없으며,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이 본질주의에서 말하는 본질의 역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㉘ **이런** 반 본질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본질'이 존재론적 개념이라면 거기에 언어적으로 상관하는 것은 '정의'이다. 그런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약정적이지 않으면서 완벽하고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사실은 반본질주의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준다. 사람을 예로 들어 보자. 이성적 동물은 사람에 대한 정의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면 이성적이지 않은 갓난아이를 사람의 본질에 반례로 제시할 수 있다. 이번에는 ㉙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정의를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를 이루고 산다고 해서 모두 사람인 것은 아니다. ㉚ **개미나 벌도** 사회를 이루고 살지만 사람은 아니다.

서양의 철학사는 본질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질주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유나 지식 등의 본질을 찾는 시도를 계속해 왔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직까지 본질적인 것을 명확히 찾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숨겨진 본질을 밝히려는 철학적 탐구는 실제로는 부질없는 일이라고 반본질주의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우리가 본질을 명확히 찾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의 무지 때문이 아니라 그런 본질이 있다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물의 본질이라는 것은 단지 인간의 가치가 투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반본질주의의 주장이다.

15. '반본질주의'의 견해로 볼 수 있는 것은?

- ㉑ 어떤 대상이라도 그 개념을 언어로 약정할 수 없다.
- ㉒ 개체의 본질은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개체에 내재하고 있다.
- ㉓ 어떤 대상이든지 다른 대상과 구분되는 불변의 고유성이 있다.
- ㉔ 어떤 대상에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그 대상은 다른 대상과 구분된다.
- ㉕ 같은 종류에 속하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속성은 객관적으로 실재한다.

16. 문맥상 ㉑과 ㉒의 관계와 같은 것은?

	㉑	㉒
㉑	가위는 자를 수 있는 도구이다	칼
㉒	노인은 65세 이상인 사람이다	64세인 사람
㉓	이모는 어머니의 여자 형제이다	어머니의 여동생
㉔	고래는 헤엄칠 수 있는 포유동물이다	헤엄칠 수 없는 고래
㉕	연필은 흑연을 나무로 둘러싼 필기도구이다	흑연 심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 금은 오랫동안 색깔이나 밀도처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특성으로 정의되어 왔지만 이제는 현대 화학에 입각해 정의되고 있다.

(나) 누군가가 사자와 바위와 컴퓨터를 묶어 '사바컴'으로 정의했지만 그 정의는 널리 쓰이지 않았다.

- ㉑ 본질주의자는 (가)를 숨겨져 있는 정확하고 엄격한 본질을 찾아 가는 과정으로 해석하겠네.
- ㉒ 본질주의자는 (나)를 근거로 들어 본질은 사후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네.
- ㉓ 반본질주의자는 (가)에서처럼 널리 믿어지던 정의가 바뀌는 것을 보고 약정적이지 않은 정의는 없다고 주장하겠네.
- ㉔ 반본질주의자는 (나)에 대해 그 세 가지가 지니는 근원적 속성이 발견되지 않아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하겠네.
- ㉕ 본질주의자와 반본질주의자는 모두 (가)를 들어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개체들을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네.

18. 글의 특성과 문맥을 고려할 때, ㉑~㉕를 활용한 독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㉑ 개념의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므로 핵심어인 ㉑가 글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확인해야겠어.
- ㉒ 글에서 다루는 내용이 추상적이므로 ㉒에 이어진 사례를 통해 앞의 설명에서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야겠어.
- ㉓ 내용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㉓가 지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겠어.
- ㉔ 상반된 두 입장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㉔로 이어진 앞뒤의 내용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살펴봐야하겠어.
- ㉕ 사실과 글쓴이의 의견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㉕를 통해 강조되는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한지 따져 보아야겠어.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6월 B형

문화가 발전하려면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란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비영리적인 사적 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는 오래전부터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있는 저작권 제한 규정을 두었다.

그런데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여러 장애에 부딪혔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저작물을 원본과 동일하게 복제할 수 있고 용이하게 개작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물이 개작되더라도 그것이 원래 창작물인지 이차적 저작물인지 알기 어렵다. 그 결과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공정 이용의 범주에 드는 것인지 가능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그에 따른 처벌 위험도 커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이 저작권법에 별도로 신설되었다. 그리하여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되었다. 그러나 공정 이용 여부에 대한 시비가 자율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예나 지금이나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저작물 이용의 영리성과 비영리성, 목적과 종류, 비중, 시장 가치 등이 법적인 판단의 기준이 된다.

저작물 이용자들이 처벌에 대한 불안감을 여전히 느낀다는 점에서 저작물의 자유 이용 허락 제도와 같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캠페인은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이용 허락 조건을 표시해서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누구의 저작물이든 개별적인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달리, 이 캠페인을 펼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저작권자와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양과 범위를 확대하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저작물의 공유가 확산되면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그 결과 인터넷이 더욱 창의적이고 풍성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캠페인에 참여한 저작물을 이용할 때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한편 ㉠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이 확산되면 저작물을 창조하려는 사람들의 동기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저작물이 줄어들게 되어 이용자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 디지털 환경에서는 사용자 지불 절차 등이 간략해져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없었다고 본다. 이들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과 신설된 공정 이용 규정으로 인해 저작권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19. 뒷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저작자의 권리 보호는 문화 발전의 한 축을 이룬다.
- ② 디지털 환경 이전에도 공정 이용과 관련된 규정이 있었다.
- ③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도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성립할 수 있다.
- ④ 공정 이용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도 저작권이 인정된다.
- ⑤ 저작물이 모두의 소유라는 주장은 저작물 공유 캠페인의 핵심이다.

20. ㉠의 주장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이용 허락 조건을 저작물에 표시하면 창작 활동을 더욱 활성화한다.
- ②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이 확산되어야 한다.
- ③ 비영리적인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복제가 허용되는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 ④ 저작권자가 자신들의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수록 창작 의욕이 더 커진다.
- ⑤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양보하는 것은 다른 저작권자의 저작권 개방을 유도하여 공익을 확장시킨다.

21.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자료 1】

다음은 저작물 공유 캠페인의 ‘자유 이용 허락’ 조건 표시의 한 예이다.

- ① : 출처를 표시하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함.
- ② : 출처를 표시하고 사용하되 상업적 사용은 안 됨.

【자료 2】

A는 자신의 미술 평론에 항상 ① 표시를 하여 블로그에 올렸다. B는 표시의 조건을 지키며 A의 미술 평론을 이용해 왔다. 최근 A는 조카의 돌잔치 동영상을 만들고 ② 표시를 하여 블로그에 올렸다. 그런데 B는 그 동영상에서 자신의 저작물인 예술 사진이 동의 없이 사용된 것을 발견하였다. B는 A에게 예술 사진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하였다.

- ① A는 ‘자유 이용 허락’ 조건 표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람이겠군.
- ② B가 평소 A의 자료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 A는 B에게 사용자료를 지불을 요구할 수 없겠군.
- ③ A의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면, A는 B에게 사용자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겠군.
- ④ B는 공정 이용 규정이 없었다면, A에게 사용자료를 지불을 요구할 수 없겠군.
- ⑤ B가 A의 미술 평론의 일부를 편집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면, A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겠군.

[22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6월 B형

사람의 눈이 원래 하나였다면 세계를 입체적으로 지각할 수 있었을까? 입체 지각은 대상까지의 거리를 인식하여 세계를 3차원으로 파악하는 과정을 말한다. 입체 지각은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로부터 다양한 단서를 얻어 이루어지는데 이를 양안 단서와 단안 단서로 구분할 수 있다. 양안 단서는 양쪽 눈이 함께 작용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양쪽 눈에서 보내오는, 시차(視差)*가 있는 유사한 상이 대표적이다. 단안 단서는 한쪽 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은 단안 단서만으로도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추론에 의하여 세계를 3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 망막에 맺히는 상은 2차원이지만 그 상들 사이의 깊이의 차이를 인식하게 해 주는 다양한 실마리들을 통해 입체 지각이 이루어진다.

동일한 물체가 크기가 다르게 시야에 들어오면 우리는 더 큰 시각(視角)*을 가진 쪽이 더 가까이 있다고 인식한다. 이렇게 물체의 상대적 크기는 대표적인 단안 단서이다. 또 다른 단안 단서로는 '직선 원근'이 있다. 우리는 앞으로 뻗은 길이나 레일이 만들어 내는 평행선의 쪽이 좁은 쪽이 넓은 쪽보다 멀리 있다고 인식한다. 또 하나의 단안 단서인 '결 기울기'는 같은 대상이 집단적으로 어떤 면에 분포할 때, 시야에 동시에 나타나는 대상들의 연속적인 크기 변화로 얻어진다. 예를 들면 들뜬판에 만발한 꽃을 보면 앞쪽은 꽃이 크고 뒤로 가면서 서서히 꽃이 작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시각적 단서가 쉽게 원근감을 일으킨다.

어떤 경우에는 운동으로부터 단안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운동 시차'는 관찰자가 운동할 때 정지한 물체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지가 물체들까지의 상대적 거리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차를 타고 가다 창밖을 보면 가까이 있는 나무는 빨리 지나가고 멀리 있는 산은 거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동물들도 단안 단서를 활용하여 입체 지각을 할 수 있다. 특히 머리의 좌우 측면에 눈이 있는 동물들은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양안 단서를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 단안 단서는 입체 지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가령 어떤 새들은 머리를 좌우로 움직였을 때 정지된 물체가 움직여 보이는 정도에 따라 물체까지의 거리를 파악한다.

* 시차 : 하나의 물체를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보았을 때 방향의 차이.

* 시각 : 물체의 양쪽 끝으로부터 눈에 이르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22. 뒷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두 눈을 가진 동물 중에 단안 단서로만 입체 지각을 하는 동물이 있다.
- ② 사람이 원래 눈이 하나이더라도 경험을 통해 세계를 입체로 지각할 수 있다.
- ③ 사람의 경우에 양쪽 눈의 망막에 맺히는 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다.
- ④ 직선 원근을 이용해 입체 지각을 하려면 두 눈에서 보내오는 상을 조합해야 한다.
- ⑤ 새가 단안 단서를 얻으려고 머리를 움직이는 것은 달리는 기차에서 창밖을 보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23.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가) 다람쥐가 잠자는 여우를 발견하자 여우를 보면서 자신과 여우를 연결하는 선에 대하여 직각 방향으로 움직였다.

(나) 축구공이 빠르게 작아지는 동영상을 보여 줄 때는 가만히 있던 강아지가 축구공이 빠르게 커지는 동영상을 보여 주자 놀라서 도망갔다.

- ① (가)에서 다람쥐가 한 행동이 입체 지각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다람쥐는 운동 시차를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다람쥐가 머리의 좌우 측면에 눈이 있는 동물이라면 양안 단서를 얻기 위해 행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가)에서 다람쥐로부터 여우가 멀리 있을수록 다람쥐에게는 여우가 빠르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군.
- ④ (나)는 결 기울기가 강아지에게 입체 지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군.
- ⑤ (나)에서 강아지의 한쪽 눈을 가렸다면 강아지는 놀라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겠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7월 A형

심리학자인 미셀은 아동의 절제력에 관한 실험을 진행했다. 4세 아동들을 방으로 데려가 마시멜로 사탕을 하나씩 나눠준 후,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먹지 않고 있으면 상으로 하나를 더 주겠다고 제안했다. 아동들은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먹기도 하고, 중간에 먹기도 했으며, 끝까지 참고 기다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실험에 참여한 아동들을 15년 후에 다시 보았을 때 오래 참은 아동일수록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였으며, 삶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미셀 박사는 이 실험에서 아동이 보인 행동, 즉 즉각적인 욕구 만족이나 보상을 스스로 지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좌절을 인내하는 능력을 '만족지연 능력'이라 불렀다.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충동적 욕구를 따르는 원초아(id)의 쾌락 원리보다 유용성을 고려하는 자아(ego)의 현실 원리가 우세할 때 만족지연 능력이 생긴다고 본다. 발달 과정에서 만족지연 능력은 문화적 영향력보다 충동을 억제하려는 자아의 강도에 의해 형성된다. 아동이 성숙하고 자발적인 자제력을 갖게 되면서 만족지연 능력이 발달한다는 것이다.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아동이 즉각적인 보상을 선택하는 이유를 지연된 보상이 더 가치 있을 수 있다는 가치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 이론에서는 만족지연 능력이 강해지는 것을 아동의 인지적 성장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즉각적인 작은 보상과 일정 시간 지난 후 받을 큰 보상이라는 선택 상황에서 두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인지적 능력, 즉 사건을 구조화하고 현실을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만족지연 능력을 어떻게 보는가? 이 이론에 따르면 아동은 사회적 강화를 통해 만족을 지연하는 행동이 더 가치 있고 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특히 지연된 보상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나 신뢰감은 약속 이행에 대한 과거의 경험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만족지연 능력은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 외에도 또래나 부모, 교사 등 사회적 모델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학습된다고 할 수 있다.

만족지연 능력에 관한 연구는 한 개인의 학문적 성취와 사회적 적응을 위한 발달의 기초가 어릴 때부터 형성됨을 보여 준다. 유해한 자극들로 가득한 현대 사회에서 아동이 스스로 충동을 조절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성취지향적인 가치관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만족지연 능력은 아동기에 핵심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발달 과업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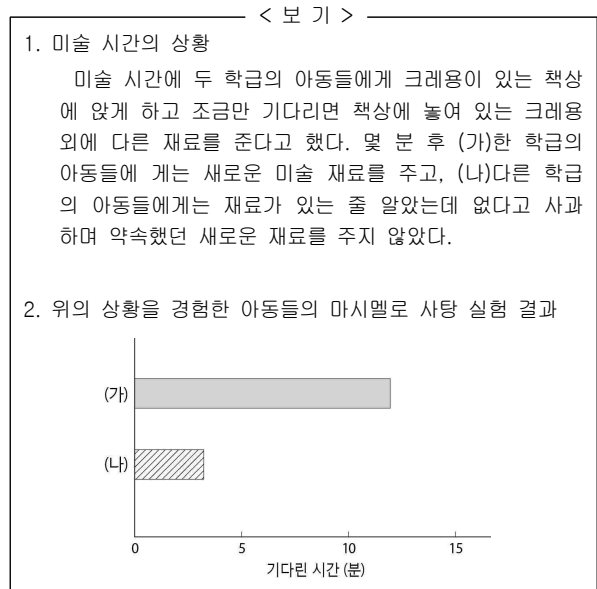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② 상반된 견해를 절충하여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③ 새로운 이론을 통해 기존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⑤ 대상과 관련한 여러 이론을 고찰하며 의의를 밝히고 있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충동을 억제하려는 자아의 강도에 의해 만족지연 능력이 형성된다고 본다.
- ② ㉡에서는 만족지연 행동을 인지적 능력과 연결 지어 설명한다.
- ③ ㉢은 사회적 강화를 통해 만족지연 능력이 발달한다고 본다.
- ④ ㉠과 ㉡은 충동적 행동의 억제를 문화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 ⑤ ㉡과 ㉢은 만족지연 행동으로 인한 보상의 가치를 고려한다.

3.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실험 결과를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아동의 만족지연 능력은 인지적 발달에 영향을 준다.
- ② 아동은 또래의 행동을 관찰하여 만족지연 행동을 학습한다.
- ③ 아동의 만족지연 행동은 욕구의 좌절을 경험할수록 강화된다.
- ④ 지연된 보상의 실현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만족지연 행동이 강화된다.
- ⑤ 아동이 외부의 조건 변화와 관계없이 스스로의 자아를 조절할 수 있을 때에만 만족지연 행동이 발생한다.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7월 A형

주거권이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를 공급받고 현재의 주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향유할 권리이다. 이러한 주거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주택정책을 통해서 기본적인 주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주택정책은 정부나 정부의 위탁을 받은 기관이 수요자에게 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중심 전달 체계와 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수요자에게 서비스 선택권을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 전달 체계로 나누어진다.

공급자 중심 전달 체계는 정부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 임대 주택이 대표적이다. 이는 저렴한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나 위탁 기관이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임대 주택의 공급 물량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정부는 재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공공 임대 주택이 특정 지역에 밀집됨으로써 수요자들이 문화적으로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낄 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수요자들의 요구와는 다르게 특정 지역에 공급됨으로써 실질적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주거 환경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한다.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전달 체계의 제도로는 ㉡주택 바우처 제도가 있다. 이는 기존에 있는 민간 주택 시장을 활용하여 경제적 취약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대료에만 쓸 수 있는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적절한 품질을 가진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급 물량이 부족하여 초과 수요가 나타나거나 주택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택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조금이 임대료에 비해 부족하여 현실적인 혜택을 바라는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택 바우처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의 품질 관리를 병행할 뿐만 아니라 임대료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편 동일한 자격 조건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7. 밑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택정책의 유형과 특징
- ② 주택정책의 개념과 변천 과정
- ③ 주택정책의 적용 범위와 한계
- ④ 주택정책과 임대료 간의 상관관계
- ⑤ 주택정책의 대상이 되는 수요자의 유형

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정부나 정부의 위탁을 받은 기관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 ② ㉡은 수요자의 자격 조건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
- ③ ㉠은 ㉡과 달리 적절한 공급 물량이 있을 때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④ ㉡은 ㉠과 달리 민간 주택 시장을 활용하여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
- ⑤ ㉠과 ㉡은 모두 정부의 재정적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9.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드러난 문제 상황의 해결 방안을 추론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시는 실질적 주택 복지 정책 제도의 확대를 계획하고, 1인당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주택 보조금을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지역신문에 게재했다. 시는 500가구 이상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막상 신청한 것은 30가구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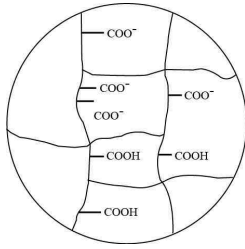
•B시는 5년 전 1,200세대의 공공 임대 아파트를 분양한 것에 이어 올해 1월, 같은 지역에 1,800세대를 추가로 완공한 후 분양 계획을 발표했으나 5년 전 신청자가 몰렸던 것과 달리 미분양 물량이 40%에 달했다.

- ① A시는 주택 보조금이 수요자의 현실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점검해 본다.
- ② A시는 수요자에게 주택 바우처 제도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했는지 점검해 본다.
- ③ B시는 공공 임대 주택의 주거 환경에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해 본다.
- ④ B시는 제공하려던 주택 보조금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점검해 본다.
- ⑤ B시는 미분양 공공 임대 주택의 위치가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인지 점검해 본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7월 A형 B형

일반적으로 물질이 물을 흡수하는 원리는 모세관 현상과 관련이 있다. 이는 물이, 가는 관을 따라 올라오는 현상으로 작은 구멍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다. 펄프나 면은 작은 구멍이 많은 섬유질로 되어 있어 흡수력이 뛰어나지만 일정량 이상이 되면 물을 더 이상 흡수할 수도 없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 물이 새기도 한다. 평소에 물을 바닥에 **①엎지르면** 화장지로 닦아 내지만 닦아야 할 물의 양이 많아지면 화장지라도 부족한 것은 이것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고흡수성(高吸水性) 수지'이다.

①고흡수성 수지는 3차원 망상 구조, 즉 그물과 같은 물리적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물에 의해 형성된 구멍의 크기를 천연 펄프보다는 미세하게 만들 수 있어 자기 무게보다 수십 배의 양을 저장하는 천연 펄프나 천과는 달리 수천 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구멍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흡수 속도와 흡수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고흡수성 수지의 구조]

위 그림과 같은 망상 구조는 고분자 중합*이라는 화학반응을 이용해 만든다. 먼저 분자들을 연결하여 긴 분자사슬을 만들고, 이 분자사슬의 중간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분자사슬을 연결해 주면 그물 모양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물을 단단하게 설계한다면 어느 정도 압력이 있어도 물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런데 **②망상 구조**만으로는 고흡수성 수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 물질은 크게 물과 친한 성질인 친수성과 물을 멀리하는 성질인 소수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망상 구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분자들은 친수성 작용기를 가진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 주로 히드록시기(-OH)나 카르복시기(-COOH)와 같이 이온화가 쉽거나 물과의 수소결합이 가능한 작용기를 갖춘 분자들을 중합하는 방법으로 망상 구조를 만든다. 그리고 친수성인 작용기들은 그물 결합 내에서 서로 전기적 반발력이 있는데, 이로 인해 결합 내의 공간이 확대되어 많은 양의 물을 흡수하게 된다. 이런 과정으로 고흡수성 수지는 자기 무게의 1,000배 이상을 흡수한다. 여기에 이온화 경향이 더 높은 작용기를 사용할 경우 물뿐만 아니라 염도가 있는 액체에도 우수한 흡수력을 나타내게 된다.

*중합: 단위체가 두 개 이상 결합하여 큰 분자량의 화합물로 되는 일.
 *중합 반응.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모세관 현상은 물의 흡수력을 감소시킨다.
- ② 친수성 작용기를 가진 물질은 망상 구조를 가진다.
- ③ 분자 사이에 공간이 넓어지면 전기적 반발력이 생긴다.
- ④ 고흡수성 수지는 분자들이 그물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다.
- ⑤ 천연 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는 압력을 견디는 힘이 강하다.

11. 윗글을 발표 수업의 원고라 할 때, 발표 수업을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목: 고흡수성 수지에 대하여

•대상: 3학년 ○반 학생들

•발표 내용 및 방법

- 시각 자료를 통해 ①의 구조를 보여준다.①
- 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시한다.②
- ③이 ④의 형태를 지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③
- 사례를 들어 ①의 활용 분야를 자세히 보여준다.④
- ⑤의 특성을 과학적 원리로 설명한다.⑤

12. 윗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장마철에 습기를 제거하려고 구입한 제습제에는 고흡수성 수지가 들어 있을 거야.
- ② 친수성 작용기를 포함한 고분자 물질을 선박의 표면에 바르면 부식을 방지할 수 있겠어.
- ③ 아기들이 착용하는 기저귀에 고흡수성 수지를 사용하면 최적의 흡수력을 얻을 수 있겠어.
- ④ 망상 구조가 단단하게 설계된 꽃꽂이용 밀판은 더 많은 수분을 꽃에 제공할 수 있을 거야.
- ⑤ 물기 제거를 위한 청소용 스펀지는 중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고분자 물질로 제작할 수 있겠어.

13. <보기>는 ②와 관련된 설명이다. 사례로 든 두 단어의 관계가 '유의 관계'가 아닌 것은?

< 보 기 >

쓰이는 상황이 제한적이라도 둘 이상의 단어가 문장에서 유사한 의미를 지닐 때, 이 두 단어를 유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 ②의 '엎지르면'은 '쏟으면'으로 바뀌 쓸 수 있다.

- ① 철수는 신호를 (보았다/ 지켰다).
- ② 영희는 철길을 (넘었다/ 건넜다).
- ③ 형이 나에게 사과를 (주었다/ 건넜다).
- ④ 나는 어젯밤에 전구를 (갈았다/ 바꿨다).
- ⑤ 날씨가 더워서 찬물을 (먹었다/ 마셨다).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7월 8형

‘본질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서양 철학의 핵심적 질문이다. 탈레스가 세계의 본질을 ‘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부터 서양 철학은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 불변하는 측면과 그렇지 않은 측면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본질은 어떤 사물의 불변하는 측면 혹은 그 사물을 다른 사물과 구별시켜 주는 특성을 의미하는데, ㉠본질주의자는 이러한 사물 본연의 핵심적인 측면을 중시한다. 예를 들어 책상의 본질적 기능이 책을 놓고 보는 것이라면, 책상에서 밥을 먹는 것은 비본질적 행위이고 이러한 비본질적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본질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사물의 본질이란 사실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책상 자체가 원래 ‘책을 놓고 보는 것’이라는 본질을 미리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책상에서 책을 보거나 글을 쓰면서, 즉 책상에 대해 인간이 경험적으로 행동을 해 보고 난 후에 책상의 본질을 그렇게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인용하여 책상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자.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탐구』라는 저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해해.”라고 나는 되풀이해서 중얼거린다. 만일 내가 나의 시선을 이 사실에다 그저 아주 명확하게 맞출 수만 있다면, 나는 틀림없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다. 책상을 보고서 책상은 이렇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되풀이해서 중얼거리는 것은 사후적 구성의 논리가 작동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어떤 사물의 본질을 파악한 것만 같은 느낌은 사후적 구성의 반복을 통해 책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또한 그의 저서에서 ‘본질적이니 비본질적이니 하는 것들이 언제나 명료하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말한다. 램프의 본질적 기능은 빛을 내는 것이지만 방을 장식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빛을 내는 것이 램프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믿으며 램프의 사용 목적에 편집증적으로 집착할 경우, 자신이 믿고 있는 본질을 어기는 타자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파이프를 그린 화가 마그리트의 「이미지의 배반」이라는 그림을 예로 들어 보자. 마그리트는 파이프를 닮은 형상을 그리고 그 아래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써 놓았다. 사람들은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 그림 속 형상을 파이프로 인식할 것이지만,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글자는 사람들의 인식을 배반하게 만든다. 이 그림을 본질에 대한 문제와 연결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본질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 구성에 의해 획득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본질주의자들이 강조한 사물의 본질은 단지 인간의 가치가 투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14. 윗글을 통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물의 본질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 ② 사물의 본질이 사물의 속성을 결정한다.
- ③ 사물의 본질은 사용 목적에 따라 정의된다.
- ④ 사물의 본질과 비본질은 명료하게 구분된다.
- ⑤ 본질과 비본질을 모두 경험한 후에야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15. <보기>에 대한 ㉠과 ㉡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동양의 불교 사상에서는 오래전부터 공(空)을 이야기해왔다. 불교에서 본질이란 것은 ‘자기동일성’을 의미하는 ‘자성(自性)’이라고 불린다. 이런 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무자성’이야말로 불교에서 가장 강조해 온 ‘공’의 핵심적인 의미이다. 불교의 공은 본질을 맹신하는 집착을 치유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이다.

- ① ㉠: <보기>의 ‘자성’은 인간 개인이 생각하는 가치가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② ㉠: <보기>의 ‘자기동일성’은 오랜 수양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후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③ ㉡: <보기>의 본질에 대한 ‘맹신’은 사후적 구성의 반복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④ ㉡: <보기>의 ‘공’은 경험적 행동을 통해 얻은 본질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군.
- ⑤ ㉡: <보기>의 ‘무자성’의 경지는 대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지라고 할 수 있군.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7월 8형

19세기 초에 등장한 사진은 2차원 평면 위에 현실을 재현한다는 점에서 회화와 비슷하지만 광학과 화학 등 기술적 특성을 지니기에 예술과 기술의 모호한 경계선상에 위치하였다. 처음의 사진은 회화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정도로 인식되었으나, 19세기 후반에 '픽토리얼리즘'이 등장하면서 사진으로서 독자적 예술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픽토리얼리즘은 사진도 회화와 같은 예술적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픽토리얼리즘을 추구하는 작가들은 사진의 복제성을 포기하고 회화의 속성인 수공적 방법을 끌어들이 예술적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했다. 회화적 구현의 방식으로 사진의 초점을 흐리게 하거나 인화 방식을 다양하게 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했던 것이다.

20세기 초, 사진이 갖는 기술적 특성인 기록성에 더 중점을 두고자 했던 ㉡'스트레이트 포토'가 등장한다. '직접적인 사진' 또는 '순수 사진'으로 불리는 스트레이트 포토를 추구하는 작가는 앵글이나 셔터, 프레임 등의 사진이 갖는 고유한 기능에 치중하려 했다. 즉, 사진에 어떠한 조작도 가하지 않고, 작가의 의도를 표현하려 했다. 미국의 폴 스트랜드는 그의 작품



「월 스트리트, 뉴욕」에서 프레임의 설정만으로 자본주의의 부정적 속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대형의 직사각형 창이 있는 육중한 석조 건물과 출근하는 왜소한 사람들의 모습의 대비만을 프레임에 넣어 거대한 자본의 논리에 작아지는 사람들을 표현한 것이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 보다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짐으로써 ㉢'디지털 픽토리얼리즘'이 등장하게 된다. 디지털 기술은 이미지의 합성 및 변조와 실재하지 않는 대상의 구현 등 다양한 표현을 가능하게 했고, 이러한 가능성으로 인해 작가들은 자신들의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보자면 픽토리얼리즘과 차이가 없어 보이나, 작가의 주제 의식을 보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발견했다고도 할 수 있다.

16.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사진과 관련한 예술적 경향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사진의 발전 과정에 대해 과학 기술 변화에 초점을 맞춰 고찰하고 있다.
- ③ 사진의 예술적 가치를 다른 예술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 ④ 예술적 사진과 그렇지 않은 사진의 개념을 특정한 준거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사진을 바라보는 대비되는 두 견해를 제시하고, 이를 절충한 새로운 예술적 경향을 소개하고 있다.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감상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이 사진은 미국의 사진작가 스티글리츠의 「오래된, 그리고 새로운 뉴욕」이다. 그는 뉴욕의 옛 건물과 새로 짓는 현대적 건물을 사진에 그대로 담았다. 이 사진은 한 시대에 공존하는 전통과 테크놀로지의 대비를 통해 빠르게 변모하는 미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전면의 낮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은 '오래된 뉴욕'을, 후면에 있는 수직적 상승감이 강조된 철골 구조는 '새로운 뉴욕'을 상징한다.

- ① 명암이 주는 효과에 주목하여 당대 사진의 표현 기법을 살핀다.
- ② 초점을 흐리게 하는 기술에 주목하여 작품이 지니는 형식적 실험성을 살핀다.
- ③ 대상을 왜곡하고 변조하는 디지털 기술에 주목하여 작가의 표현 의도를 살핀다.
- ④ 작가가 작품을 발표한 시기에 주목하여 작품이 가지는 시대사적 의의를 살핀다.
- ⑤ 프레임에 담긴 대비적 구도에 주목하여 작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의미를 살핀다.

18.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사진의 기록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② ㉠과 ㉡은 사진의 복제성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③ ㉠과 ㉡은 사진의 사실적 재현성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④ ㉡과 ㉢은 합성된 이미지를 사진에 표현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⑤ ㉡과 ㉢은 회화적 속성을 중시하여 사진을 찍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7월 8형

경제 주체들은 시장을 통해 필요한 재화를 얻거나 제공하며, 재화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시장을 통한 재화의 배분이 어렵거나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시장 제도를 적절히 설계하면 경제 주체들의 이익을 최대한 충족시키면서 재화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데, 이를 ‘시장 설계’라고 한다.

① 시장 설계의 방법은 양방향 매칭(two-sided matching)과 단방향 매칭(one-sided matching)이 있다. 양방향 매칭은 두 집합의 경제 주체들을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선호도를 최대한 배려하여 쌍으로 맺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단방향 매칭은 경제 주체들이 지니고 있는 재화를 재분배하여 더 선호하는 재화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결국 양방향 매칭은 경제 주체들 간의 매칭을, 단방향 매칭은 경제 주체에게 재화를 배분하는 매칭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방향 매칭에서는 잠정 수락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시장을 설계한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음 제안자는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수락자에게 제안을 한다. 이 때, 1명에게만 제안을 받은 수락자는 무조건 그 제안자와 잠정적으로 매칭이 되고, 2명 이상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수락자는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제안자를 선택하여 잠정적으로 매칭이 된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매칭이 되지 않은 제안자는 자신이 제안하지 않은 수락자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람에게 제안을 한다. 한편 각 수락자는 잠정적으로 매칭이 되었던 제안자와 새롭게 제안한 제안자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람을 골라 잠정적으로 매칭이 된다. 제안자 집합의 구성원들이 수락자 집합의 구성원들과 일대일로 모두 매칭이 될 때까지이 과정이 반복되며, 매칭에 참가한 구성원은 임의로 매칭을 종료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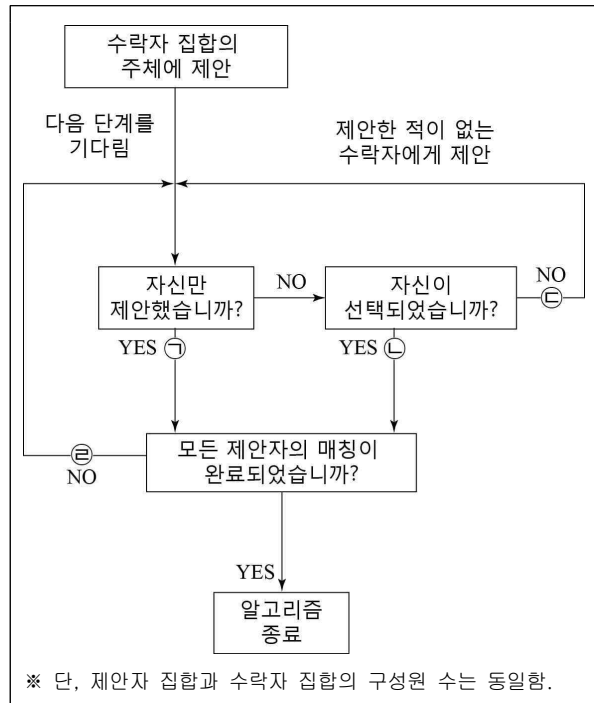
이와 달리 단방향 매칭에서는 선순위 거래 순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재화를 배분한다. 알고리즘에 참가하는 경제 주체는 자신이 선호하는 재화를 선택하고, 매칭이 이루어지면 다른 제안자의 매칭 결과와 상관없이 알고리즘이 종료된다. 이 방법은 매칭이 이루어진 경제 주체가 더 이상 알고리즘의 다음 단계에 참가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잠정 수락 알고리즘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에서 시장을 설계할 때 양방향과 단방향 매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는 두 매칭을 함께 적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장 설계 이론은 장기 교환 이식 제도, 주택 청약 제도 등에 활용되고 있어, 경제학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9.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장 제도의 장점과 한계
- ② 시장 설계의 방법과 특징
- ③ 시대에 따른 시장 설계의 특징
- ④ 시장의 성격에 따른 재화 배분 과정
- ⑤ 시장의 범위에 따른 알고리즘의 종류

20. 다음은 제안자의 입장에서 ‘잠정 수락 알고리즘’의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단, 제안자 집합과 수락자 집합의 구성원 수는 동일함.

- ① ㉠의 과정에서 수락자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잠정적 매칭을 이루게 된다.
- ② 모든 제안자들이 ㉠의 과정을 통과하면 알고리즘을 종료할 수 있다.
- ③ ㉡에서 수락자는 제안자 중 가장 선호하는 사람과 매칭이 이룬다.
- ④ ㉢의 과정에서 수락자는 선호하는 제안자를 골라 추가 제안을 받는다.
- ⑤ 제안자와 수락자 구성원들이 일대일로 모두 매칭이 될 때까지 ㉢과 ㉡의 과정이 반복된다.

21. ㉠을 적용한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결혼 정보 회사: 결혼 상대자를 구하는 남녀를 짝지어 줌.
- ② 인력 정보 시장: 구직자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고용자를 이어줌.
- ③ 창업 정보 회사: 식당을 창업하려는 창업주에게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를 연결해 줌.
- ④ 사회 복지 기관: 봉사 활동을 원하는 학생에게 자원 봉사를 필요로 하는 단체에 대한 정보를 줌.
- ⑤ 중고품 판매 사이트: 중고 물품을 판매하려는 판매자와 중물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을 연결해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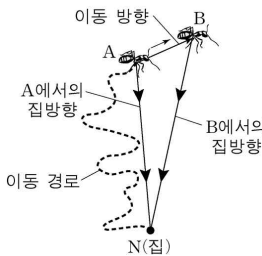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9월 A형

동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중요한 장소의 위치를 기억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은신처까지 길을 찾아올 수 있다. 동물의 길찾기 방법에는 '장소기억', '재정위', '경로적분' 등이 있다. '장소기억'은 장소의 몇몇 표지만을 영상 정보로 기억해 두었다가 그 영상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길을 찾는 방법이다. 기억된 영상은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 달라지기에, 이 방법을 활용하는 꿀벌은 특정 장소를 특정 각도에서 본 영상으로 기억해 두었다가 다시 그곳으로 갈 때는 자신이 보는 영상과 기억된 영상이 일치하도록 비행한다. 장소기억은 곤충과 포유류를 비롯한 많은 동물이 길찾기에 활용한다.

'재정위'는 방향 기억이 험클어진 상황에서도 장소의 기하학적 특징을 활용하여 방향을 다시 찾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직사각형 방에 갇힌 배고픈 흰쥐에게 특정 장소에만 먹이를 두고 찾게 하면, 긴 벽이 오른쪽에 있었는지와 같은 공간적 정보만을 활용하여 먹이를 찾는다. 이런 정보는 흰쥐의 방향 감각을 혼란시킨 상황에서도 보존되는데, 흰쥐는 재정위 과정에서 장소기억 관련 정보를 무시한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원숭이는 재정위 과정에서 벽 색깔과 같은 장소기억 정보도 함께 활용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경로적분'은 곤충과 새의 가장 기본적인 길찾기 방법으로 이를 활용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먹이를 찾아 길을 나선 ㉠ 사하라 사막의 사막개미는 집 근처를 이리저리 탐색하다가 일단 먹이를 찾으면 집을 향해 거의 일직선으로 돌아온다. 사막개미는 장소기억 능력이 있지만 눈에 띄는 지형지물이 거의 없는 사막에서는 장소기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경로적분을 활용한다. 사막개미의 이러한 놀라운 집찾기는 집을 출발하여 먹이를 찾아 이동하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집 방향을 계속하여 다시 계산함으로써 가능하다. 가령, 그림에서 이동 경로를 따라 A에 도달한 사막개미가 먹이를 찾았다면 그때 파악한 집 방향 \vec{AN} 으로 집을 향해 갈 것이다. 만약 A에서 먹이를 찾지 못해 B로 한 걸음 이동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사막개미는 A에서 B로의 이동 방향과 거리에 근거하여 새로운 집 방향 \vec{BN} 을 계산한다. 사막개미는 먹이를 찾을 때까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매 위치에서의 집 방향을 파악한다.

한편, 이동 경로상의 매 지점에서 사막개미가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을 정하기 위해 사막개미는 태양의 위치와 산란된 햇빛을 함께 이용한다. 태양의 위치는 태양이 높이 떠 있거나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는 유용하지 않다. 이때 결정적 도움을 주는 것이 산란된 햇빛 정보이다. 사막개미는 마치 하늘을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천문학자처럼 하늘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동 경로상의 매 지점에서 사막개미가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을 정하기 위해 사막개미는 태양의 위치와 산란된 햇빛을 함께 이용한다. 태양의 위치는 태양이 높이 떠 있거나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는 유용하지 않다. 이때 결정적 도움을 주는 것이 산란된 햇빛 정보이다. 사막개미는 마치 하늘을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천문학자처럼 하늘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는 셈이다.

1. 뒷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곤충은 길찾기 과정에서 경로적분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② 새는 길찾기 과정에서 장소기억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 ③ 흰쥐는 재정위 과정에서 산란된 햇빛 정보를 활용한다.
- ④ 원숭이는 재정위 과정에서 기하학적 정보도 활용한다.
- ⑤ 꿀벌은 특정 장소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영상을 기억하여 길을 찾는다.

2. 뒷글을 바탕으로 할 때, ㉠의 길찾기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막개미는 암흑 속에서도 집 방향을 계산할 수 있겠군.
- ② 사막개미의 경로적분 능력은 학습을 통해 얻어진 것이겠군.
- ③ 지형지물이 많은 곳에서 사막개미는 장소기억을 활용하겠군.
- ④ 사막개미가 먹이를 찾은 후 집으로 되돌아갈 때는 왔던 경로를 따라 가겠군.
- ⑤ 사막개미는 한 걸음씩 이동하면서 그때마다 집까지의 직선거리를 다시 계산하겠군.

3. 뒷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상황에서 병아리가 보일 행동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 >

병아리가 재정위 과정에서 기하학적 특징만을 활용한다고 가정하자. 아래 그림의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에서 먹이는 A에만 있다. 병아리가 A, B, C, D를 모두 탐색하여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 학습하게 한 후, 상자에서 꺼내 방향을 혼란시킨 다음 병아리를 상자 중앙에 놓고 먹이를 찾도록 한다. 이와 같은 실험을 여러 번 수행하여 병아리가 A, B, C, D를 탐색하는 빈도를 측정한다.

- ① A를 높은 빈도로 탐색하고 B, C, D를 비슷한 정도의 낮은 빈도로 탐색한다.
- ② A, B를 비슷한 정도의 높은 빈도로 탐색하고 C, D를 비슷한 정도의 낮은 빈도로 탐색한다.
- ③ A, C를 비슷한 정도의 높은 빈도로 탐색하고 B, D를 비슷한 정도의 낮은 빈도로 탐색한다.
- ④ A, D를 비슷한 정도의 높은 빈도로 탐색하고 B, C를 비슷한 정도의 낮은 빈도로 탐색한다.
- ⑤ A, B, C, D를 비슷한 정도의 빈도로 탐색한다.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9월 A형

1895년에 발견된 X선은 진단의학의 혁명을 일으켰다. 이후 X선 사진 기술은 단면 촬영을 통해 입체 영상 구성이 가능한 CT(컴퓨터 단층촬영장치)로 진화하면서 해부를 하지 않고 인체 내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기술로 발전하였다.

X선 사진은 X선을 인체에 조사하고, 투과된 X선을 필름에 감광시켜 얻어낸 것이다. 조사된 X선의 일부는 조직에서 흡수·산란되고 나머지는 조직을 투과하여 반대편으로 나오게 된다. X선이 투과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투과율은 공기가 가장 높으며 지방, 물, 뼈의 순서로 낮아진다. 또한 투과된 X선의 세기는 통과한 조직의 투과율이 낮을수록, 두께가 두꺼울수록 약해진다. 이런 X선의 세기에 따라 X선 필름의 감광 정도가 달라져 조직의 흑백 영상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X선 사진에서는 투과율이 비슷한 조직들 간의 구별이 어려워져서, X선 사진은 다른 조직과의 투과율 차이가 큰 뼈나 이상 조직의 검사에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X선 사진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CT이다.

CT는 인체에 투과된 X선의 분포를 통해 인체의 횡단면을 영상으로 재구성한다. CT 촬영기 한쪽 편에는 X선 발생기가 있고 반대편에는 여러 개의 X선 검출기가 배치되어 있다. CT 촬영기 중심에, 사람이 누운 침대가 들어가면 X선 발생기에서 나온 X선이 인체를 투과한 후 맞은편 X선 검출기에서 검출된다.

X선 검출기로 인체를 투과한 X선의 세기를 검출하는데, 이때 공기를 통과하며 감쇄된 양을 빼고, 인체 조직만을 통과하면서 감쇄된 X선의 총량을 구해야 한다. 이것은 공기만을 통과한 X선 세기와 조직을 투과한 X선 세기의 차이를 계산하면 얻을 수 있고, 이를 환산값이라고 한다. 즉, 환산값은 특정 방향에서 X선이 인체 조직을 통과하면서 산란되거나 흡수되어 감쇄된 총량을 의미한다. 이 값을 여러 방향에서 구하기 위해 CT 촬영기를 회전시킨다. 그러면 동일 단면에 대한 각 방향에서의 환산값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컴퓨터가 단면 영상을 재구성한다.

CT에서 영상을 재구성하는 데에는 **역투사**(back projection) 방법이 이용된다. 역투사는 어떤 방향에서 X선이 진행했던 경로를 거슬러 진행하면서 경로상에 환산값을 고르게 분배하는 방법이다. CT 촬영기를 회전시키며 얻은 여러 방향의 환산값을 경로별로 역투사하여 더해 나가는데, 이처럼 여러 방향의 환산값들이 더해진 결과가 역투사 결과값이다. 역투사를 하게 되면 뼈와 같이 감쇄를 많이 시키는 조직에서는 여러 방향의 값들이 더해지게 되고, 그 결과 다른 조직에서보다 더 큰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

역투사 결과값들을 합성하면 투과율의 차이에 따른 조직의 분포를 영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CT 촬영기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인체의 여러 단면에 대하여 촬영을 반복하면 연속적인 단면 영상을 얻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이 단면 영상들을 조합하여 입체 영상도 얻을 수 있다.

4. 뒷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CT 촬영을 할 때 X선 발생기와 X선 검출기는 회전한다.
- ② X선 사진에서는 비슷한 투과율을 가진 조직들 간의 구별이 어렵다.
- ③ CT에서의 환산값은 통과한 조직에서 감쇄된 X선의 총량을 나타낸다.
- ④ 조직에서 흡수·산란된 X선의 세기는 그 조직을 투과한 X선 세기와 항상 같다.
- ⑤ 조직의 투과율이 높을수록, 조직의 두께가 얇을수록 X선은 더 많이 투과된다.

5. **역투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X선 사진의 흑백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역투사는 필요하지 않다.
- ② 역투사 결과값은 조직이 없고 공기만 있는 부분에서 가장 크다.
- ③ 역투사 결과값들을 활용하여 조직의 분포에 대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 ④ X선 투과율이 낮은 조직일수록 그 위치에 대응하는 역투사 결과값은 커진다.
- ⑤ 역투사 결과값은 CT 촬영기에서 구한 환산값을 컴퓨터에서 처리하여 얻을 수 있다.

6.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와 같은 실험을 했을 때, B에 해당 하는 그래프로 알맞은 것은? [3점]

< 보 기 >

위의 그림처럼 단면이 정사각형인 물체 ㉠과 직각이등변삼각형인 물체 ㉡가 연결된 **■**를 CT 촬영기 안에 넣고 촬영하여 A, B, C 방향에서 구한 환산값의 크기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이때 ㉠의 투과율은 ㉡의 2배이다.

* X선은 화살표와 같이 평행하게 진행함.
* 물체 **■**의 밑면을 기준으로 A는 0° 방향, B는 45° 방향, C는 90° 방향의 위치에 있음.

-
- ①
 - ②
 - ③
 - ④
 - ⑤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9월 A형 B형

A회사의 온라인 취업 사이트에 갑을 비롯한 수만 명의 가입자가 개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누군가 A회사의 시스템 관리가 허술한 것을 알고 링크 파일을 만들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가입자들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은 A회사에 사이트 운영의 중지 및 배상을 요구하였지만, A회사는 거부하였다. 갑은 소송을 검토하였는데, 받게 될 배상액에 비해 들어갈 비용이 적지 않다는 생각에 망설였다. 갑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소송할 사람들을 모았고 마침내 100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동참하게 되었다. 갑은 이들과 함께 ㉠ 공동 소송을 하여 A회사에 사이트 운영의 중지 및 배상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공동 소송은 소송 당사자의 수가 여럿이 되는 소송을 말한다. 이는 저마다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송들을 하나의 절차에서 한꺼번에 심리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으로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일괄 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한꺼번에 소송을 진행하기에 번거롭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개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가 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선정 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는 갑과 같은 이를 선정 당사자로 삼아 그에게 모두의 소송을 맡기는 것이다.

위 사건에서 수만 명의 가입자가 손해를 입었지만, 배상받을 금액이 적은 탓에 대부분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전체 피해 규모가 엄청난 데 비하면, 승소해서 받게 될 배상금의 총액은 매우 적은 것이다. 이래서는 피해 구제도 미흡하고, 기업에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는 집단 소송과 단체 소송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어 왔다.

집단 소송은 피해자들의 일부가 전체 피해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 당사자가 되어, 기업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만일 갑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공동 소송을 하여 승소한다면 이들과 배상을 받게 된다. 반면에 집단 소송에서 대표 당사자가 수행하여 이루어진 판결은 원칙적으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대표 당사자는 초기에 고액의 소송 비용을 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어 소송의 개시가 쉽지만은 않다.

단체 소송은 법률이 정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침해 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위의 사례에서도 IT 관련 협회와 같은 전문 단체가 소송을 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체 소송은 공익적 이유에서 인정되는 것이어서, 이를 통해 개인 피해자들을 위한 손해 배상 청구는 하지 못한다.

최근에 ㉡ 우리나라도 집단 소송과 단체 소송을 제한적으로 도입하였다. 먼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기업이 회계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 투자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에 단체 소송도 도입되었는데, 소비자 분쟁과 개인 정보 피해에 한하여 소비자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되었다.

7. 뒷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그와 관련되는 해결 방안과 한계를 설명하였다.
- ② 대립하는 원칙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 ③ 여러 유사한 개념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하나의 이론 아래 통합하였다.
- ④ 이론적으로 설정한 가설에 대하여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논증하였다.
- ⑤ 문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일관된 해결책을 정립하였다.

8. 뒷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정 당사자 제도는 소송 당사자들이 한꺼번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 ② 공동 소송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성격을 지닌다.
- ③ 단체 소송에서 기업이 일으키는 피해를 중지시키려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자격은 법률이 정한다.
- ④ 다수의 소액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도 피해자들은 공동 소송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 ⑤ 일부의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하면 그런 소송이 진행되는지 몰랐던 피해자들도 배상받을 수 있다.

9. ㉠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인 정보의 침해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 ② 개인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 ③ 개인 정보의 침해가 일어난 데 대한 배상을 받고자 한다.
- ④ 개인 정보를 판매한 데 대하여 경각심을 촉구하고자 한다.
- ⑤ 개인 정보의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소송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10. ㉡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포털 사이트의 개인 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이 소를 제기하여 단체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② 기업의 허위 공시 때문에 증권 관련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소를 제기하여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③ 증권과 관련된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중립적인 단체를 대표 당사자로 내세워 집단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④ 대기업이 출시한 제품이 지닌 결함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소를 제기하여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⑤ 소비자들이 기업에 손해 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 전문성 있는 소비자 협회가 대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11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9월 A형

세계관은 세계의 존재와 본성, 가치 등에 관한 신념들의 체계이다. 세계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준거인 세계관은 곧 우리 사고와 행동의 토대가 되므로, 우리는 최대한 정합성과 근거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못한 신념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혼란시킬 것이므로 세계관에 대한 관심과 검토는 중요하다. 세계관을 이루는 여러 신념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수준의 신념은 '세계는 존재한다.'이다. 이 신념이 성립해야만 세계에 관한 다른 신념, 이를테면 세계가 항상 변화한다든가 불변한다든가 하는 등의 신념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실재론은 이 근본적 신념에 덧붙여 세계가 '우리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주장한다. 내가 만들어 낸 종이비행기는 멀리 날아가, 볼 수 없게 되었다 해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명확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반실재론자는 이 상식에 도전한다. 유명한 반실재론자인 **버클리**는 세계의 독립적 존재를 부정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감각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는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세계에 관한 주장을 편다. 그에 의하면 '주관적' 성질인 색깔, 소리, 냄새, 맛 등은 물론, '객관적'으로 성립한다고 여겨지는 형태, 공간을 차지함, 딱딱함, 운동 등의 성질도 오로지 우리가 감각할 수 있을 때만 존재하는 주관적 속성이다. 세계 속의 대상과 현상이란 이런 속성으로 구성되므로 세계는 감각으로 인식될 때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버클리의 주장은 우리의 통념과 충돌한다. 당시 어떤 사람이 돌을 차면서 "나는 이렇게 버클리를 반박한다!"라고 외쳤다고 한다. 그는 날아간 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버클리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버클리를 비롯한 반실재론자들이 부정하는 것은 세계가 정신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신념이다. 따라서 돌을 찬 사람은 그들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까지도 새로운 형태의 반실재론이 제기되어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논증의 성패를 떠나 반실재론자는 타성에 젖은 실재론적 세계관의 토대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세계관에 대한 도전과 응전의 반복은 그 자체로 인간 지성이 상호 소통하면서 발전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11. 뒷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재론과 반실재론 사이의 논쟁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 ② 세계관은 우리의 사고나 행동의 토대가 되는 신념 체계이다.
- ③ 실재론과 달리 반실재론은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④ 세계가 존재한다는 신념은 세계가 불변한다는 신념보다 더 근본적이다.
- ⑤ 실재론은 세계가 존재하며 그것의 존재는 정신과 독립적이라고 주장한다.

12. **버클리**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 ㄱ. 번개가 치는 현상은 감각 경험으로 구성된 것이다.
- ㄴ. '비둘기가 존재한다.'는 '비둘기가 지각된다.'와 같은 뜻이다.
- ㄷ. 우리에게 지각되는 책상은 우리의 인식 이전에 그 자체로 존재한다.
- ㄹ. 사과와 단맛은 주관적인 속성이며, 둥근 모양은 객관적 속성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9월 A형

창은 채광이나 환기를 위해서, 문은 사람들의 출입을 위해서 건물 벽에 설치한 개폐가 가능한 시설이다. 일반적으로 현대적인 건축물에서 창과 문은 각각의 기능이 명확하고 크기와 형태가 달라 구별이 쉽다. 그러나 한국 전통 건축, 곧 한옥에서 창과 문은 그 크기와 형태가 비슷해서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창과 문을 합쳐서 창호(窓戶)라고 부른다. 이것은 창호가 창과 문의 기능과 미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창과 문을 굳이 구별한다면 머름이라는 건축 구성 요소를 통해 가능하다. 머름은 창 아래 설치된 낮은 창턱으로, 팔을 얹고 기대어 앉기에 편안한 높이로 하였다.

공간의 가변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옥에서 창호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여러 쪽으로 된 큰 창호가 한쪽 벽면 전체를 대체하기도 하는데, 이때 외부에 면한 창호뿐만 아니라 방과 방 사이에 있는 창호를 열면 별개의 공간이 합쳐지면서 넓은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창호의 개폐에 의해 안과 밖의 공간이 연결되거나 분리되고 실내 공간의 구획이 변화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창호는 한옥의 공간 구성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편, 한옥에서 창호는 건축의 심미성이 잘 드러나는 독특한 요소이다. 창호가 열려 있을 때 바깥에 나무나 꽃과 같은 자연물이 있을 경우 방 안에서 창호와 일정 거리 떨어져 밖을 내다보면 창호를 감싸는 바깥 둘레 안으로 한 폭의 풍경을 감상하게 된다. 방 안의 사람이 방 밖의 자연과 완전한 소통을 하여 인공의 미가 아닌 자연의 미를 직접 받아들임으로써 한옥의 실내 공간은 자연과 하나 된 심미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열린 창호가 안과 밖, 사람과 자연 사이의 경계를 없앤 것이다.

창호가 닫혀 있을 때에는 창살 문양과 창호지가 중요한 심미적 기능을 한다. 한옥에서 창호지는 방 쪽의 창살에 바른다. 방 밖에서 보았을 때 대칭적으로 배열된 여러 창살들이 서로 어울려 만들어내는 창살 문양은 단정한 선의미를 창출한다. 창살로 구현된 다양한 문양에 따라 집의 표정을 ㉠ 읽을 수 있고 집주인의 품격도 알 수 있다. 방 안에서 보았을 때 창호지에 어리는 햇빛은 이른 아침에 창회색을 띠고, 대낮의 햇빛이 들어올 때는 뽕안 우윳빛, 하루 일과가 끝날 때쯤이면 석양의 붉은색으로 변한다. 또한 창호지가 얇기 때문에 창호가 닫혀있더라도 외부와 소통이 가능하다. 방 안에서 바깥의 바람과 새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화창한 날과 흐린 날의 정서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창호는 이와 같이 사람과 자연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양자가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한다.

13. 뒷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한옥의 창살은 방 안쪽으로 노출되어 있다.
- ② 한옥에서 창살 문양은 집주인의 품격을 나타내는 표지가 된다.
- ③ 한옥의 방에서 바라보면 창호지에 어린 색채는 하루 종일 일정하다.
- ④ 한옥의 머름은 한쪽 벽면 전체를 대체할 수 있는 건축 구성 요소이다.
- ⑤ 한옥에서는 창호의 형태에 따라 창과 문을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4. 뒷글을 읽고 <보기>의 ㉠을 이해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들어열개는 창호의 두 문짝을 잡고 그것을 들어, 처마 밑에 달려 있는 걸쇠에 매달게 한 창호를 말한다. 그림의 한옥은 사랑채의 대청으로 수목이 있는 마당과 주변의 산을 마주보고 있고, 대청 전면의 들어열개를 모두 들어 올린 상태이다. 들어열개를 내려서 펼치면 대청 전면은 모두 창호로 채워지게 된다.

- ① ㉠은 편의에 따라 올리고 내릴 수 있기에 한옥 공간의 가변성을 구현하는 요소이겠군.
- ② ㉠을 올렸을 때, 대청 전면이 개방되므로 환기와 출입이 원활해지겠군.
- ③ ㉠을 올렸을 때, 대청에서 마당을 조망할 수 있으므로 사람과 자연의 경계가 없어지는 심미적 경험이 가능하겠군.
- ④ ㉠을 내려 닫았을 때, 마당에서는 대청 전면에 펼쳐진 창살 문양을 감상할 수 있겠군.
- ⑤ ㉠을 내려 닫았을 때, ㉠이 벽을 대체하게 되므로, 내부와 외부 사이의 교감은 차단되었군.

15.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큰 소리로 책을 읽어 보자.
- ② 요즘에는 영상설을 읽고 있지.
- ③ 이 옛 글자는 어떻게 읽어야 하지?
- ④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 ⑤ 이 컴퓨터에는 시디(CD)를 읽는 장치가 없네.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9월 B형

고대 중국에서 ‘대학’은 교육 기관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 ‘대학’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전하고 있는 책이 □대학□이다. 유학자들은 □대학□의 ‘명명덕(明明德)’과 ‘친민(親民)’을 공자의 말로 여기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경문 해석의 차이는 글자와 문장의 정확성을 따지는 훈고(訓詁)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석자의 사상적 관심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희와 정약용은 ㉠ ‘명명덕’과 ‘친민’에 대해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 주희는 ‘명덕(明德)’을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마음의 밝은 능력으로 해석한다. 인간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명덕을 지니고 있어서인데 기질에 가려 명덕이 발휘되지 못하게 되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도덕 실천을 위해서는 명덕이 발휘되도록 기질을 교정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명명덕’은 바로 명덕이 발휘되도록 공부한다는 뜻이다. 반면, 정약용은 명덕을 ‘효(孝)’, ‘제(弟)’, ‘자(慈)’의 덕목으로 해석한다. 명덕은 마음이 지닌 능력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 덕목이다. 어떤 사람을 효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효를 실천했기 때문이다. ‘명명덕’은 구체적으로 효, 제, 자를 실천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유학자들은 자신이 먼저 인격자가 될 것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뿐 아니라 백성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원칙으로 삼는다. 주희도 자신이 명덕을 밝힌 후에는 백성들도 그들이 지닌 명덕을 밝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백성을 가르쳐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 ‘신민(新民)’이다. 주희는 □대학□을 새로 편찬하면서 고본(古本) □대학□의 ‘친민’을 ‘신민’으로 ㉤ 고쳤다. ‘친(親)’보다는 ‘신(新)’이 ‘백성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취지를 더 잘 표현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반면, 정약용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정약용은 ‘친민’을 백성들이 효, 제, 자의 덕목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라 해석한다. 즉 백성들로 하여금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여 효도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여 자애의 덕행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 친민이다. 백성들이 이전과 달리 효, 제, 자를 실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롭다는 뜻은 있지만 본래 글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주희와 정약용 모두 개인의 인격 완성과 인륜 공동체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그 이상의 실현 방법에 있어서는 생각이 달랐다. 주희는 개인이 마음을 어떻게 수양하여 도덕적 완성에 ㉥ 이를 것인가에 관심을 둔 반면, 정약용은 당대의 학자들이 마음 수양에 치우쳐 개인과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덕행의 실천에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 바로잡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16. 뒷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학’은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공자가 건립한 교육 기관이다.
- ② 주희는 사람들이 명덕을 교정하지 못하여 잘못된 행위를 한다고 보았다.
- ③ 주희와 정약용의 경전 해석에서 글자의 훈고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 ④ 주희와 정약용 모두 도덕 실천이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⑤ 정약용의 □대학□ 해석에는 마음 수양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관심이 반영되었다.

17.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에 대한 주희와 정약용의 해석은 일치한다.
- ② 주희와 정약용 모두 ㉠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을 강조하였다.
- ③ 주희는 ㉠을 ‘효’, ‘제’, ‘자’라는 구체적 덕목을 실천하는 것으로 보았다.
- ④ ㉢에는 백성 또한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주희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 ⑤ 정약용은 ㉢가 고본 □대학□의 ‘친민’의 본래 의미를 잘 나타내었다고 보았다.

18. 뒷글과 <보기>를 근거로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왕양명은 당시에 통용되던 □대학□의 ‘신민’을 고본 □대학□에 따라 ‘친민’으로 고쳤다. 그는 백성이 가르쳐야 할 대상인 동시에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가르침에 치중한 ‘신’보다는 ‘친’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약용은 왕양명이 ‘명덕’을 마음의 밝은 능력으로 해석한 점을 지적하면서, 왕양명이 ‘명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친민’ 또한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 ① 왕양명과 정약용은 ‘명덕’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였다.
- ② 정약용은 왕양명의 ‘명덕’ 해석이 주희와 다르다고 보았다.
- ③ 왕양명의 ‘친민’ 해석은 주희가 아닌 정약용의 해석과 일치한다.
- ④ 왕양명과 정약용은 고본 □대학□의 ‘친민’을 수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⑤ 왕양명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친 주희의 해석이 백성을 가르침의 대상으로 한정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19. 문맥상 ㉡~㉥을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인도(引導)해야
- ② ㉢ : 지시(指示)해야
- ③ ㉣ : 개편(改編)했다
- ④ ㉤ : 도착(到着)할
- ⑤ ㉥ : 쇄신(刷新)하고자

[20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9월 B형

20세기 미술의 특징은 무한한 다원성에 있다. 어떤 내용을 어떤 재료와 어떤 형식으로 작품화건 미술적 창조로 인정되고, 심지어 창작 행위가 가해지지 않은 것도 '작품'의 자격을 얻을 수 있어서, '미술'과 '미술 아닌 것'을 객관적으로 구분해 주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 단도의 '미술 종말론'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미학 이론 중 하나이다. 단어가 주는 부정적 어감과는 달리 미술의 '종말'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미술 작품이 될 수 있게 된 개방적이고 생산적인 상황을 뜻한다. 그런데 이러한 다원성은 전적으로 새로운 상황일까, 아니면 이전부터 이어져 온 하나의 흐름에 속할까?

작품의 형식과 내용이 전적으로 예술가의 주체적 선택에 달려있다는 관점에서만 보면, 20세기 미술의 양상은 아주 낯선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르네상스 때 시작된 화가의 서명은 작품이 외부의 주문에 따라 제작되더라도 그것의 정신적 저작권만큼은 예술가에게 있음을 알리는 행위였다. 이는 창조의 자유가 예술의 필수 조건이 되는 시대를 앞당겼다. 즉 미켈란젤로가 예수를 건장한 이탈리아 남성의 모습으로 그렸던 사례에서 보듯, 르네상스 화가들은 주문된 내용도 오직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미지화했다.

형식의 이러한 자율화는 내용의 자기 중심화로 이어졌다. 17세기의 네덜란드 화가들은 신이나 성인(聖人)을 그리던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 친근한 일상을 집중적으로 그리기 시작했고, 19세기 낭만주의에 와서는 내면의 무한한 표현이 예술의 생명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20세기 미술은 예술적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휘라는 일관된 흐름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도가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흐름과는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20세기만의 질적 차별성이다. 이전 시대까지는 '미술'과 '미술 아닌 것'의 구분은 '무엇을 그리는가?' 또는 '어떻게 그리는가?'의 문제, 곧 내용[형식]재료처럼 지각 가능한 '전시적 요소'에 의존하여 가능했다. 반면, 20세기에는 빈 캔버스, 자연물, 기성품 등도 '작품'으로 인정되는 데에서 보듯, 전시적 요소로는 더 이상 그러한 구분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제 ㉡ 그러한 구분은 대상이 어떤 것이든 그것에 미술 작품의 자격을 부여하는 지적인 행위, 곧 작품 밖의 '비전시적 요소'에 의존할 따름이다. 현대 미술이 미술의 개념 자체를 묻는 일종의 철학이 되고, 작품의 생산과 감상을 매개하는 이론적 행위로서 비평의 중요성이 부각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명의 시작은 주문에 따른 제작에서도 예술가의 주체성을 표출한 사건이었다.
- ② 예술가의 자율적인 이미지 창출은 르네상스 이전부터 보편적이었다.
- ③ 형식의 자율화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들로부터 비롯되었다.
- ④ 현대 미술에서는 내용과 형식이 작품의 자격을 결정한다.
- ⑤ 현대 미술에서는 비평이 전시적 요소를 결정한다.

21. ㉠에 따라 '20세기 미술'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에 비해 예술가의 자율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표출된다.
- ② 자연 그대로의 사물을 전시하는 것도 작품 창작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③ 미술을 정의하는 기준이 해체되어 예술 작품 생산이 정체 상태에 이르렀다.
- ④ 미술사적 관점에서 볼 때 과거와의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본질적이다.
- ⑤ 과거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도 미술적 창조로 인정될 수 있다.

22.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뒤샹의 <샘>은 소변기에 서명을 하여 전시함으로써 일상품도 이론적 해석에 따라 미술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작품이다.
- ② 브라크의 <과일 접시와 유리잔>은 그림에 벽지를 덧붙여 회화를 3차원화함으로써 회화는 2차원적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작품이다.
- ③ 폴록의 <1950년 32번>은 캔버스에 물감을 붓거나 떨어뜨려 즉흥적 이미지를 창출함으로써 창조적 무의식과 초현실 세계의 표현을 시도한 작품이다.
- ④ 칸딘스키의 <컴퍼지션 VII>은 구체적인 대상의 묘사 대신 추상적인 색[선]형태만으로 작가의 내면을 표현함으로써 순수 이미지의 언어적 가능성을 모색한 작품이다.
- ⑤ 몬드리안의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는 수많은 네모 무늬로 수직[수평]의 율동적 흐름을 창출함으로써 뉴욕의 활기찬 생활과 음악적 리듬감의 표현을 추구한 작품이다.

[23~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9월 B형

회전 운동을 하는 물체는 외부로부터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 운동을 유지하는데, 이를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라 한다. 각운동량은 질량이 m 인 작은 알갱이가 회전축으로부터 r 만큼 떨어져 속도 v 로 운동하고 있을 때 $mv r$ 로 표현된다. 그런데 회전하는 물체에 회전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거나 마찰 또는 공기 저항이 작용하게 되면, 회전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이 변화하여 회전 속도는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된다.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을 변화시키는 힘을 돌림힘이라고 한다.

그러면 팽이와 같은 물체의 각운동량은 어떻게 표현할까? 아주 작은 균일한 알갱이들로 팽이가 이루어졌다고 볼 때, 이 알갱이 하나하나를 질량 요소라고 한다. 이 질량 요소 각각의 각운동량의 총합이 팽이 전체의 각운동량에 해당한다. 회전 운동에서 물체의 각운동량은 (각속도) \times (회전 관성)으로 나타낸다. 여기에서 각속도는 회전 운동에서 물체가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이다. 질량이 직선 운동에서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듯이, 회전 관성은 회전 운동에서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낸다. 즉, 회전체의 회전 관성이 클수록 그것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회전체의 회전 관성은 회전체를 구성하는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의 합과 같은데,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은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그러므로 질량이 같은 두 팽이가 있을 때 훌쭉하고 키가 큰 팽이보다 넓적하고 키가 작은 팽이가 회전 관성이 크다.

각운동량 보존의 원리는 스포츠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피겨 선수에게 공중 회전수는 중요한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중회전을 하는 동안 각속도를 크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겨 선수가 공중에서 팔을 몸에 바짝 붙인 상태로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피겨 선수의 회전 관성은 몸을 이루는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의 합과 같다. 따라서 팔을 몸에 붙이면 팔을 구성하는 질량 요소들이 회전축에 가까워져서 팔을 펼 때보다 몸 전체의 회전 관성이 줄어들게 된다. 점프 이후에 공중에서 각운동량은 보존되기 때문에 팔을 붙였을 때가 펼 때보다 각속도가 커지는 것이다. 반대로 착지 직전에는 각속도를 줄여 착지 실수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양팔을 한껏 펼쳐 회전 관성을 크게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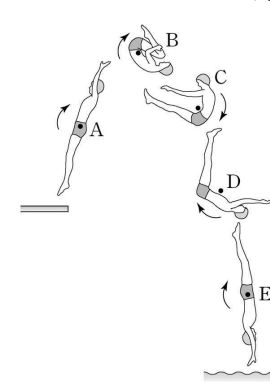
23. 뒷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회전 관성이 클수록 회전시키기 쉽다.
- ② 회전하는 팽이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돌림힘의 작용 없이 회전을 멈출 수 있다.
- ③ 지면과의 마찰은 회전하는 팽이의 회전 관성을 작게 만들어 팽이의 각운동량을 줄여들게 한다.
- ④ 크기와 질량이 동일한, 속이 빈 쇠공과 속이 찬 플라스틱 공이 자전할 때 회전 관성은 쇠공이 더 크다.
- ⑤ 회전하는 하나의 시곗바늘 위의 두 점 중 회전축에 가까이 있는 점이 멀리 있는 점보다 각속도가 작다.

24.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다이빙 선수가 발판에서 점프하여 공중회전하며 A~E 단계를 거쳐 1.5 바퀴 회전하여 입수하고 있다. 여기에서 검은 점은 회전 운동의 회전축을 나타내며 회전 운동은 화살표 방향으로만 진행된다. 단, 다이빙 선수가 공중에 머무는 동안은 외부에서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 ① A보다 B에서 다이빙 선수의 각운동량이 더 크겠군.
- ② B보다 D에서 다이빙 선수의 질량 요소들의 합은 더 작겠군.
- ③ A~E의 다섯 단계 중 B 단계에서 다이빙 선수는 가장 작은 각속도를 갖겠군.
- ④ C에서 E로 진행함에 따라 다이빙 선수의 팔과 다리가 펼쳐지면서 회전 관성이 작아지겠군.
- ⑤ B 단계부터 같은 자세로 회전 운동을 계속하여 입수한다면 다이빙 선수는 1.5 바퀴보다 더 많이 회전하겠군.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0월 A형

인간의 삶에서 고통의 의미를 찾기 위한 질문은 계속되어 왔다. 이에 대한 철학적 해답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변신론(辯神論)이다. 변신론이란 무고한 자의 고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이 정의로움을 보여주고자 하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고통은 선을 더 두드러지게 하고 더 큰 선에 기여하므로, 부분으로서의 고통은 전체로서는 선이 된다. 응보론적 관점에서 고통을 죄의 대가로 보거나, 종교적 관점에서 고통이 영혼의 성숙을 위한 시련이라고 보는 설명들도 모두 넓게는 변신론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레비나스는 20세기까지 사람들을 지배해 온 변신론적 사고가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아우슈비츠 대학살 등 비극적인 사건들로 인해 경험적으로 이미 그 설득력을 잃었다고 본다. 죄 없는 수백만 명이 학살당하는 처참한 현실 앞에서, 선을 위한다는 논리로 고통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그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가 보기에 고통은 고통 그 자체로는 어떠한 쓸모도 없는 부정적인 것이며 고독한 경험에 불과하다.

이에 레비나스는 고통으로부터 주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포착해 낸다. 그에 따르면, 일차적으로 인간은 음식, 공기, 잠, 노동, 이념 등을 즐기고 누리는 즉 '향유'하는 주체이다. 음식을 먹고 음악을 즐길 때 향유의 주체는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존재한다. 레비나스는 이 같은 존재의 틀을 어떻게 넘어서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었으며, 개별적 존재의 견고한 옹벽에 틈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고통에서 발견한다. 고통 받는 자는 강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자연히 신음하고 울부짖게 되는데, 여기서 타인의 도움에 대한 근원적 요청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 응답하여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의 향유를 포기할 때, 비로소 타인에 대한 관계, 즉 인간 상호 간의 윤리적 전망이 열리게 된다. 이를 통해 인간은 '향유의 주체'를 넘어 타인을 향한 '책임의 주체'로 전환될 수 있다.

고통 받는 자가 '외부의 폭력'에 무력하게 노출된 채 나에게 도덕적 호소력으로 다가오는 윤리적 사건을 레비나스는 '타인의 얼굴'이라고 부른다. '타인의 얼굴'은 존재 자체를 통해 나에게 호소하고 윤리적 의무를 일깨운다. 나는 이러한 의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를 '환대'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타인에 대한 나의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감성이다. 타인의 호소에 직접 노출되어 흔들리고 영향을 받는 것은 감성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바로 이곳이 레비나스의 윤리학이 기존의 이성 중심의 윤리학과 구분되는 지점이 된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변신론에 따르면 고통은 선에 기여한다.
- ② 레비나스의 윤리학에서는 감성의 역할을 중시한다.
- ③ 응보론적 관점에서는 고통을 죄의 대가로 이해한다.
- ④ 레비나스는 개별적인 존재로서 자립할 것을 주장한다.
- ⑤ 레비나스는 변신론적 사고가 설득력을 잃었다고 본다.

2. <보기>를 활용해 레비나스의 견해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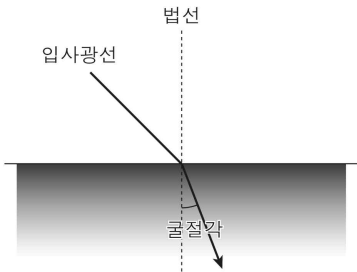
— < 보 기 > —

A 학생은 한겨울 밤 귀갓길에 극심한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인과 마주쳤다. A는 훌쩍의 옷만을 걸친 노숙인에게 몹시 안타까움을 느껴, 입고 있던 외투를 그에게 벗어 주고 추위에 떨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 ① 노숙인이 느낀 추위 자체는 '부정적이며 고독한 경험'이다.
- ② A는 도덕적 호소로 다가오는 '타인의 얼굴'에 직면한 것이다.
- ③ A는 '외부의 폭력'에 노출되어 '흔들리고 영향을 받은' 것이다.
- ④ A가 입고 있던 외투는 A가 '즐기고 누리던' 대상이다.
- ⑤ A는 노숙인의 고통이 일깨우는 윤리적 의무를 기꺼이 받아들여 그를 '환대'한 것이다.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0월 A형

빛이 어떤 물질을 통과하는 것을 투과라 한다. 오른쪽의 그림처럼 빛이 한 매질로부터 다른 매질로 들어갈 경우 빛은 입사광선과 입사점의 경계면에서 수직으로 세운 법선을 기준으로 꺾이게 되는데,



이를 굴절이라 한다. 이때 빛은 밀도가 작은 매질에서 큰 매질로 투과할 때는 가속하며 법선 쪽으로 꺾이지만, 밀도가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투과할 때에는 반대 방향으로 꺾인다. 대기권의 밀도가 우주 공간보다 크기 때문에 빛이 대기권에 진입할 때는 대기권 안으로 꺾여 들어온다.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밤에 보이는 별은 실제보다 높은 고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지구 대기는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그 위에 있는 상층 대기의 무게에 의해 압축되기 때문에, ㉠ 지표면에 가까워질수록 빛이 굴절되는 정도는 커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별빛은 지구 대기의 아래로 내려올수록 그 경로가 더 꺾이게 된다. 하지만 사람의 눈은 빛이 굴절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별빛이 어떤 방향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보이면, 별도 그 방향에 있는 것으로 인지하게 된다. 그래서 지상의 관측자는 별빛이 대기층에 들어올 때의 고도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별을 보게 되는 것이다. 굴절의 정도는 별의 위치가 지평선에 가까울수록 커져서, 수평 방향으로 들어오는 별빛의 경우에는 굴절각이 약 0.6°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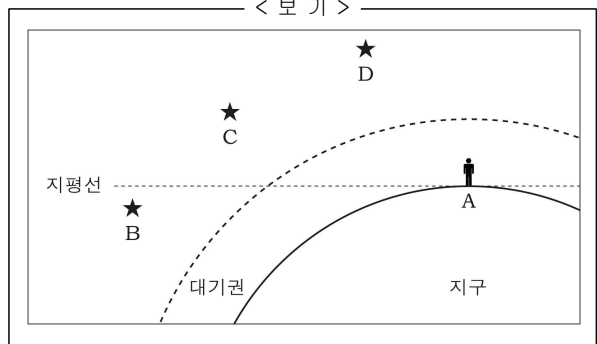
같은 원리로 태양도 실제보다 일찍 뜨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태양이 지평선과 이루는 각도가 4°일 때는 90°일 때보다 태양 빛은 12배나 더 두꺼운 대기층을 통과하게 되어, 일출 때 태양 빛의 굴절은 최대가 된다. 태양의 중심이 지평선을 통과하는 때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대략 2분 정도 더 빨리 뜨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반대로 일몰 때는 2분 정도 더 늦게 지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또한 일정한 밝기로 빛나는 별은 대기권에서의 빛의 굴절로 인해 우리 눈에는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빛은 밀도 차가 있는 대기층의 경계면에서 굴절해서 입사하지만, 각각의 대기층에서도 대기 상태가 안정되지 못하면 대기의 밀도가 고르지 못하게 되어 별빛은 지속적으로 상하좌우로 굴절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별이 일정하게 은은히 빛나지 못하고 계속 깜박거리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바람이 부는 날일수록 별이 더 반짝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3. 윗글의 집필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학적 원리를 통해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 ② 통용되고 있는 이론의 타당성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 ③ 이론과 실제 현상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해
- ④ 다양한 이론들 간의 상호 영향 관계를 밝혀 특정 이론의 우수성을 부각하기 위해
- ⑤ 기존의 과학적 견해가 새로운 견해에 의해 대체되면서 과학이 발전한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

4. 윗글과 <보기>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관측자 A가 대기권을 벗어난다면 지구에서보다 정확하게 별 C나 별 D의 방향을 인지할 수 있겠군.
- ② 별 B가 지평선 아래로 0.6°를 더 내려가더라도 관측자 A에게 보이겠군.
- ③ 대기가 불안정할수록 별 C와 별 D는 더 반짝이는 것으로 보이겠군.
- ④ 별 C보다 별 D가 실제 방향에 더 가깝게 보이겠군.
- ⑤ 대기의 밀도가 더 커진다면 별 C와 별 D는 더 높은 고도에 있는 것으로 보이겠군.

5.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구 표면에 가까울수록 지구 대기의 밀도는 커지기 때문에
- ② 지구 표면에서 멀어질수록 지구 대기가 안정되기 때문에
- ③ 지구 표면에 가까울수록 지구 대기의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 ④ 지구 표면의 대기 밀도가 작기 때문에
- ⑤ 지구 대기의 밀도가 변함없기 때문에

[6~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0월 A형 B형

영화에 제시되는 시각적 정보는 이미지 트랙에, 청각적 정보는 사운드 트랙에 ㉠ 실려 있다. 이 중 사운드 트랙에 담긴 영화 속 소리를 통틀어 영화 음향이라고 한다. 음향은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면서 영화의 장면을 적절히 표현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음향은 소리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화면 안에 음원이 있는 소리로서 주로 현장감을 높이는 소리를 ‘동시 음향’, 화면 밖에서 발생하여 보이지 않는 장면을 표현하는 소리를 ‘비동시 음향’이라고 한다. 한편 영화 속 현실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소리, 즉 배경 음악처럼 영화 밖에서 조작되어 들어온 소리를 ‘외재 음향’이라고 한다. 이와 달리 영화 속 현실에서 발생한 소리는 모두 ‘내재 음향’이다. 이러한 음향들은 감독의 표현 의도에 맞게 단독으로, 혹은 적절히 ㉡ 합쳐져 활용된다.

음향은 종종 인물의 생각이나 심리를 극적으로 제시하는 데 활용된다. 화면을 가득 채운 얼굴과 함께 인물의 목소리를 들려주면 인물의 속마음이 효과적으로 표현된다. 인물의 표정은 드러내지 않은 채 심장 소리만을 크게 들려줌으로써 인물의 불안정한 심정을 표현하는 예도 있다. 주인공의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가 관객에게 그대로 들릴 때, 관객은 자신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의도적으로 소리를 없앨 수도 있다. 이른바 ‘데드 트랙(Dead Track)’은 강렬한 인상의 음향만큼 효과적이다. 갑자기 의도적으로 소리를 제거한 영상이 나올 때, 관객은 주의를 집중하여 화면을 더 자세히 보게 된다. 이로써 인물이 처한 상황에 ㉢ 빠져들게 되어 인물의 심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음향은 장면을 자연스럽게 잇는 접착제로도 쓰인다. 뒷장면이 제시될 때까지 앞장면의 소리를 지속시키거나 앞장면의 끝부분부터 뒷장면의 음향을 미리 사용하면 장면 사이의 시간과 공간의 간극을 메울 수 있다. 장면과 장면의 소리가 ㉣ 겹쳐지게 할 수도 있다. 가령 아침에 알람 소리와 함께 시계로 손을 뺀 인물의 모습을 제시한 후, 오후에 전화벨 소리와 함께 전화기로 손을 뺀 동작을 보여주면 두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영화의 화면이 누군가의 얼굴이라면 음향은 그 사람의 목소리이다. 목소리를 듣지 않고 표정만으로는 그 내면을 온전히 알기 어렵듯, 음향이 빠진 화면만으로는 관객이 그 화면에 담긴 내적 의미를 ㉤ 알기 어렵다. 이처럼 음향은 영화의 장면 및 줄거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주제나 감독의 의도를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6.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숨겨진 원리를 탐색하고 있다.
- ② 대상의 유형과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 ③ 대상이 변화되어 온 양상을 기술하고 있다.
- ④ 대상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⑤ 대상의 다양한 속성을 분석한 후 서로 비교하고 있다.

7. 문맥상 ㉠~㉤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수록(收錄)되어 ② ㉡ : 결합(結合)되어
- ③ ㉢ : 몰입(沒入)하게 ④ ㉣ : 첨가(添加)되게
- ⑤ ㉤ : 파악(把握)하기

※ <보기>를 읽고 8번과 9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 보 기 >

A	<p>S#.21 △△시 A 빌딩 앞(낮)</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거리의 악사가 부르는 낯선 노래가 들려오는 외국 도시에 첫사랑을 찾아 온 남자. ◦ 빌딩을 올려다보며 그녀를 꼭 찾겠다는 결의에 찬 표정을 보인다.
B	<p>S#.22 △△시 도심(낮)</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옆에 걸어나가는 두 사람의 목소리와 거리의 자동차들 소리, 그리고 알 수 없는 소음들이 뒤섞여 시끄러운 거리에 있는 남자. ◦ ‘그녀가 아직도 나를 기억할까?’라는 생각에 몰두해 있다가 요란한 자동차 경적음에 깜짝 놀란다.
C	<p>S#.23 ○○시 도심(낮)</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경적음으로 시끄러운, 또 다른 도시의 거리에 있는 남자. ◦ 거리를 헤매다 순간 멈춰 서서 얼굴이 조금씩 일그러지기 시작하고, 점차 극도의 절망감을 드러낸다. 그리고 다시 힘없이 걸어간다.
D	<p>S#.24 ○○시 도심(저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늦은 저녁, 축 처진 어깨로 한적한 횡단보도 앞에서 있는 남자. ◦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는 첫사랑 그녀와 마주친다.

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내재 음향이면서 비동시 음향이다.
- ② ㉠과 ㉡은 모두 외재 음향이면서 비동시 음향이다.
- ③ ㉠과 ㉡은 모두 내재 음향이면서 동시 음향이다.
- ④ ㉠은 동시 음향이고, ㉡은 비동시 음향이다.
- ⑤ ㉠은 외재 음향이고, ㉡은 내재 음향이다.

9. 뒷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영화에 음향을 활용하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 결의에 찬 모습과 어울리는 배경 음악을 넣어 인물의 정서를 표현한다.
- ② B에 인물의 내레이션을 삽입하여 그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한다.
- ③ C에서 소리를 일시적으로 없애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오는 극도의 절망감에 관객이 빠져들게 한다.
- ④ A와 D에 동일한 배경 음악을 사용하여 공간의 동일성이 드러나게 한다.
- ⑤ B와 C에 유사한 자동차 경적음을 겹치게 하여 두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다.

[10 ~ 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0월 A형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투입량을 계속 늘려 나가면 어느 단계에 가서는 산출량의 증가율이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왔다. 이것을 '수확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곡물이나 철과 같은 재화가 중심이 되었던 산업 사회 경제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물론 투입 요소가 늘어남에 따라 산출량도 초기에는 늘어날 수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노동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도 많고, 노동의 조직화나 경영의 효율성도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수확 체감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수확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게 되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절한 선에서 생산 규모를 설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제품의 시장에는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여러 기업들이 들어와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좋은 제품을 좀 더 싼 가격에 내놓을 수 있는 기업이 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정보 기술 시대에 들어서면서 투입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산출량이 그 이상으로 증가하는 '수확 체증의 법칙'이 여러 산업 분야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생산의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산출물의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정보 기술 시대를 대표하는 정보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문화 산업, 서비스 산업 등은 초기 개발 비용은 많이 들지만 생산량이 증가해도 추가 비용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전형적인 수확 체증의 현상이 나타나는 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수확 체증의 현상은 이와 같은 공급의 측면뿐 아니라 수요의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수요 측면에서의 수확 체증 현상은 흔히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인해 생긴다. 네트워크 외부성이란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제품의 가치도 덩달아 커져서 그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게 대가 없이 의도치 않은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네트워크 외부성이 나타날 경우, 이미 시장을 선점한 기업은 제품의 생산을 계속 늘려가도 수확 체증의 법칙에 따라 이윤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처럼 수확 체증의 법칙이 작용하는 시장에서 기업은 시장 규모가 허락하는 선까지 생산 규모를 확대하면서, 경쟁 기업을 시장에서 완전히 몰아내려고 할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 외부성이 나타나면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상당히 유리한 지위를 갖게 되어, 신규 기업은 제품의 질이나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품질이나 가격에 의한 경쟁이 힘을 잃게 된다. 이 때문에 정보 기술 시대에는 산업 사회 시대의 방식에 따라 경제를 예측하고 설명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 평균 비용: 상품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10. 밑글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은?

- ① 수확 체감의 법칙이 나타나는 이유
- ② 정보 기술 시대를 대표하는 산업 분야
- ③ 정보 기술 관련 산업에서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
- ④ 산업 사회의 시장에서 경쟁이 일어나는 일반적인 양상
- ⑤ 산업 사회 시대의 방식으로 정보 기술 시대의 경제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

11.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 ㄱ제품의 평균 비용 곡선

(나) ㄴ제품의 평균 비용 곡선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A사의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만을 널리 사용해 왔다. 최근 B사는 성능이 훨씬 개선된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싸게 시장에 내놨지만 판매는 매우 부진했다.

- ① (가)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제품의 경우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절한 선에서 생산 규모를 설정하겠군.
- ② (나)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제품의 경우 시장 규모가 허락하는 선까지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겠군.
- ③ (다)에서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A사의 제품에는 '네트워크 외부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군.
- ④ (다)에서 A사의 제품에는 (나)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겠군.
- ⑤ (다)에서 B사 제품의 판매가 부진했던 이유는 (가)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겠군.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0월 A형

빅 데이터(Big Data)란 기존의 일반적인 기술로는 관리하기 곤란한 대량의 데이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특성은 데이터의 방대한 양과 다양성 및 데이터 발생의 높은 빈도로 요약된다. 이전과 달리 특수 학문 분야가 아닌 일상생활과 밀접한 환경에서도 엄청난 분량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달로 이전보다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대량의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졌다. 또한 이를 분석하여 유용한 규칙이나 패턴을 발견하고 다양한 예측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빅 데이터 처리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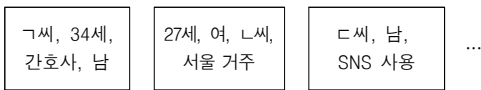
이러한 빅 데이터의 처리 및 분류와 관계된 기술에는 NoSQL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 처리 기술이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RDBMS)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RDBMS에서는 특정 기준이 제시된 데이터 테이블을 구성하고 이 기준을 속성으로 갖는 정형적 데이터를 다룬다. 고정성이 중요한 시스템이므로 상호 합의된 데이터 테이블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추가, 삭제하거나 변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데이터 간의 일관성과 정합성이 유지될 것을 요구하므로 데이터의 변동 사항은 즉각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그림 1>은 RDBMS를 기반으로 은행들 간의 상호 연동되는 데이터를 정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 테이블의 가상 사례이다.

한예금 씨의 A 은행 거래내역

㉠	거래일자	입금액	출금액	잔액	거래내용	기록사항	거래점
㉡	2013.10.08.	30,000		61,217	이체	나저축	B 은행
㉢	2013.10.09.		55,000	6,217	자동납부	전화료	A 은행
㉣							

<그림 1> RDBMS에 의해 구성된 데이터 테이블의 예

NoSQL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특정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비정형적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시스템에서는 선형으로 데이터의 특성을 나열하여 정리하는 방식을 통해 데이터의 속성을 모두 반영하여 처리한다. <그림 2>는 NoSQL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자료를 다루는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A]

행 = 1, 이름 = ㄱ씨, 나이 = 34세, 직업 = 간호사, 성별 = 남
행 = 2, 나이 = 27세, 성별 = 여, 이름 = ㄴ씨, 거주지 = 서울
행 = 3, 이름 = ㄷ씨, 성별 = 남, SNS = 사용

<그림 2> NoSQL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 처리의 예

<그림 2>에서는 '이름=', '나이=', '직업='과 같이 데이터의 속성을 표시하는 기준을 같은 행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데이터의 다양한 속성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처리된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데이터와 관련된 정보의 변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이러한 변화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지닌다.

*정합성 : 논리적 모순이 없는 성질이나 상태.

12. 윗글의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빅 데이터 개념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 ② 빅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을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빅 데이터가 활용되는 유형을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④ 다양한 사례를 들어 빅 데이터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빅 데이터의 중요성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1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행에 제시된 것은 은행 거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기준이다.
- ② ㉠행의 각 항목은 'A 은행'의 개별 지점에서 임의로 변경하기 어렵다.
- ③ ㉡행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데이터는 '나저축'의 'B 은행 데이터베이스'에도 즉시 반영된다.
- ④ ㉢행과 ㉣행의 데이터는 특정 기준을 속성으로 갖는 정형적 데이터이다.
- ⑤ ㉣행에 기준과 다른 항목을 지닌 데이터가 올 경우 ㉠행의 기준을 즉시 변경하여 데이터를 처리한다.

14. [A]에 'ㄱ씨의 취미는 독서이다.'라는 정보를 추가하고자 한다. 윗글에 비추어 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행의 '성별 = 남' 다음에 '취미 = 독서'를 기록한다.
- ② 1행과 2행 사이에 행을 삽입하여 '취미 = 독서'를 기록한다.
- ③ 3행 다음에 행을 추가하여 '행 = 4, 이름 = ㄱ씨, 취미 = 독서'를 기록한다.
- ④ 기준에 맞는 데이터 테이블을 구성하여 해당란에 '독서'를 기록한다.
- ⑤ 1행에 '독서'라는 속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므로 기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15~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0월 B형

(가) 정약용 유학 사상의 핵심은 ㉠ 주체의 자유의지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측은지심(惻隱之心)처럼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 도덕 감정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주체의 자율적 의지나 결단을 통해서만 도덕 감정도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나) 선천적인 도덕 감정을 긍정한다는 점에서 정약용은 주체의 논의를 수용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 자체를 선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는 주체로부터 벗어나 있다.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 인간에게는 항상 측은지심이라는 동정심이 생기는데, 주희는 이 측은지심이 인간 본성의 실현이라고 강조한다. ㉢ 따라서 그에게는 측은지심이 마지막 결과이고 인간 본성이 원인이 되는 셈이다. ㉣ 이와 달리 정약용은 측은지심을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윤리적 행위의 처음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주체로부터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바로 ㉤ 이 지점이다.

(다) 정약용은 인간의 마음을 세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성, 권형, 행사가 그것이다. 우선 본성은 인간만이 가진 도덕 감정으로 천명지성(天命之性), 즉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윤리적 경향을 말한다. 권형은 마치 소용돌이치는 물과 같이 선과 악이 섞여 있는 갈등상태에서, 주체적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말한다. 행사는 주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자신의 선택을 행하는 것이다. 즉 선을 좋아하는 경향에 따른 실천을 말한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의 제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이고 욕망에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본성이 아무리 선을 좋아하더라도, 실제로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라) ㉥ 가령 우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구하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죽는다면 선과 악이 무슨 의미가 있는냐고 하면서, 아이를 구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약용은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도덕 감정으로서의 본성이 그대로 기능하는 '도심(道心)'이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마음을 자신의 육체적 안위를 우선시하는 '인심(人心)'이라 부른다. 이와 같은 도심과 인심 중에서 주체는 확고하게 도심을 따라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마) 정약용은 측은지심과 같은 도덕 감정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 다만 그 감정은 윤리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그 도덕 감정이 실천에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학 전통에서 정약용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주체의 실천과 관련된 자유의지를 강조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이를 통해 주희가 강조한 내면적 수양을 넘어, 유학을 실천적 책임의 윤리학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

15. (가)~(마)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정약용 유학 사상의 핵심 내용
- ② (나): 정약용 유학 사상의 발전 과정
- ③ (다): 정약용이 주장하는 마음의 세 가지 차원
- ④ (라): 주체가 따라야 할 마음에 대한 정약용의 입장
- ⑤ (마): 유학의 전통에서 정약용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

16. ㉠에 대해, 주희와 차별되는 정약용의 견해로 옳은 것은?

- ①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 ② 주체가 자유의지를 갖게 만든다.
- ③ 주체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다.
- ④ 선과 악 사이에서 항상 선을 택하게 한다.
- ⑤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다.

17. 정약용의 관점에서 <보기>의 상황에 대해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화재로 건물 전체가 붕괴될 상황에서 대피하던 '갑', '을'은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부상당한 '병'을 발견한다. 두 사람은 '병'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잠시 후 건물 붕괴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자 갈등에 빠진다. '갑'은 결국 생존자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대피하고, '을'만이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남는다.

- ① '갑'과 '을'이 대피하던 중에 부상당한 '병'을 발견한 것은 도덕 감정에 따른 '행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갑'과 '을'이 부상당한 '병'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 것은 본성적으로 선을 좋아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 ③ '갑'과 '을'이 사이렌을 듣고 난 후, 갈등 속에서 결단에 이르는 과정은 '권형'의 차원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 ④ '을'이 자기 생명을 우선시하게 되는 육체의 제약을 극복하고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남은 것은 '도심'에 따른 선한 행위이다.
- ⑤ '갑'이 자신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피한 것은 '인심'에 따른 행위로 볼 수 있다.

18. 문맥과 독서 표지의 성격을 고려할 때, ㉠~㉣를 활용한 독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문맥상 이 글의 핵심어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에 주목하면서 읽어야겠어.
- ② ㉡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 이유, 근거가 됨을 보여주는 표지이므로, ㉡의 앞뒤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판단해 보아야겠어.
- ③ ㉢는 서로 상반된 내용을 연결하는 표지이므로, ㉢의 앞뒤의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아야겠어.
- ④ ㉣는 앞에 나온 내용을 대신하는 지시어이므로, ㉣가 앞의 내용 중에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찾아보아야겠어.
- ⑤ ㉤는 뒤에 가정된 상황을 제시한다는 표지이므로, ㉤의 뒤에 나오는 내용 중 가정된 상황과 실제 사실을 잘 구분해서 읽어야겠어.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0월 B형

공동체의 안전 및 질서 유지와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 작용을 '경찰작용'이라 한다. 경찰작용이 발동되면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불가피하게 제한하게 되기 때문에 그 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경찰작용 발동의 가장 대표적인 요건으로 '위험'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위험이란 예측되는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경찰작용의 발동 요건으로서의 위험은 '손해'와 '손해 발생의 충분한 개연성'을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한다.

그렇다면 '손해'와 '손해 발생의 충분한 개연성'이란 무엇인가? '손해'란 개인 및 공동의 이익이 외부적 영향에 의해 객관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손해는 단순한 불이익이나 부담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단순한 불이익이나 부담이 정상인이 참을 수 있는 범위의 것이라면, 경찰작용이 발동되기 위한 요건인 손해는 정상인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손해 발생의 충분한 개연성'이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고도의 가능성을 말한다. 만일 누군가가 묵지 않은 개를 데리고 공원을 활보한다면 타인에게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작용이 발동될 수 있다. 이러한 손해 발생의 개연성에 관한 예측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경찰작용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행사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된다. 그런 이유로 경찰작용의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경찰작용 행사를 제한하는 일반적인 원칙에는 적법절차의 원칙, 비례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우선 적법절차의 원칙이란 모든 경찰작용의 행사는 법률을 근거로 하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면허를 주는 운전면허와 같은 각종 허가 제도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비례의 원칙이란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公益)과 그로 인해 훼손되는 사익(私益)을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에만 경찰작용이 허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자의 경우에 면허를 취소할 때 얻는 공익이 면허를 취소하지 않을 때의 운전자 사익보다 크기 때문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경찰작용이 법에서 정해진 위험 방지 작용의 테두리를 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만일 영업허가 취소권을 가진 공무원이 친분 관계에 있는 영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와 경쟁하는 다른 영업자의 영업을 취소한다면 이는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

19.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손해를 관련 개념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 ② 경찰작용 행사의 제한 원칙을 나열하고 있다.
- ③ 경찰작용에 관한 상반된 관점을 대조하고 있다.
- ④ 경찰작용의 제한 원칙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⑤ 위험을 구성하는 요소를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찰작용은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예측해야 한다.
- ② 경찰작용의 근거가 되는 손해에 대한 판단은 정상인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③ 손해란 외부의 영향으로 공동의 이익이 감소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 ④ 경찰작용은 단순한 불이익이나 부담이 있어도 발동해야 한다.
- ⑤ 경찰작용은 공익이 훼손되는 특정한 범위에만 한정된다.

21.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에 대해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갑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위치한 유충업소의 영업을 위해 해당 교육장에게 '학교 주변의 유충업소 영업 행위 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교육장은 '학교보건법'에 의거하여, 인근 학교장에게서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받고 심의를 거쳤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 교육장은 갑의 유충업소가 학습 환경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갑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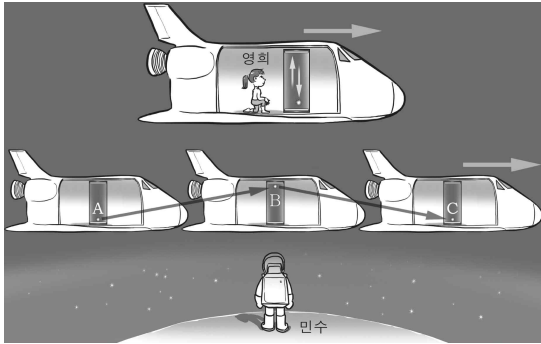
- ① 교육장이 갑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갑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 아니다.
- ② 교육장이 학교보건법에 의거하여 갑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 ③ 교육장이 인근 학교장의 의견을 받고 심의 과정을 거친 것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다.
- ④ 교육장이 갑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유충업소가 학습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 ⑤ 교육장이 갑의 사익보다 유충업소 영업으로 인한 학습 환경 저해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비례의 원칙에 의한 것이다.

[22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0월 B형

현대 물리학에서 시간의 특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창안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이다. 그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시간과 공간이 사슬처럼 서로 맞물려 있다고 가정했다. 여기서 '특수'라는 말은 '특별하다'는 뜻보다는 매우 한정된 경우, 즉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이론에서는 '빛의 속도는 우주 어디서나 동일한 상수 c 이다.'라는 전제 조건을 설정한다. 만일 당신이 자동차를 타고 시속 100킬로미터로 달리다가 차의 전조등을 켜면, 그 빛의 속도는 시속 100킬로미터 + c 가 아니라 여전히 c 라는 것이다. 즉, 빛의 속도는 광원이나 관측자의 운동 상태와 무관한 범우 주적 상수이다.

빛의 속도의 불변성으로부터 얻어지는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시간의 흐름이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이동하는 우주선 내부에서 영희가 빛 시계를 관찰하고, 민수는 정지해 있는 행성에서 이 우주선의 빛 시계를 관찰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여기서 빛 시계란 거울을 사이에 두고 빛이 왕복하도록 만든 가상의 시계를 말한다. 만일 우주선 내부에 있는 영희가 보는 빛 시계에서 빛이 한 번 왕복을 했다고 할 때, 행성에 있는 민수의 눈에는 그 빛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일까?



빛 시계에서 빛이 한 번 상하로 왕복할 때 민수의 눈에는 그 빛이 우주선과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관찰될 것이다. 이때 빛은 A → B → C의 경로로 움직이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영희가 관찰한 것보다 더 긴 거리를 이동한 셈이 된다. 특수 상대성 이론의 전제 조건에 따르면 빛의 속도는 일정하므로 민수는 우주선의 빛 시계가 한 번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을 영희보다 더 길게 측정하게 된다. 따라서 정지한 관찰자가 운동하는 관찰자를 보면 상대편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으로 관찰되는데, 이것을 시간의 팽창이라고 한다. 이러한 시간 팽창 효과는 물체의 속도가 광속에 견줄 만큼 빨라야 눈에 띄게 나타난다.

2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특수 상대성 이론은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가 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②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는 우주 어디서나 동일하다.
- ③ 특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의 상호 연관성을 전제한다.
- ④ 시간의 팽창 현상은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 ⑤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시간의 흐름은 상대적이다.

23. 윗글로 보아,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1971년 물리학자 조지프 하펠과 리처드 키팅은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을 다음과 같은 실험으로 증명하였다. 우선 초정밀 원자시계 8개를 준비하여 4개는 점보제트기에 실어 지구를 떠다니게 하고, 나머지 4개는 이것과 비교하기 위해 관측소에 남겨 놓았다. 이들 동안의 여행을 마친 점보제트기가 착륙한 후 이를 기다리던 과학자들은 탄성을 질렀다. 왜냐하면 ㉠

- ① 비행기에 실은 원자시계들이 관측소의 원자시계와 시간이 같았기 때문이다.
- ② 비행기에 실은 원자시계들이 출발할 때와 달리 모두 멈춰 있었기 때문이다.
- ③ 비행기에 실은 원자시계 4개가 모두 서로 다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 ④ 비행기에 실은 원자시계들이 관측소의 원자시계보다 빨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 ⑤ 비행기에 실은 원자시계들이 관측소의 원자시계보다 느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수능 A형

19세기 중반 화학자 분젠은 불꽃 반응에서 나타나는 물질 고유의 불꽃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버너 불꽃의 색을 제거한 개선된 버너를 고안함으로써 물질의 불꽃색을 더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두 종류 이상의 금속이 섞인 물질의 불꽃은 색깔이 겹쳐서 분간이 어려웠다. 이에 물리학자 ㉠키르히호프는 프리즘을 통한 분석을 제안했고 둘은 협력하여 불꽃의 색을 분리시키는 분광 분석법을 창안했다. 이것은 과학사에 길이 남을 업적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불꽃 반응에서 나오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 띠 모양으로 분산시킨 후 망원경을 통해 이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빛이 띠 모양으로 분산되는 것은 빛이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하는 각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방법을 통해 그들은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의 스펙트럼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그것들을 함유한 화합물들을 찾아내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특정한 금속의 스펙트럼에서 띄엄띄엄 떨어진 밝은 선의 위치는 그 금속이 흡원소로 존재하던 다른 원소와 결합하여 존재하던 불꽃의 온도에 상관없이 항상 같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분석 화학의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확하게 화합물의 원소를 판별해 내는 분광 분석법이 탄생하였다. 이 방법의 유효성은 그들이 새로운 금속 원소인 세슘과 루비듐을 발견함으로써 입증되었다.

1859년 키르히호프는 이 방법을 천문학 분야로까지 확장하였다. 그는 불꽃 반응 실험에서 관찰한 나트륨 스펙트럼의 두 개의 인접한 밝은 선과 1810년대 프라운호퍼가 프리즘을 이용하여 태양빛의 스펙트럼에서 발견한 검은 선들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태양빛의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는 태양빛의 스펙트럼의 검은 선들 중에서 프라운호퍼의 D선이 나트륨 고유의 밝은 선들과 같은 파장에서 겹쳐지는 것을 확인하고, D선은 태양에서 비교적 차가운 부분인 태양 대기 중에 존재하는 나트륨 때문에 생긴다고 해석했다. 이것은 태양 대기 중의 나트륨이 태양의 더 뜨거운 부분에서 나오는 빛 가운데 D선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들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태양빛의 스펙트럼을 보면 D선 이외에도 차가운 태양 대기 중의 특정 원소에 의해 흡수된 빛의 파장 위치에 검은 선들이 나타난다. 이 검은 선들은 그 특정 원소가 불꽃 반응에서 나타내는 스펙트럼 상의 밝은 선들과 나타나는 위치가 동일하다.

이후 이러한 원리의 적용을 통해 철과 헬륨 같은 다른 원소들도 태양 대기 중에 존재함이 밝혀졌으며 다른 항성을 연구하는 데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었다. 이를 두고 동료 과학자들은 물리학, 화학, 천문학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분광 분석법이 천체 대기의 화학적 조성을 밝혀냄으로써 우주의 통일성을 드러내었고 우주의 모든 곳에 존재하는 자연의 원리를 인식하게 하는 데 공헌했다고 평가했다.

1. 뒷글을 바탕으로 할 때, ㉠의 업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분석 화학 방법을 확립하였다.
- ② 태양빛의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존재함을 알아내었다.
- ③ 물질을 불꽃에 넣으면 독특한 불꽃색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 ④ 프리즘을 이용하여 태양빛의 스펙트럼을 얻는 방법을 창안하였다.
- ⑤ 천체에 가지 않고도 그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2.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루비듐의 존재는 분광 분석법이 출현하기 전에 확인되었다.
- ② 빛을 프리즘을 통해 분산시키면 빛의 파장이 길수록 굴절하는 각이 커진다.
- ③ 금속 원소 스펙트럼의 밝은 선의 위치는 불꽃의 온도를 높여도 변하지 않는다.
- ④ 철이 태양 대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나트륨이 태양 대기에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먼저 밝혀졌다.
- ⑤ 분젠은 두 종류 이상의 금속이 섞인 물질에서 나오는 각각의 불꽃색이 겹치는 현상을 막아 주는 버너를 고안하였다.

3.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우리 은하의 어떤 항성 α 와 β 의 별빛 스펙트럼을 살펴보니 많은 검은 선들을 볼 수 있었다. 이것들을 나트륨, 리튬의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과 비교했을 때, 나트륨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은 각각의 파장에서 항성 β 의 검은 선들과 겹쳐졌으나, 항성 α 의 검은 선들과는 겹쳐지지 않았다. 리튬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은 각각의 파장에서 항성 α 의 검은 선들과 겹쳐졌으나 항성 β 의 검은 선들과는 겹쳐지지 않았다.

- ① 항성 α 는 태양이 아니겠군.
- ② 항성 α 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리튬이 빛을 흡수해서 생긴 검은 선들이 있겠군.
- ③ 항성 β 에는 리튬이 존재하지 않겠군.
- ④ 항성 β 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D선과 일치하는 검은 선들이 없겠군.
- ⑤ 항성 β 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특정한 파장의 빛이 흡수되어 생긴 검은 선들이 있겠군.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수능 A형

선암사(仙巖寺) 가는 길에는 독특한 미감을 자아내는 돌다리인 승선교(昇仙橋)가 있다. 승선교는 번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의 경계로서 옛사람들은 산사에 이르기 위해 이 다리를 건너야 했다. 승선교는 가운데에 무지개 모양의 홍예(虹霓)를 세우고 그 좌우에 석축을 쌓아 올린 홍예다리로서, 계곡을 가로질러 산길을 이어 준다.

홍예는 위로부터 받는 하중을 좌우의 아래쪽으로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구조적 안정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동서양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홍예를 세우는 과정은 홍예 모양의 목조로 된 가설틀을 세우고, 그 위로 홍예석을 쌓아 올려 홍예가 완전히 세워지면, 가설틀을 해체하는 순으로 이루어진다. 홍예는 장대석(長臺石)의 단면을 사다리꼴로 잘 다듬어, 바닥에서부터 상부 가운데를 향해 차곡차곡 반원형으로 쌓아 올린다. 모나고 단단한 돌들이 모여 반원형의 구조물로 탈바꿈함으로써 부드러운 곡선미를 형성한다. 또한 홍예석들은 서로를 단단하게 지지해 주기 때문에 특별한 접착 물질로 돌과 돌을 이어 붙이지 않았음에도 ㉡견고하게 서 있다.

승선교는 이러한 홍예와 더불어, 홍예 좌우와 위쪽 일부에 주위의 막돌을 쌓아 올려 석축을 세웠는데 이로써 승선교는 온전한 다리의 형상을 갖게 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의 일부가 된다. 층의 구분이 없이 무질서하게 쌓인 듯 보이는 석축은 잘 다듬어진 홍예석과 대비가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변화감 있는 조화미를 이룬다. 한편 승선교의 홍예 천장에는 용머리 모양의 장식 돌이 물길을 향해 ㉢돌출되어 있다. 이런 장식은 용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물로부터 화를 입을 것을 ㉣방지한다고 여겨 만든 것이다.



계곡 아래쪽에서 멀찌감치 승선교를 바라보자. 계곡 위쪽에 있는 강선루(降仙樓)와 산자락이 승선교 홍예의 반원을 통해 초점화되어 보인다. 또한 녹음이 우거지고 물이 많은 계절에는 다리의 홍예가 잔잔하게 흐르는 물 위에 비친 홍예 그림자와 이어져 원 모양을 이루고 주변의 수목들의 그림자도 수면에 비친다. 이렇게 승선교와 주변 경관은 서로 어우러지며 극적인 합일을 이룬다. 승선교와 주변 경관이 만들어 내는 아름다움은 계절마다 그 모습을 바꿔 가며 다채롭게 드러난다.

승선교는 뭇사람들이 산사로 가기 위해 계곡을 건너가는 길목에 세운 다리다. 그러기에 호사스러운 치장이나 장식을 할 까닭은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다리가 아름다운 것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옛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미의식이 반영된 덕택이다. 승선교가 오늘날 세사의 번잡함에 지친 우리에게 자연의 소박하고 조화로운 미감을 ㉤선사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홍예석들은 접착제로 이어 붙여서 서로를 단단하게 지지한다.
- ② 홍예와 그 물그림자가 어우러져 생긴 원은 승선교의 미감을 형성한다.
- ③ 홍예는 조상들의 미의식이 잘 드러나는 우리나라 특유의 건축 구조이다.
- ④ 홍예는 사다리꼴 모양의 목조로 된 가설틀을 활용하여 홍예석을 쌓아 만든다.
- ⑤ 승선교의 하중은 상부 홍예석에 집중됨으로써 그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된다.

5. 윗글의 ‘승선교’와 <보기>의 ‘옥천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옥천교(玉川橋)는 창경궁(昌慶宮)의 궁궐 정문과 정전 사이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금천(禁川) 위에 놓여 있다. 이 다리는 지엄한 왕의 공간과 궁궐 내의 일상적 공간을 구획하는 경계였고 임금과 임금에게 허락받은 자들만이 건널 수 있었다. 옥천교는 두 개의 홍예를 이어 붙이고 홍예와 석축은 모두 미려하게 다듬은 돌로 쌓았다. 또 다리 난간에는 갖가지 조각을 장식해 전체적으로 장중한 화려함을 드러내었다. 두 홍예 사이의 석축에는 금천 바깥의 사악한 기운이 다리를 건너 안으로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개비 형상을 조각했다.

- ① 승선교와 달리 옥천교는 통행할 수 있는 대상에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권위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는 통로이겠군.
- ② 승선교와 달리 옥천교는 다듬은 돌만을 재료로 사용하고 난간에 조각 장식을 더한 것으로 보아, 장엄함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겠군.
- ③ 옥천교와 달리 승선교는 계곡 사이를 이어 통행로를 만든 것으로 보아, 자연의 난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④ 옥천교와 승선교는 모두 서로 다른 성격의 두 공간 사이에 놓인 것으로 보아, 이질적인 공간의 경계이겠군.
- ⑤ 옥천교와 승선교는 모두 재앙을 막기 위한 장식을 덧붙인 것으로 보아, 세속을 구원하고자 하는 종교적 의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6. 문맥상 ㉠~㉤을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쓰였다
- ② ㉡: 튼튼하게
- ③ ㉢: 튀어나와
- ④ ㉣: 그친다고
- ⑤ ㉤: 주는

[7~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수능 A형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를 펴내며 역사 연구의 기본 단위를 국가가 아닌 문명으로 설정했다. 그는 예를 들어 영국이 대륙과 떨어져 있을지라도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서로 영향을 미치며 발전해 왔으므로, 영국의 역사는 그 자체만으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서유럽 문명이라는 틀 안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문명 중심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가설들을 세웠다. 그리고 방대한 사료(史料)를 바탕으로 그 가설들을 검증하여 문명의 발생과 성장 그리고 쇠퇴 요인들을 규명하려 하였다.

토인비가 세운 가설들의 중심축은 ‘도전과 응전, 및 ‘창조적 소수와 대중의 모방’ 개념이다. 그에 의하면 환경의 도전에 대해 성공적으로 응전하는 인간 집단이 문명을 발생시키고 성장시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이 역경이라는 점이다. 인간의 창의적 행동은 역경을 당해 이를 이겨 내려는 분투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토인비는 이 가설이 단순하게 도전이 강력할수록 그 도전이 주는 자극의 강도가 커지고 응전의 효력도 이에 비례한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위 ‘세 가지 상호 관계의 비교’를 제시하여 이 가설을 보완하고 있다. 즉 도전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면 응전이 성공적일 수 없게 되며, 반대로 너무 작을 경우에는 전혀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최적의 도전에서만 성공적인 응전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성공적인 응전을 통해 나타난 문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즉 새로운 도전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토인비에 따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창조적 인물들이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수의 대중까지 힘을 결집해야 한다. 이때 대중은 일종의 사회적 훈련인 ‘모방’을 통해 그들의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모방은 모든 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문명을 발생시키지 못한 원시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 토인비는 모방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방의 작용 방향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문명을 발생시키지 못한 원시 사회에서 모방은 선조들과 구세대를 향한다. 그리고 죽은 선조들은 살아 있는 연장자의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그 권위를 강화해 준다. 그리하여 이 사회는 인습이 지배하게 되고 발전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대로 모방이 창조적 소수에게로 향하는 사회에서는 인습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문명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7. 뒷글에 나타난 ‘토인비의 견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문명은 최적의 도전에 대한 성공적 응전에서 나타난다.
- ② 모방의 존재 여부는 문명의 발생과 성장의 기준이 된다.
- ③ 역사는 국가를 기본 단위로 연구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환경의 도전이 강력할수록 그에 대한 응전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난다.
- ⑤ 선조에 기대어 기성세대의 권위가 강화되는 사회는 발전적 변화를 겪는다.

8.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빙하기가 끝나고 나서 세계 여러 지역의 기후는 크게 달라졌다. 서남아시아 일부 초원 지역의 경우는 급속히 사막화가 진행되었다. 이 지역에서 수렵 생활을 하던 이들은 세 가지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첫째 집단은 그대로 머물러 생활양식을 유지하며 겨우 생존만 하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 둘째 집단은 생활양식만을 변경하여 그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였다. 이들은 문명 단계에는 들어갔으나 더 이상의 발전이 없이 정체되고 말았다. 셋째 집단은 다른 지역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으로 이주한 다음, 농경 생활을 선택하여 새로운 고대 문명을 일구고 이어지는 문제들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갔다.

- ① 사막화는 서남아시아 일부 초원 지역 사람들이 당면했던 역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겠군.
- ② 첫째 집단에서는 모방이 작용하는 방향이 선조들과 구세대를 향했다고 보아야겠군.
- ③ 둘째 집단이 문명을 발생시킨 후 이 집단의 창조적 소수들이 계속된 새로운 도전들을 해결했다고 보아야겠군.
- ④ 셋째 집단에서는 창조적 소수가 나타났고, 대중의 모방이 그들을 향했다고 보아야겠군.
- ⑤ 셋째 집단은 생활 터전과 생활양식을 모두 바꾸는 방식으로 환경의 변화에 응전하여 문명을 발생시켰다고 보아야겠군.

9.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수능 A형 B형

요즘 시청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접 광고에 수시로 노출되어 광고와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에 놓이게 됐다. 방송 프로그램의 앞과 뒤에 붙어 방송되는 직접 광고와 달리 PPL(product placement)이라고도 하는 간접 광고는 프로그램 내에 상품을 배치해 광고 효과를 거두려 하는 광고 형태이다.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리모컨을 이용해 광고를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시청자에게 노출될 확률이 더 높다.

광고주들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상품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확산시키려 한다. 간접 광고에서는 이러한 광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를 활용한다. 주류적 배치는 출연자가 상품을 사용·착용하거나 대사를 통해 상품을 언급하는 것이고, 주변적 배치는 화면 속의 배경을 통해 상품을 노출하는 것인데, 시청자들은 주변적 배치보다 주류적 배치에 더 주목하게 된다. 또 간접 광고를 통해 배치되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프로그램의 맥락에 잘 부합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가 커지는데 이를 맥락 효과라 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극히 제한된 형태의 간접 광고만을 허용하는 ㉠협찬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 제도는 프로그램 제작자가 협찬 업체로부터 경비, 물품,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협찬 업체를 알리는 협찬 고지를 허용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내용이 전개될 때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거나 출연자가 이를 언급해 광고 효과를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했다. 협찬 받은 의상의 상표를 보이지 않게 가리는 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협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광고주와 방송사 등의 요구에 따라 방송법에 '간접 광고'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였다. ㉡간접 광고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프로그램 내에서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 광고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프로그램 내에서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는 것이 허용되었다. 다만 시청권의 보호를 위해 상품명이나 상호를 언급하거나 구매와 이용을 권유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또 방송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보도, 시사, 토론 등의 프로그램에서는 간접 광고가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 광고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간접 광고로 인해 광고 노출 시간이 길어지고 프로그램의 맥락과 동떨어진 억지스러운 상품 배치가 빈번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시청자의 인식 속에 은연 중 파고드는 간접 광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에게 간접 광고에 대한 주체적 해석이 요구된다. 미디어 이론가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외부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프레임을 갖고 있어서 미디어의 콘텐츠를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간접 광고를 분석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미디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9.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간접 광고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고 있다.
- ② 간접 광고와 관련된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 ③ 간접 광고를 배치 방식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 ④ 간접 광고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⑤ 간접 광고에 관한 이론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10. 뒷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간접 광고에서 주변적 배치가 주류적 배치보다 더 시청자의 주목을 받는다.
- ②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즉각적으로 광고를 회피하기가 더 쉽다.
- ③ 간접 광고가 삽입된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에는 수용자 개인의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는다.
- ④ 직접 광고와 간접 광고는 광고가 시청자들에게 주는 효과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 ⑤ 간접 광고가 광고인 것을 시청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광고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

11. ㉠과 ㉡에 대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시행되면서, 프로그램 내용이 전개될 때 상표를 노출할 수 있게 되어 방송 광고업계는 이 제도를 환영했겠군.
- ② ㉠에 따라 경비를 제공한 협찬 업체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의 협찬 고지를 통해서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있겠군.
- ③ ㉡이 도입된 이후에는 프로그램 내용이 전개될 때 작위적으로 상품을 노출시키는 장면이 많아졌겠군.
- ④ ㉡을 도입할 때 보도와 토론 프로그램에서 간접 광고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방송의 공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겠군.
- ⑤ ㉠에 따른 광고와 ㉡에 따른 광고 모두 맥락 효과를 얻을 수 있겠군.

12.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다음은 최근 인기 절정의 남녀 출연자가 등장한,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의 한 장면에 대한 설명이다.

연인 관계로 설정된 두 남녀가 세련되고 낭만적인 분위기의 커피 전문점에 앉아 있다. 남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 전화는 상표가 선명하게 보인다. 여자가 입고 있는 의상의 상표가 가려져서 시청자들은 상표를 알아볼 수 없다. 남자는 창밖에 보이는 승용차의 상품명을 언급하며 소름이 없는 좋은 차라고 칭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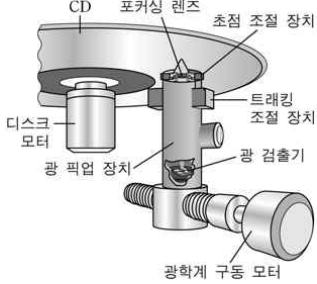
커피 전문점, 휴대 전화, 의상, 승용차는 이를 제공한 측과 방송사 측의 사전 계약에 의해 활용된 것이다. 커피 전문점의 이름과 의상을 제공한 업체의 이름은 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고지되었다.

- ① 남자가 사용하는 휴대 전화의 제조 회사는 간접 광고의 주류적 배치를 활용하고 있군.
- ② 여자가 입고 있는 의상을 제공한 의류 회사는 간접 광고의 주변적 배치를 활용하고 있군.
- ③ 이 프로그램에는 협찬 제도에 따른 광고와 간접 광고 제도에 따른 광고가 모두 활용되고 있군.
- ④ 남자가 승용차에 대해 말하는 내용으로 보아 이 방송 프로그램은 현행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군.
- ⑤ 방송 후 화면 속의 배경이 된 커피 전문점에 가려고 그 위치를 문의하는 전화가 방송사에 쇄도했다면 간접 광고의 맥락 효과가 발생한 것이군.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수능 A형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표면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이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효과를 이용해 정보를 판독한다. CD의 기록면 중 광선이 흩어짐 없이 반사되는 부분을 랜드, 광선의 일부가 산란되어 빛이 적게 반사되는 부분을 피트라고 한다. CD에는 나선 모양으로 돌아 나가는 단 하나의 트랙이 있는데 트랙을 따라 일렬로 랜드와 피트가 번갈아 배치되어 있다. 피트를 제외한 부분, 즉 이웃하는 트랙과 트랙 사이도 랜드에 해당한다.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모터, 광 픽업 장치, 광학계 구동 모터로 구성된다. 디스크 모터는 CD를 회전시킨다. CD 아래에 있는 광 픽업 장치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 CD 기록면에 조사하고, CD에서 반사된 광선은 광 픽업 장치 안의 광 검출기가 받아들인다. 광선의 경로 상에 있는 포커싱 렌즈는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으고, 광 검출기는 반사된 광선의 양을 측정하여 랜드와 피트의 정보를 읽어 낸다. 이때 CD의 회전 속도에 맞춰 트랙에 광선이 조사될 수 있도록 광학계 구동 모터가 광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직선으로 이동시킨다.



CD의 고속 회전 등으로 진동이 생기면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데이터를 잘못 읽을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트래킹 조절 장치와 초점 조절 장치를 제어해 실시간으로 편차를 보정해야 한다. 편차 보정에는 광 검출기가 사용된다. 광 검출기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전후좌우의 네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트랙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전후 영역이, 직각 방향으로 좌우 영역이 배치되어 있다. 이때 각 영역에 조사되는 빛의 양이 많아지면 그 영역의 출력값도 커지며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을 통해 피트와 랜드를 구별한다.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중앙에 초점이 맞은 상태로 정확히 조사되면 광 검출기 네 영역의 출력값은 모두 동일하다. 그런데 광선이 피트에 해당하는 지점에 조사될 때 트랙의 중앙을 벗어나 좌측으로 치우치면, 피트 원편에 있는 랜드에서 반사되는 빛이 많아져 광 검출기의 좌 영역의 출력값이 우 영역보다 커진다. 이 경우 두 출력값의 차이에 대응하는 만큼 트래킹 조절 장치를 작동하여 광 픽업 장치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편차를 보정한다. 우측으로 치우쳐 조사된 경우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편차를 보정한다.

한편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광선의 모양은 초점의 상태에 따라 전후나 좌우 방향으로 길어진다.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광선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조사된 모양이 전후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반면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좌우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때 광 검출기의 전후 영역 출력값의 합과 좌우 영역 출력값의 합을 구한 후, 그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CD 기록면과 가깝게 또는 멀게 이동시켜 초점이 맞도록 한다.

13. 윗글에 나타난 여러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초점 조절 장치는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이동시킨다.
- ② 포커싱 렌즈는 레이저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아 준다.
- ③ 광 검출기의 출력값은 트래킹 조절 장치를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
- ④ 광학계 구동 모터는 광 픽업 장치가 CD를 따라 회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 ⑤ 광 픽업 장치에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키는 부분과 반사된 레이저 광선을 검출하는 부분이 있다.

14.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CD에 기록된 정보는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읽어야 하겠다.
- ② 레이저 광선은 CD 기록면을 향해 아래에서 위쪽으로 조사되었겠다.
- ③ 광 검출기에서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은 피트를 읽을 때보다 랜드를 읽을 때 더 크게 나타났겠다.
- ④ 렌즈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광 검출기의 전 영역과 후 영역의 출력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보정하겠군.
- ⑤ CD의 고속 회전에 의한 진동으로 인해 광 검출기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의 모양이 길쭉해질 수 있겠다.

1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다음은 CD 기록면의 피트 위치에 레이저 광선이 조사되었을 때 <상태 1>과 <상태 2>에서 얻은 광 검출기의 출력값이다.

영역	전	후	좌	우
상태 1의 출력값	2	2	3	1
상태 2의 출력값	5	5	3	3

- ①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레이저 광선의 총량은 <상태1>보다 <상태2>가 작다.
- ② <상태1>에서는 초점 조절 장치가 구동되어야 하지만, <상태2>에서는 구동될 필요가 없다.
- ③ <상태1>에서는 트래킹 조절 장치가 구동될 필요가 없지만, <상태2>에서는 구동되어야 한다.
- ④ <상태1>에서는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오른쪽에 치우쳐 조사되고, <상태2>에서는 가운데 조사된다.
- ⑤ <상태1>에서는 포커싱 렌즈와 CD 기록면의 사이의 거리를 조절할 필요가 없지만, <상태 2>에서는 멀게 해야 한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수능 B형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은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이러한 상식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도 구분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 또한 우리의 상식이다. 위가 텅 비어 있으면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현상, 두려움을 느끼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현상 등이 그런 예이다. 문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이질성과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상식을 조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 곧 심신 이원론은 그 두 종류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먼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상호 작용론이 있다. 이는 위가 텅 비었다는 육체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고통을 느낀다는 정신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나고, 두려움이라는 정신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육체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서양 근세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비해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대로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상호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육체적 사건도 평행하게 항상 일어나기 때문이다.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사건은 다른 물질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는 생각, 즉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근대 과학의 기본 전제이다. 평행론은 이 전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다.

부수 현상론은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두 가지 상식 사이의 조화를 설명하려는 이원론이다. 이에 따르면 ㉠육체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을 일으키고 또 다른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동반되는 부수 현상일 뿐,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정신적 사건이 아무 일도 못하면서 따라 나올 뿐이라는 주장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정신적 사건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을 구분하면서 그 둘이 관련 있음을 설명하려는 이론들은 모두 각자의 문제점에 봉착한다. 그래서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두 사건이 문자 그대로 동일한 사건이라는 동일론, 곧 심신 일원론이 제기된다. 과학의 발달로 그동안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것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인과 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고 보게 된 것이다.

16. 뒷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심신 이원론’에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구분된다는 상식을 포기하지 않는다.
- ② ‘상호 작용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 ③ ‘평행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서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④ ‘부수 현상론’에서는 육체적 사건이 정신적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 ⑤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상식이 모두 성립함을 보여 준다.

17. ‘평행론’과 ‘동일론’에서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적절한 것은?

- ① 정신적 사건들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② 육체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은 서로 대응되며 별개의 세계에 존재한다.
- ③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 ④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⑤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신적 사건이 존재한다.

18. <보기>는 ‘부수 현상론’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이다. ㉠과 ㉡에 대응하는 것을 ㉢~㉤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 보 기 >

㉠지구, 달, 태양의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 ㉡조수 간만이 나타나기도 하고 보름달, 초승달과 같이 ㉢달의 모양이 달리 보이기도 한다. 이 때 조수 간만은 다시 개펄의 형성 등과 같은 또 다른 일의 원인이 된다. 반면에 달의 모양은 세 천체의 상대적인 위치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일 뿐, 어떠한 인과적 역할도 하지 않는다.

	㉠‘육체적 사건’	㉡‘정신적 사건’
①	a	b
②	a	c
③	b	a
④	c	a
⑤	c	b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수능 B형

우주에서 지구의 북극을 내려다보면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자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는 지구 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되는 가상적인 힘을 전향력이라 한다.

전향력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구 모양인 지구의 둘레는 적도가 가장 길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짧아진다. 지구의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므로 자전하는 속력은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고위도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져서 남극과 북극에서는 0이 된다.

적도 상의 특정 지점에서 동일한 경도 상에 있는 북위 30도 지점을 목표로 어떤 물체를 발사한다고 하자. 이때 물체에 영향을 주는 마찰력이나 다른 힘은 없다고 가정한다. 적도 상의 발사 지점은 약 1,600km/h의 속력으로 자전하고 있다. 북쪽으로 발사된 물체는 발사 속도 외에 약 1,600km/h로 동쪽으로 진행하는 속력을 동시에 갖게 된다. 한편 북위 30도 지점은 약 1,400km/h의 속력으로 자전하고 있다. 목표 지점은 발사 지점보다 약 200km/h가 더 느리게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발사된 물체는 겨냥했던 목표 지점보다 더 동쪽에 있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 지구 표면의 발사 지점에서 보면, 발사된 물체의 이동 경로는 처음에 목표로 했던 북쪽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져 나타나게 된다.

이번에는 북위 30도에서 자전 속력이 약 800km/h인 북위 60도의 동일 경도 상에 있는 지점을 목표로 설정하고 같은 실험을 실행한다고 하자. 두 지점의 자전하는 속력의 차이는 약 600km/h이므로 이 물체는 적도에서 북위 30도를 향해 발사했을 때보다 더 오른쪽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운동 방향이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진다. 결국 위도에 따른 자전 속력의 차이가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북극과 남극에서 최대가 되고, 적도에서는 0이 된다. 이러한 편향 현상은 북쪽뿐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전향력의 크기는 위도뿐만 아니라 물체의 이동하는 속력과도 관련이 있다. 지표를 기준으로 한 이동 속력이 빠를수록 전향력이 커지며, 지표 상에 정지해 있는 물체에는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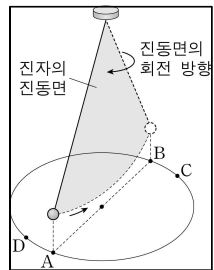
1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북위 30도 지점과 북위 60도 지점의 자전 주기는 동일하다.
- ② 운동장에 정지해 있는 축구공에는 위도에 상관없이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③ 남위 50도 지점은 남위 40도 지점보다 자전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력이 더 빠르다.
- ④ 남위 30도에서 정남쪽의 목표 지점으로 발사한 물체는 목표 지점보다 동쪽에 떨어진다.
- ⑤ 우리나라의 야구장에서 타자가 쳐서 날아가는 공의 이동 방향은 전향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2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전향력은 1851년 프랑스의 과학자 푸코가 파리의 팽테옹 사원에서 실시한 진자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푸코는 길이가 67m인 줄의 한쪽 끝을 천장에 고정하고 다른 쪽 끝에 28kg의 추를 매달아 진동시켰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자의 진동면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추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 전향력에 의해 C쪽으로 미세하게 휘어져 이동하고, 되돌아올 때는 D쪽으로 미세하게 휘어져 이동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 ① 남반구에서 이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겠군.
- ② 파리보다 고위도에서 동일한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은 더 느리게 회전하겠군.
- ③ 북극과 남극에서 이 진자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의 회전 주기는 동일하겠군.
- ④ 적도 상에서 동서 방향으로 진자를 진동시킬 경우 진자의 진동면은 회전하지 않겠군.
- ⑤ 남위 60도에서 이 진자 실험을 할 경우 움직이는 추는 이동 방향의 왼쪽으로 편향되겠군.

[21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수능 B형

베토벤의 교향곡은 서양 음악사에 한 획을 그은 걸작으로 평가된다. 그 까닭은 음악 소재를 개발하고 그것을 다채롭게 처리하는 창작 기법의 탁월함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연주 시간이 한 시간 가까이 되는 제3번 교향곡 '영웅'에서 베토벤은 으뜸 화음을 펼친 하나의 평범한 소재를 모티브로 취하여 다양한 변주와 변형 기법을 통해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가락을 다채롭게 들리게 했다. 이처럼 단순한 소재에서 착상하여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함으로써 성취해 낸 복잡성은 후대 작곡가들이 본받을 창작 방식의 전형이 되었으며, 유례없이 늘어난 교향곡의 길이는 그들이 넘어서야 할 산이었다.

그렇다면 오로지 작품의 내적인 원리만이 베토벤의 교향곡을 19세기의 중심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하게 했을까? 베토벤의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초 음악사의 중심에 서고자 했던 독일 민족의 암묵적 염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1800년을 전후하여 뚜렷하게 달라진 빈(Wien)의 청중의 음악관, 음악에 대한 독일 비평가들의 새로운 관점, 그리고 당시 유행한 천재성 담론에 반영되었다.

빈의 ㉠새로운 청중의 귀는 유럽의 다른 지역 청중과는 달리 순수 기악을 향해 열려 있었다. 순수 기악이란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 외에는 다른 어떤 것과도 연합되지 않는 음악을 뜻한다. 당시 청중은 언어가 순수 기악이 주는 의미를 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목이나 가사 등의 음악 외적 단서를 원치 않았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한을 향해 열려 있는 '음악 그 자체'였다.

또한 당시 음악 비평가들은 음악을 '읽는' 방식으로 이해하기를 원했다. 이는 음악을 정서의 촉발자로 본 이전 시대와 달리 음악을 감상자가 능동적으로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슈레겔은 모든 순수 기악이 철학적이라고 보았으며, 호프만은 베토벤의 교향곡이 '보편적 진리를 향한 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당시의 빈의 청중과 독일의 음악 비평가들은 베토벤의 교향곡이 음악의 독립적 가치를 극대화한 음악이자 독일 민족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 주는 순수 기악의 정수라 여겼다.

더욱이 당시 독일 지역에서 유행한 천재성 담론도 베토벤의 교향곡이 특별한 지위를 얻는 데 한몫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천재상은 타고난 재능으로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는 자였다. 베토벤은 이전의 교향곡의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채를 더하여 교향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여겨졌다. 베토벤이야말로 이러한 천재라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그의 교향곡은 더욱 주목받았다.

2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베토벤 신화 형성 과정에는 독일 민족의 음악적 이상이 반영되었다.
- ② 베토벤 교향곡의 확대된 길이는 후대 작곡가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였다.
- ③ 베토벤 교향곡에서 복잡성은 단순한 모티브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창작 방식에 기인한다.
- ④ 베토벤 교향곡 '영웅'의 변주와 변형 기법은 통일성 속에서도 다양성을 구현하게 해 주었다.
- ⑤ 베토벤의 천재성은 기존의 음악적 관습을 부정하고 교향곡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시한 데에서 비롯된다.

22. ㉠의 관점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음악은 소리를 다양하게 변형시켜 그것을 듣는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킨다.
- ② 음악은 인간의 구체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언어이다.
- ③ 가사는 가락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라는 점에서 언어는 음악의 본질적 요소이다.
- ④ 음악은 언어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언어를 초월하는 예술이다.
- ⑤ 창작 당시의 시대상이 음악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음악 외적 상황은 음악 이해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23. <보기>와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로시니는 베토벤과 동시대인으로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오페라 작곡가였다. 당시 순수 기악이 우세했던 빈과는 달리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오페라가 여전히 음악의 중심에 있었다. 당대의 소설가이자 음악 비평가인 스탕달은 로시니가 빈의 현학적인 음악가들과는 달리 유려한 가락에 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최고의 작곡가로 평가하였다.

- ① 슈레겔은 로시니를 '순수 기악의 정수'를 보여 준 베토벤만큼 높이 평가하지 않았겠군.
- ② 호프만은 당시의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음악이 '새로운 전통'을 창조했다고 보았겠군.
- ③ 음악을 '읽는 방식'으로 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페라는 교향곡보다 우월한 장르로 평가받았겠군.
- ④ 스탕달에 따르면, 로시니의 음악은 베토벤이 세운 '창작 방식의 전형'을 따름으로써 빈의 현학적인 음악가들을 뛰어넘은 것이겠군.
- ⑤ 당시 오페라가 여전히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음악을 '정서의 촉발자'가 아닌 '능동적 이해의 대상'으로 보려는 청중의 견해 때문이었겠군.